



5

198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5호

(루게 403)



◆◆◆◆◆◆◆◆ 차 례 ◆◆◆◆◆◆◆◆

백두산천지	4
금수강산	5
주체적문화예술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힌 력사적문헌	6
간호원의 말	10
그날의 빛발을 두고	11
뜻깊은 기슭에서	12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빛나는 형상에 대한 서사시적화폭	14
위대한 사랑이 안겨준 혁명가의 지조	20
맑은 시내	22
우리 사는 락원의 거리여	27
성실한 삶	28
덕흥나그네	30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37
아름다운 강산 (외 1 편)	46
무지개 비끼였소	47
5 월찬가	47
강물의 흐름 따라 영원할 이야기	49
백두산의 산제비	50

평범한 나날에	51
당비서	52
출강전 그들의 마음은... (외 2 편).....	53
쇠물은 끓고 또 끓고	53
로	54
기슭으로 돌아오며.....	54
그날의 젊음으로	55
달밝은 밤에	56
창광거리의 밤	57
출옥날엔	58
한생을 깨끗하게 살리	63
아침출근길	63
항쟁의 노래	64
어제와 오늘	71
민족의 분노.....	73
세월이 갈수록	74
단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감정조직을 잘하기 위하여	75
소설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79

백두산천지

최준경

계절도 오르기 저어하는
아득한 절벽을 병풍처럼 비껴안고
하늘가에 솟아 출렁이는 천지의 물결이어
풍상속에 다듬어진 너의 기슭에 서니
승엄해지는 내 마음
장쾌한 걱정 of 파도에 휩싸여라

백두의 장군별이 여기 비칠 때
그 빛을 첫 소생의 숨결로 간직하고
얼어붙은 세기의 얼음장을 깨친 곳
그날부터 너는 봄의 서곡을 터치며
인민의 마을 일천골짜기로 흘러내렸거니

여기엔 다 있어라
태고의 밤을 태우던 수해의 우등불도
총검을 버리던 밀영의 마치고소리도
만년설을 헤쳐가던 대오의 붉은기도
호반에 비껴와 머물러있는 듯
물속깊이 흔들리는 하나의 돌도
내 가슴에 전설같은 이야기 전해주어라

오, 피바다기슭에서 울던 겨레들을
땅의 절정에 떠받들어
거울처럼 비쳐준 하늘나라 호수여
오늘은 건뚝 들린 만리대공에
환희의 노래를 터쳐올리는 천지여

여기서 나는 다시 본다
항일의 긴긴 세월을 넘고 또 넘어

이깎나무 붓나무 숲을 지나 또 지나
푸른 기개 억센 기상 휘뿌리며
락원의 강토를 적시는 너의 물결을 본다

장엄하고 황홀해라
남으로 펼쳐진 억만 초목과 황금나락도
천지의 물을 마시고 일렁이는 듯
동서해 기슭으로 잇닿아 솟은
도시의 지붕들과 창조의 굴뚝들도
백두의 넋을 안고 내려치는 듯
슬기론 존엄으로 빛나는 내 조국
나는 기쁨에 넘쳐 한품에 안는다

오, 인간의 힘과 기적의 정신으로 가득찬
우리 혁명의 도도한 흐름
우리 시대의 장엄한 노래가
억만년 기울이고 퍼내어도 끝모를
여기 천지에서 시작되었거니
굽어보면 물은 물이로되
나에겐 그렇게만 생각되지 않아라

백두의 푸른 천지여
너는 우리 혁명이 시작된 첫 기슭에 넘쳐
우리 가당을 마지막 기슭까지 적시며
시대와 력사의 구간들을
전설과 기적과 영광의 꽃으로 가득 채우는
혁명전통의 맑은 샘물
주체조국의 무한대한 생명수가 아니냐!

금수강산

박원식

눈보라 울부짖는 설령을 넘어
그 몇백리-
장군님 모신 조국진군대오
강설이 녹아내리는 밀림을 헤쳐
유유한 압록강의 흐름을 안았어라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의 얼굴인가
파랗게 열려오는 하늘
맑은 바람결 타고 들려오는
계곡의 물소리도 정다와라

강너머 풍겨오는
조국의 봄향기 하두 좋아 따라섰는가
난데없이 행군길에 올라선
호합진 사슴 한쌍
기다린듯 섰네
그림처럼 섰네

바라보는 대원들 홀린듯 멈춰서고
아무렴, 이때라 작식대원아바이
어깨에서 서둘러 총을 내리는데
봄빛 흐르는 조국땅을 바라보시며
깊으신 생각 모으시는 장군님
나직하나 엄하게 울리시는 말씀이여

-저 사슴도
해방된 금수강산에
아름다운 빛을 더해줄 밀천입니다
조국땅 대안으로 몰아보냅시다!

아, 순간-
멈춰섰던 대원들도
감격에 겨워 걸음 옮기고

푸르려 설레이며
파도쳐 달려오는 조국강산이여

걸음걸음
피어린 싸움길
혈전의 언덕에서
총탄에 뿌리 들린 한그루 애솔나무도
소중하니 다시 묻어가시던 나날
장군님 한량없는 사랑속에 뿌리내려
무성한 아지를 펼친것이 아니냐

원썩들이 불지른
이름없는 산밭을 넘으시면서도
누를길 없는 아픔을 새기시며
우리 장군님
한그루 또 한그루
손수 나무모를 옮기시던
숭고한 그 뜻이 어린 강산이여

조국으로-
조국으로 가는 행군길
한쌍의 사슴 유유히 사라진
조국땅 대안의 기슭에서
푸득이며 솟구쳐 우짚으며
아름다운 못새떼 하늘높이 날아올라라

아, 어버이장군님
헤쳐오신 눈보라 만리
자욱자욱 녹여오신 그 길우에서
봄꽃은 망울지어
아름다운 금수강산
조국은 소생의 새봄을 맞았어라

주체적문화예술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힌 력사적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발표 35돐에 즈음하여-

리동수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보고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근로자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발표 3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이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한 어렵고도 복잡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과 함께 반드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앞에 나서는 중대하고도 필수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1946년 5월 24일 북조선 각 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연설은 새 조선 건설에 이바지하는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건설을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펼친 위대한 문화건설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새 문화건설의 담당자이며 주체적력량인 문화예술인들이 지닌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밝히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맞는 주체적민족문화건설을 위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히시였다.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과 민족주의, 지방할거주의자들은 해방직후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를 악용하여 문화건설분야에서도 좌우경적로선을 주장해 나섰었다. 그들은 《우리가 건설해야 할 문화는 계급문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느니 《근대적의미에서의 민족문화》로 되어야 한다느니 하는 등의 우경적이며 투항주의적인 구호를 들고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당장 사회주의적소베트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등으로 극좌적인 문화건설로선을 들고나와 주체적인 참다운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길에 커다란 혼란과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렇듯 문화건설분야에서 무질서와 혼동이 지배하고있던 해방직후의 복잡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건설해야 할 민족문화의 성격과 특징을 옳게 규정하

고 그 발전방향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성격과 임무, 조성된 정세발전의 요구와 우리 문화발전의 력사적특수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가 건설하여야 할 문화는 부강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민족문화, 다시말하여 내용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이며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인 주체적인 민주주의적민족문화로 되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해방직후 조성된 절박한 혁명정세의 요구와 우리 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참다운 문화건설의 대강으로 펼쳐진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강령적로작은 제국주의기반에서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이 로동계급의 새 문화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힘있는 리론실천적무기로, 둘도 없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에서 먼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문화인들이 지닌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들입니다. 동무들에게는 동무들의 입으로, 동무들의 붓으로 조선사회를 뒤걸음질치게 하려는 반동세력을 쳐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을 애국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으로 교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동세력을 분쇄하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동무들이 문화전선에서 잘 싸우는가 못싸우는가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민주조선 건설의 주요동력의 하나인 문화인들의 지위와 그들이 지닌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그들에게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문화전선의 투사라는 고귀한 칭호에는 그들이 문화의 단순한 창조자나 전달자가 아니라 문학예술을 무기로 하여 혁명위업을 고수 옹호하고 빛내어나가는 문화전선의 전초병이며 문예창조활동을 통하여 부강한 조국건설

을 떠밀어나가는 혁명의 기수라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투사의 영예를 지닌 문화인들앞에는 미제와 그 주구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관료배, 반당 반혁명잔여분자 등 온갖 반동세력을 철저히 소탕하며 민주주의적민족문화를 꽃피우고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해야 할 영예로운 사명이 나르고있다.

문화인들은 이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할 때만이 계급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문화전선의 전초선에 선 투사로서의 영예를 다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멸시를 받아온 우리 지식인, 문화인들이 건국사업에 펼쳐나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새 문화를 더 잘 건설하기 위하여 당면한 문화선전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무엇보다먼저 선전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문화의 창조사업에 옹계 구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오늘 여러 동무들에게 요구하고싶은것은 동무들이 대중속에 들어가서 대중이 알아들을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써야 하겠다는것입니다. 대중을 위하여 일하며 대중의 심리를 잘 알고 대중의 말로 말하며 대중이 요구하는 글을 쓰며 대중을 가르칠뿐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야만 진정한 문화인, 대중의 문화인, 민주주의적문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인간중심의 혁명학설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관점으로 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화활동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게 할데 대한 인민성의 요구를 구현하도록 가르쳐주는 위대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 그들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문화예술을 창조하는것은 인민대중을 그리며 그들에게 복무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문화예술의 본성과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계급문화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교시에서 문화예술의 인민성의 본질과 그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와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인민성에 관한 사상을 새롭게 정식화, 풍부

화하시였으며 그 구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문화예술인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세워 당정책이 구현되는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알기 쉽고 통속적인 글을 쓰며 인민대중을 가르칠뿐아니라 인민대중에게서 배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는 문화예술창조사업에서 인민성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뚜렷이 밝혀주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으로 된다.

또한 이 강령적교시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충성심이 끝없이 발양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로자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품모를 따라배우며 현실속에서 사색하며 글을 쓰는 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며 자신의 예술적기량을 축적해나가도록 문화예술인들을 튼튼히 준비시키는 가장 정당한 지침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보람찬 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이야말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되며 창작적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된다.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간다는것은 로동자, 농민 등 근로자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들어가 인간생활과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체험한다는것을 말한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향하고있으며 무엇을 원하고있는가를 심장으로 체득해야 하며 그래야 자기들이 쓰는 글과 모든 예술창조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희망을 정확히 반영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기호와 비위에 맞는 예술형식을 창조해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대중속에 들어갈뿐아니라 그들속에서 선전전, 문화전을 적극 벌려 대중의 정치문화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조선에서의 싸움은 무장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이며 선전전, 문화전입니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적들은 허위를 선전하고있기때문에 그들에게는 궤변이 필요하지만 진리를 선전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동무들은 정의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나라 근로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선전전, 문화전을 적극 벌려 대중의 정치문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

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인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기 위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 특히 그들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시어 선전전, 문화전의 과녁을 인민대중 속에 정의와 진리를 해설선전하는데 돌리고 그들의 사상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게 하시였다.

적들은 허위를 선전하기때문에 꾀변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선전하기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대중이 알아들을수 있는 말과 글로 정의와 진리를 해설선전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문화인들이 민주주의의 진리를 깊이 알고 그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문화인, 예술인들속에 민주주의의 진리를 깊이 인식시키는것은 그들자신이 민주주의의 진리를 대중속에 심어주는 교양자, 선전자이라는 사정과 그들자신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있었던 실정으로부터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고있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다시말하여 진보적민주주의이다. 진보적민주주의야말로 자주성을 지향하며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전민족의 단합으로 부강한 독립국가건설을 위해 혁명을 지향하는 진보적민주주의이다.

문화인, 예술인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문화인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그러자면 문화인들이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문화인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에서 문화건설에서 당면하게 제기되고있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바로 세우며 대외선전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문학, 예술 및 과학분야에서 일본제국주의의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며 민족문

화유산을 계승하고 다른 나라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의 민족문화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밝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강령적과업은 우리 문화의 로동계급적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게 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우리 문화분야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철저히 없애버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 일본제국주의의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없애버려야 하겠습니다.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는 아직도 일본제국주의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문화인들은 우선 언어행동에서부터 일본제국주의의 범사를 뿌아버려야 하며 또한 자기들의 작품에서 일제사상잔재를 청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분야에서 일제잔재를 철저히 없애는것은 지난날 우리 문화발전의 력사적특수성과 우리가 건설해야 할 문화의 계급적성격으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나서고있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화살을 문화분야에 돌리고있는 조건에서 반동문화의 잔재를 숙청하고 제국주의문화침투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에서 우리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방침의 하나로 된다.

이 방침은 문화인, 예술인들로 하여금 언어행동으로부터 사고방식과 실천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체의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째 문예작품을 비롯한 문화건설분야에서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벌림으로써 주체적문화예술의 순결성과 혁명적기치를 철저히 고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문화의 계급적순결성을 고수함에 대한 방침은 로동계급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가장 정당한 문예방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이어받으며 다른 나라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데서 지켜야 할 립장과 근본원칙에 대하여 심오히 밝혀주시였다.

지난날 선조들이 이룩한 민족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앞선 문화를 어떻게 대하며 받아들이는가에 하는것은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매개 나라로

동계급에게 있어서 언제나 원칙적인 문제의 하나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후 변화된 사회경제관계와 문화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민족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타나고있던 좌우경적인 편향을 제때에 바로 잡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와 원칙을 독창적으로 심오히 밝히심으로써 주체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길을 밝혀주시었다.

당시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그릇된 두가지 편향이 나타나고있었다. 하나는 우리의 고유한것만을 좋다고 하고 다른 나라의것은 다 나쁘다고 하는 배타주의적이고 복고주의적인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우리의것은 다 나쁘고 서양것만을 좋다고 하는 민족허무주의적이고 사대주의적인 경향이였다.

이 두가지 경향은 두 극단에서 민족문화건설의 앞길을 저해하는 그릇된 경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화건설의 주체적방향에 기초하시여 문화유산계승과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타나고있었던 배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경향의 본질과 그 해독적후과를 날날이 밝히시고 새로운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문화인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가운데서 우수한것은 계승하고 략후한것은 극복하며 선진 국가들의 문화가운데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것들을 섭취하여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민족문화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강령적 가르치심에는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하며 다른 나라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지켜야 할 근본 립장과 원칙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지난날의 문화유산가운데서 우수한것은 계승하고 략후한것은 극복할데 대한 이 방침은 로동계급적선에 철저히 서서 옳고 그른것을 정확히 가려보고 비판적견지에서 계승할데 대한 원칙적요구를 밝혀주고있다. 이것은 지난날 착취계급사회에서 만들어진 문화유산의 력사적특수성과 뒤떨어진 당대의 사회경제관계를 반영한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적제한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밝혀진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나라의 선진문화를 섭취함에 있어서도 자기 나라 인민의 비위와 구미에 맞는것만을 받아들이되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것만을 주체적

립장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여기에서도 자기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다른 나라의 선진문화를 섭취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민족문화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는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길에 들어선 우리 인민이 주체적인 민주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거해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으로서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식민지적노예문화의 후과를 가지고 로동계급의 참다운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위대한 문화건설강령으로 된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독창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새 사회 건설에서 문화인들의 위치와 역할, 그들이 지닌 임무와 숭고한 사명을 뚜렷이 밝히고 새로 건설하게 될 문화의 성격과 내용, 그 발전방향을 독창적으로 심오히 천명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예술은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뚜렷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주체적인 민주주의적문화건설의 한길을 따라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부강한 조국건설을 위한 벽찬 투쟁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예리한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또한 문학예술건설분야에서 계급성을 부인하고 부르조아문화의 독소를 주입하려는 제국주의반동문화와 온갖 부르조아적이며 기회주의적인 낡은 문화잔재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로동계급문화의 혁명적이며 계급적인 기치를 튼튼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또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건설해야 할 문화의 성격과 특징을 독창적으로 밝히고 문화건설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문화인들이 지닌 숭고한 임무와 사명, 문화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본질과 그 실현방도, 민족문화유산계승의 필연성과 계승의 원칙 등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답을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는 새 조국 건설의 길에 들어선 문화인, 예술인들에게 주체적인 민주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밝은 앞길을 열어준 강령적연설로서 지난 35년간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

예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화의 성격과 사명을 옹계 규정하고 그 발전방향과 방침을 제때에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 실로 수많은 업적과 경험을 축적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되었습니다. ... 참으로 지난 1970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여나가는 과정에 영광스러운 당에서

는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제시하고 영화예술을 돌파구로 하여 문학과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정력적인 지도를 이어오는 나날에 온 세상사람들이 찬탄과 경이의 눈길로 우러러 바라보는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이 땅우에 펼쳐놓았다.

오늘 인류예술의 상상봉우에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높이 솟아오른 주체예술의 이 자랑찬 성과에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역센 뿌리에서 싹을 틔워 무르익히신 새 문화 건설의 위대한 강령이 그 기초에 놓여있다.

오늘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관철하여 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킴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성스러운 과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한다.

간호원의 말

박함집

저 창문가의 백일홍처럼
내 얼굴 환해서 좋대요
새하얀 위생복처럼
마음도 늘 깨끗하대요

눈은 맑고 손은 약손이래요
그저 곁에 있어만 줘도
시름이 절로 가신대요
글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쉬는 날 범골에 가서
약초 캐온건 사실이에요
하나 대문짝같은 숙보에 내어
얼굴 못들게 할건 뭐예요

동무, 그건 보통사과예요
포도는 마을에서 보낸거야요
팬스리 날더러
어머니라 놀리지 말아요

물론, 노래는 부르겠어요
하지만 엉터리예요
목청이 은방울소리같다는건
기쁨과 힘을 준다는것도

난 말했어요 큰소리로
동문 순 거짓말쟁이라구
다신 상종 안할테라구
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창문가의 꽃이 시들가봐
또 갔지요 뭐, 물병 들고
하니 이번만은 웃지 않고 말해요
진짜 꽃은 내 말속에 있다면서

사시절 시들지 않는 그 꽃
수령님 주신 정성의 꽃이래요
그래서 내 하는 일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 사는 사회주의제도가 좋대요

그날의 빛발을 두고

강현세

불빛은 저녁, 나는 책을 펼친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흘러간 세월을 더듬는 나의 눈앞엔 동강밀영의 귀틀집이 안겨온다.

벌써 45년이란 세월이 흘렀단말인가.

못잊을 그날부터 얼마나 벅찬 나날이 흘렀는가. 사회도, 강산도, 사람도, 집들도,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몰라보게 변하였다. 봄기운이 흘러드는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이는 저녁거리의 불빛들은 하늘의 별바다를 이 땅위에 펼쳐놓은듯 아름답다.

이 밤도 화려한 고층주택들이 일어서는 문수거리 건설장에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새겨가는듯 용접의 불광들이 끝없이 퍼져간다.

거리의 불빛과 용접의 불광들은 금시 책에서 읽은 력사의 그날으로 나의 생각을 더 깊이 이끌어간다.

1936년 5월의 동강밀영!

못잊을 귀틀집앞에 펼쳐진 새초밭에선 묵은 억새풀들이 동강회의참가자들을 맞이하던 그날처럼 봄바람에 설레이리라. 그 묵은 덤불밑에선 부드러운 새싹들이 파릇파릇 돌아나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우리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교시를 가슴에 새기니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헤치신 간고한 행군길이 눈앞에 떠오른다.

경박호의 얼음장이 쪼뽕 갈라터지는 소리가 귀전에 들려온다.

북만의 끝없는 설원과 해빛도 흘러들기 저어하는 천고밀림에 길없는 길을 내시며 백두산 서남부로 대오를 이끄시는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감격없이 는 그려볼수 없다.

힘준한 그 길은 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양으로 이끌어올릴 구상을 무르익히신 사색의 바다였다.

준엄한 투쟁의 행군길에 다듬고 다듬으시여 정식화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글자와 글자들은 끝없이 넓고 깊은 사색의 바다에서 견져내신 빛나는 사상의 별들이며 실천투쟁속에서 찾아취신 빛발이었다.

아늑한 서재가 아니라 눈보라치는 행군길과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짓밟힌 겨레의 가슴을 비쳐주며 태어난 조국광복회10대강령!

빛나는 그 글자들은 동강회의장에서 해발처럼 온 조국땅에 펼쳐졌거니 그 빛발은 삼천리강산의 모든 창문으로 흘러들어 우리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지 않았던가!

모진 수모와 가난을 이야기하듯 누렇게 바랜 신문지조각으로 얼룩이졌던 창문들, 순사놈들의 절그렁거리는 칼자루소리에 기겁을 한듯 닫기던 창문들, 지주, 자본가놈들의 호통소리에 숨소리조차 죽이던 그 창문들을 비치며 동강에서 퍼진 해방의 빛발, 그 빛발은 황막한 이역땅에도 조국의 어느 깊은 산마을에도 뜨겁게 비쳤던것이다.

몇해전 나는 북방의 한 산골마을에 간적이 있었다. 그 외진 마을에도 지난 세월의 못잊을 뜻깊은 이야기가 있었다.

편지가 오면 글을 아는 사람을 찾아 아래마을까지 가야 하던 그 마을에 야학이 생긴것은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얼마후였다.

그 당시 새파란 청년들이었던 오늘의 중늙은이들은 야학에서 우리 글만 아니라 밤이 깊어지면 망을 세우고 혁명가요도 배웠고 비밀독서회도 가졌다. 그리고 오월수리가 되면 이웃 화전마을들이 모여서 운동회도 열었다.

그 시절 이 마을 소년들의 큰 꿈은 어서빨리 자라나서 야학의 망도 서며 축구팀을 무어 이웃마을과 대항해보는것이였다.

적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조국광복회 지하조직은 항일유격대 원호사업도 잘하였다. 백두밀영까지는 근 천리나 되는 그 마을에서 항일유격대를 원호한다는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화전농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리르는 한마음으로 겨울이면 솟구이를 하고 솟구이도 못하는 해에는 다른 변통으로 유격대에 원호물자를 보내군하였다.

이 마을의 야학은 해방되는 날까지 계속되였다. 그때에 청년기에 들어선 어제날의 소년들은 아저씨나 큰형님들처럼 망을 세우고 비밀독서회도 가졌고 오월수리의 축구경기도 계속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큰 나무뿌리처럼 지하 깊이 퍼진 조국광복회조직망이 있던 우리 나라 그 어디에 가나 있는 평범한 이야기다.

얼음장밑에서도 강물은 흐르기 마련이다. 조국광복회 지하조직망들은 지방실정에 따라 그 명칭도 여러가지로 가지면서 합법적인 외곽단체를 가지였다. 이 외곽단체들은 마치도 얼음장위에 덮인 눈처럼 도도히 흐르는 투쟁의 강물을 가리워주는 위장망이었다.

세계에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서부터 민족과 민족들은 외래침략자를 반대하여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였으며 이런 전쟁과정에서 적후교란을 위해 유격투쟁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전개된 유격투쟁은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다. 오

직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간고하고 장기적인 유격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었던것이다.

조국광복회 지하조직망은 그 승리를 밑받침한 보이지 않는 요새, 알려지지 않은 강력한 후방기지가 아니었던가!

밤은 퍼그나 깊었던만 나의 마음은 몽강밀영앞에서 떠날줄 모른다.

수필

뜻깊은 기슭에서

장윤길

건설자절을 눈앞에 둔 어느 일요일,
나는 아버지처럼 건설자가 되겠다는 막내딸 은경을 데리고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을 찾았다.

가없이 푸른 하늘을 떠이고 높이 솟은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야, 멋있네.》

은경이가 붉은넥타이를 팔랑거리며 환성을 올리는데 노랑봄나비가 머리위에 단 연분홍색리봉이 꽃인줄 알았는지 나풀나풀 내려앉는다.

《호호...》

《하하...》

행복에 겨운 웃음이 실바람에 실려간다.

《야, 정말 좋네. 우리 사는 평양이 한눈에 안겨오구...》

은경이는 어쩔바를 모른다.

참으로 여기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높이 솟은 봉화산언덕에서 바라보니 평양은 한쪽의 그림과도 같지 않은가.

금강산의 만물상인듯 해금강의 총석정인듯 기복을 이루고 높이 솟은 다층주탑들, 록음이 질여가는 가로수들은 행복에 넘친 사람들의 마음인양 한없이 설레이고 온갖 새들도 노래하며 끝없이 날아든다.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 뭐이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

《호호, 지금 우리 보는 평양이지뭐, 아버지인 그것 두 둘라.》

《요 껌쩍한거...》

그렇다, 평양은 그대로 하나의 큰 화폭이다.

웃음이면 행복의 웃음밖에 모르고 눈물이면 기쁨의 눈물밖에 모르고 보는것이면 아름다움밖에 모르는 우리 은경이에게 말해주리라. 이 행복, 이 기쁨,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나는 은경이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비문앞으로 다가섰다.

오, 력사에 길이 빛날 동강밀영이여,

1936년 5월의 귀틀집에서 비친 빛발이여, 그 빛발 락원으로 일떠선 이 땅의 아름다움을 비껴담고 어두운 남녘땅, 짓밟힌 가슴들에 조국통일의 신심을 불태워주고 그 빛발 자주의 새 시대를 맞이한 인류의 심장에 영원히 빛발치라!

《오랜 세월 이고장 인민들의 한숨과 피눈물을 자아내며 흘러내리던 원한의 강, 보통강!

그 어느때부터였던가? 인민들의 기쁨을 담아시고 행복을 노래하여 흐르기 시작한것은, 너 보통강아!》

여기까지 비문을 읽어준 나는 더 소리내여 읽을 수 없었다.

목구멍이 꼭 메고 뜨거운것이 단번에 눈굽을 콕적시였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나, 응?》

딸애는 나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은경아...》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에 앞서 깊은 추억에 잠기였다.

...한줄기의 소낙비가 내려도 그대로 강변을 모조리 휩쓸어 가엾은 거래들의 울부짖음 하늘에 사무치게 한 보통강, 여기에 사람들을 몸서리치게 하는 력사적사실이 전해지고있다.

1942년 여름 어느날,

매없이 퍼붓는 비에 강물은 사뭇쳤다. 그리하여 이 한해 여름에만도 수천정보의 논밭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살림집과 술한 생명이 원한을 품고 떠내려갔다.

아, 우리모두 락원에서 산다고 어찌 이런 참화를 무심히 스쳐버릴수 있으랴.

철천의 원썩 일제의 구두발에 뜯기우고 자연의 기승속에 할키워 벌거벗은 땅에서 혈벗은 사람들이 살아가는곳이라 하여 그 이름조차 벗기운 《적굴동》, 보통강변 연연에 《토성랑》, 《거지촌》, 《빈민굴》에서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민의 피눈물이 마를새 없었나니 인민이 겪는 이 가난의 고비는 그 얼마나 길었던가 높았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어진 그 시절에 벌써 이곳 인민들이 겪는 참담한 현실을 통절하게 보시였다.

3.1 운동의 성스러운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노호한 대오와 함께 이고장을 지나가시며 인민
이 겪는 고통을 가슴아프게 목격하시였고 창덕학교
그 시절에 벌써 어리신 가슴에 너무나도 압당한 현
실을 아프게 체험하시였다.

그러기에 백두의 산발을 주름잡으시며 만주팡야
의 눈바람을 헤치시는 그 간고한 나날에도 이고장
인민들을 잊지 못하시였다.

그러기에 폭풍의 산야를 넘어 조국을 안고오신
1945년, 그해 겨울에 벌써 이고장을 찾으시고 어
린시절에 목격하신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보통강개
수공사의 위대한 첫 발기를 하시였다.

어찌 그뿐이라!

해방의 기쁨에 설레이면서도 갈길을 몰라 헤매이
는 인민을 안으시고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한
몸으로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1946년
봄에는 몸소 두차례씩이나 다시 이고장을 찾으시고
개수공사의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5월 21일
드디어 역사적인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을 거행하
시였다.

이렇게 우리 수령님께서 친히 그 첫삽을 뜨시어
주체조선이 위대한 건설의 발자국을 힘차게 내딛게
하시였나니 인민의 가슴엔 격정의 파도가 일고 산
천초목도 감격에 춤을 추었다. 나는 흥분된 마음을
억제하며 입을 열었다.

《여기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삽을 뜨신곳
이다. 우리 조국이 뜻깊은 건설의 걸음마를 댄 영광
의 기슭이다.》

어느덧 딸애의 눈에서는 맑은 방울이 해빛에 구
슬처럼 반짝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이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이 해줄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민주국가건설을
위하여 이 작은 공사부터 완성하지 않으면 안될것
입니다.》**

단순히 물줄기나 정리하고 강폭을 높이는것이 아
니라 봉화산과 봉수산의 허리를 뚫고 잘라 《토성
랑》 쪽으로만 흐르던 보통강물길을 《팔동교》 쪽
으로 돌리고 수천미터에 달하는 제방뚝을 쌓는 대
자연개조였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힘을
믿으시고 장마전으로 단숨에 해제끼자고 하시며 무
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리하여 남들이 10년이 걸려도 못한다던 이 공
사를 단 55일동안에 해제졌다.

진정 자모산골짜기에 시작을 두고 형제산을 굽이
굽이 돌고돌아 수천수만년을 이 땅에 흘렸어도 언
제 이처럼 위대한 건설의 력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력사를 싣고 흐른적 있었더냐! 말하라 보통
강이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삽을 뜨신 그 은혜로운 뚝
에는 수양버들이 흐느적이고 그 뚝너머에 붉은 거
리, 이름조차 저주롭던 《적굴동》 그 자리엔 《락
원동》이 꽃피었다. 보통교무지개다리너머에 솟은
천리마거리며 만수교 건너에 일떠선 금수산거리,
창광거리... 어찌 그뿐이라. 만사람을 황홀케 하는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창광원이 인민을 위해
저렇듯 높이 솟았나니 자연개조의 새 력사가 시작
된 이 뜻깊은 영광의 기슭에서 주체의 내 조국은
그 얼마나 보람찬 나날에 놀라운 기적을 펼쳐왔던
가. 자연개조의 력사를 이 땅에 적으며 기적을 펼쳐
온 새 조선의 노래가 있어 포연에 그슬린 땅의 재
더미를 가시며 꽃피는 락원을 일떠세울수 있었고
산을 떠옮기고 강을 다스리며 거창한 창조의 나날
을 맞이할수 있는게 아니냐.

흘려라 보통강이여,

길이 전하라 보통강이여!

네 기슭에서 꽃피난 사랑의 력사

건설의 력사를,

시작은 있어도

끝없이 끝없이 펼쳐질

찬란한 건설의 력사를...

보아라, 오늘도 푸르른 저 하늘을 들어올리며 문
수거리가 솟아오르고 온 나라 온 강산이 건설의 우
람찬 동음으로 들끓고있으니 명절속에 시작된 우리
의 건설은 명절속에 계속되고 노래속에 기쁨속에
내 조국은 더없이 번영하나니 딸아, 희망의 나래를
더 활짝 펼치여라.

래일은 또다시 너의 후대들에게 오늘의 이 이야
기를 전설처럼 전하며 영광의 이 건설자절을 인민
의 즐거운 명절로 맞으며 향도의 빛밭아래 더 찬란
한 조국을 안고 살리라!

《아버지, 빨리!》

은경이는 여전히 행복에 겨워 나를 돌아보며 손
짓하였다.

그의 리봉우에 앉았던 봄나비가 춤을 추며 나풀
나풀 따라 날은다. 휘황한 조국의 더 좋은 미래를
마중가는듯...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빛나는 형상에 대한 서사시적화폭

-장편소설 《두만강지구》에 대하여-

김성우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1939년 봄과 여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형상을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발전의 본질을 심오히 일반화한 기념비적대작의 하나이다. 이 소설은 정치로선이 명백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오늘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나선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는 투쟁의 무기, 생활의 교과서로 훌륭히 복무하고있다.

1

주체적문제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문학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품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다. 이것은 현시대의 준엄한 계급투쟁과 혁명의 전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해야 할 대작창작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서 나선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철학적으로 무게있는 종자를 깊이 심는데 기초하여 제기된 사회적문제를 예리화하고 시대의 본질과 혁명의 근본원리를 폭넓게 일반화할수 있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는것이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가 우리 인민의 심장을 그토록 격동시키는 기념비적대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바로 그것이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빛나는 형상을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발전의 한 시대를 심오히 일반화함으로써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냈다는데 있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1930년대말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정치적공세앞에서 신념을 잃고 해태이던 우리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에 대한 혁명적신념을 안겨주시고 새로운 투쟁으로 불려일으키기 위한 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투쟁을 묘사하고있다.

소설에 그려진것처럼 조선인민혁명군이 다시 조국으로 진군하려던 당시 조국의 현실은 실로 암담하였다. 적들은 지난 겨울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시 국경지대를 떠난 틈을 타서 혁명조직을 깡그리 파괴하였으며 혁명군은 산속에서 다 굶어죽고 얼어

죽었다는 요언을 대대적으로 퍼뜨리었다. 그러는 한편 실지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겠다고 몽강, 립강, 장백일대에 10여만 대군을 풀어 악착한 《비류식토벌》을 감행하였으며 나중에는 진드기처럼 물고늘어져 《장주작전》을 들이댔다. 조선의 숨결은 폭풍앞에 놓인 초불처럼 위태로왔다.

적들가운데는 이미 조선의 숨통을 다 눌러죽인것처럼 생각하는놈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겨레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 해방과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적들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으며 제놈들만에는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만일에 이 사태를 방임해둔다면 그야말로 조선의 숨결은 초불과 같이 꺼지고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실정을 통찰하시고 조국진군과 백두산동북부에서의 군사정치활동의 목적을 원수들에게 짓눌려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조선혁명의 승리에 대한 희망과 혁명적신념을 주는데 두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땅에는 인민들의 원한이 서려있고 적지 않은 동포들이 조국광복에 대한 신심을 잃고 절망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습니다.

조국의 현실은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으로 불려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1권, 197페이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을 불려일으킴으로써만 온갖 난국을 이겨내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시대가 우리 혁명앞에 제기한 가장 절박한 요구였으며 이 작품에 묘사된 두만강지구에서의 군사정치활동의 중요한 목적이였다.

그러므로 작품의 기본갈등을 이루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일제와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은 단순한 군사작전적문제가 아니라 력사의 진정한 주인인 인민들에게 신념을 주느냐 못주느냐 하는 투쟁, 다시 말하여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똑똑히 자각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해방을 이룩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투쟁에 일떠서도록 깨우쳐주느냐 주지 못하느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두산동북부에서의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기 위한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우리가 조국에 나가서도 느껴지는것이 많았지만 인민들은 원수들에게 짓눌려 힘겹게 살아 갑니다. 시련을 이겨내자면 뽀치고 설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념을 주기 위해 우리 혁명은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민이라도 내버려두면 혁명할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혁명의 승리는 우리 인민의 힘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 인민도 그저 내버려두면 혁명할 생각을 못한다. 그들에게 신념을 주어야 한다. 우리 혁명가들은 단순히 적을 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민에게 신념을 주기 위해서도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한다.

장편소설의 이러한 주제사상적내용은 위대한 주제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심오히 일반화하고있는바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우리 독자들의 심장을 짹 틀어잡고 송고한 사상으로 불태워주는 철학적깊이가 있는것이다.

바로 이 주제사상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편소설은 인민들에게 혁명적신념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력사의 주인으로 키우심으로써 돌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조선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을 보여주는 기본줄거리에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굳은 신념으로 무장된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생활들을 조화롭게 결합시켜나갔다.

무엇보다먼저 소설은 사령관동지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사령관동지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신념을 안겨주시고 혁명의 참된 주인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시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성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제1편에서 무산지구진공전투를 승리로 조직령도하시는 사령관동지의 빛나는 모습을 높이 모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땅에 진군하시여 가장 관심을 돌리신것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였다.

정찰에서 돌아온 장경수와 리성림이 적정에 대한 자료만 보고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본 인민들의 정상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치 않은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을 때 그이께서는 이제부터 중요치 않다고 하는것을 말하라고, 나한테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것이 따로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심려하신것은 무모하게 날뛰는 수십만의 적이 아니였다.

그이께서 심려하신것은 억압과 가난속에 신음하는 인민들의 생활이였고 그들의 가슴속에서 허물어져가는 신념이였다. 그러시길래 신사동으로 직접 진출하시는것을 한사코 막아나서는 대원들에게 지금 내 소망은 고생에 터갈라진 우리 조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손등을 내손으로 한번 쓸어보고 불쌍한 어린것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우리 조선사람들의 앞날이 결코 험하지만 않다는것을 말해주고싶은것뿐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신사동귀틀집에서 벌리시는 모든 정치사업과 대흥단전투의 그 빛나는 승리는 그대로 희망도 신심도 없고 원한속에 시들어가던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굳은 신념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재생의 화불이였다.

소설은 제2편에서도 울기강기습 휘풍동과 회양동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적극 벌리시며 이 일대 인민들속에서 혁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고귀한 형상을 높이 모시고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여기서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올해 여름에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자면 유격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광범한 인민들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기 위한 군사정치공작을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하공작을 강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두만강지구와 국내 넓은 지역에서 사그러져가는 혁명의 불길을 다시 세차게 지펴게 위한 수많은 정치공작조들이 파견된다. 정치성과 진육이가 풍산으로 떠나고 김준삼과 리성림이 태평촌과 금천동일대로, 장경수가 해산일대로 떠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회양동에서 인민들과 함께 큰 운동회를 벌리시여 인민들에게 크나큰 신심을 안겨주시고 혁명조직을 튼튼히 복구하는 한편 곧 백일평일대로 진출하신다.

여기에서 통쾌한 매복전투를 조직하시여 장조부대 200여명을 일격에 소멸해버림으로써 여기에 큰 방어진을 구축하여 울기강일대를 자루목처럼 틀어쥐고 복상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좁은 지역에 봉쇄한 다음 《소멸》하려던 적들의 어리석은 기도를 분쇄해버리신다.

이리하여 두만강지구의 넓은 지역에 다시금 혁명의 서광이 밝게 비끼고 료원의 불길처럼 혁명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소설은 제3편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금천동일대의 광산지구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복구하시고

일제가 공공연한 쓰러짐의 길에 나선 새로운 정세에 맞게 적들에게 보다 큰 결정적타격을 가하기 위한 명쾌한 작전을 전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혁명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데 절박한 일제는 발악적공세를 들이댔다.

유격대공작원의 체포로 청지동일대의 혁명조직은 위협에 처하게 되었으며 대《토벌》전을 기도하는 적들의 흉계에 의하여 사령부자체의 안전에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믿으시고 철수준비를 다 갖춘 사령부의 숙영지를 다시 제자리에 전개하도록 하시며 대담하게 화룡지구에 먼저 진공하여 적의 심장부에 칼을 박고 혁명의 장엄한 대하를 마련하실 웅대한 작전계획을 세우신다.

소설은 청지동전투의 빛나는 승리로 절정을 이루면서 급류가 굽이치는 울기강기슭에 낚시대를 드리우시고 명상에 잠기시어 앉아계시는 사령관동지의 숭엄한 모습을 보여주는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은 세계가 전쟁속에 휘말려들어 피를 흘리며 아우성치고 사람마다 제갈길을 잃고 남의 눈치를 살피며 갈광질광하는 이 동란의 때에 혁명하겠다는 인민들의 소박한 결의 하나를 믿으시고 사나운 력사의 난바다위에 억세계 노를 박아나가시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구의 동서남북이 제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끄떡 동하지 않으시고 낚시대는 흐름에 맡겨두신채 력사의 진정한 요인으로서의 인민의 힘을 키워나가실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고계시였다.》

소설의 끝을 장식하는 이 구절들은 장편소설이 제기한 뜻깊은 문제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의 가슴속에 끊임없이 신념의 불길을 지퍼주시며 력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키워나가심으로써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실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성의 근본비결이 있으며 소설이 영원히 생명력을 잃지 않는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로 될수 있는 첫째 근거가 있다.

다음으로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성장해가는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운명선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신념을 지닌 인민의 불패의 힘에 관한 사상을 더욱 철학적으로 심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민은 혁명의 주인이지만 그들은 저절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력량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깨우쳐주고 일어나 싸우면 자기 손으로 해방을 달성

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줄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있어야 한다. 그들을 강철의 혁명가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키워준 힘은 바로 인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이었다. 이러한 주체의 철학적진리는 한필네와 강정섭, 리성림과 류진옥 등의 운명선을 통하여 감명깊게 밝혀지고 있다.

혁명의 길에서 쓰러진 한태혁의 누이동생 필네를 기어이 찾아오라고 그토록 심려를 기울이시는 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덕성앞에서 유격대원들은 《조선혁명이 사령관동지의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다시는 드물지 않을 확신으로 승화되는것을 스스로 느끼며 크나큰 감동에 사로잡히는것이다.

혁명이란 결국 무엇이겠는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인간을 짓밟는 원썩을 맞받아 벌리는 투쟁이 아니겠는가. 그렇기때문에 또한 혁명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걸음을 떼어주신 조선혁명은 인간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억센 믿음에 기초하여 승승장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또 이 길에서만 더욱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한필네와 성림의 성장은 이 진리를 웅변으로 확증하여준다.

《고난의 행군》시기 청봉밀영에서 반혁명분자 려정호의 강박에 못이겨 혁명의 길에서 일시 곡절을 겪은적이 있었던 리성림은 사령관동지의 손길아래 미더운 혁명가로 정치공작원으로 자라났다.

리성림에게 지하공작임무를 주어 금천동에 내려보내는것이 좋겠다는 안을 잡았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를 믿을만한 담보가 없다고 제기하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호히 말씀하신다.

《그 어떤 검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믿지 못할 구석이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우리 혁명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우리 혁명을 오직 사람을 믿고 시작했기때문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담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담보를 주자는것입니다. 그것은 신임입니다. 리성림동무에게는 든든한 담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성림동무에 대한 우리 혁명의 신임입니다.》

이 감명깊은 말씀속에는 우리 인민들을 혁명의 주인으로 불패의 력량으로 키워주신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었다는것, 우리 인민이 심장속에 간직된 신념이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그 하나의 확신이라는 심오한 사상이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 있다.

그러기에 리성림은 사령부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하여 무서운 고문으로 위협하는 원썩앞에서 자기가

지난날 럽정호한테서 고문받으면서 손바닥에 뚫려졌던 구멍자국을 내보이며 이렇게 자랑차게 말할수 있었다.

《나에게 신념이 두렵지 못할 때 그것은 참을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신념이 없고보니 진실이 없고 이 세상에 고귀한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단 신념이 가슴깊이 자리잡고보면 손바닥에 구멍이 뚫리는것이 아니라 심장에 구멍이 뚫려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스스로 고문실로 앞장서 걸어가는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에 의해 평범하고 소박한 인민들이 어떻게 불굴의 투사로, 혁명의 참된 주인으로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면서 혁명의 강력한 추동력을 이루는 인간의 신념에 관한 철학을 참으로 심오히 천명해주고있다.

장편소설은 주제사상을 철학적으로 심화하고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심오한 사상을 밝혀냄으로써 당시 혁명발전의 본질을 폭넓게 일반화하고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최고의 높이에서 보장할수 있었다.

2

혁명전통주제의 대작창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정치사상생활과 인간생활을 밀접히 결부하여 그림으로써 혁명가들의 정치성과 인간성을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보여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에 만든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을 보면 주로 통량거리면서 전투하는것, 적의 무기를 빼앗는것, 깊은 눈길을 헤치면서 행군하는것과 같은 장면들뿐이고 주인공들의 다양한 생활을 그린것이 적습니다. 문학예술작품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7 권, 166 페이지)

생활을 여러모로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는것은 혁명적대작창작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적문제는 정치사상생활과 인간생활을 밀접히 결부하여 그리는것이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바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위대한 혁명가들의 빛나는 형상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었다.

정치생활과 인간생활을 다같이 묘사하면서 사람들의 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하자면 먼저 정치사상생활과 인간생활의 호상관계, 그것을 밀접히 결부하여 묘사할데 대한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리해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사회적존재로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동안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는 민족과 계급의 리해관계를 놓고 맺어지는 정치적관계와 더불어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인적

적관계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결과 사회생활의 그 어느 분야에나 정치는 깃들게 되며 인간생활은 정치사상생활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존재하게 된다. 정치생활을 떠난 인간생활이란 있을수 없으며 인간생활을 떠난 순수한 정치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들의 정치생활과 인간생활을 밀접히 결부하여 그릴데 대한 주체적문제리론의 본질은 정치생활과 인간생활이 따로 있어서 정치사상생활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거기에 다양한 인간생활을 끼워넣는 식으로 그려나갈데 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생활이자 곧 인간생활이고 인간생활이자 곧 정치생활로 되게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묘사할데 대한 문제로 되는것이다.

전투나 행군을 그리면서도 그속에서 인간들의 생활을 그려야 하며 다양한 인간생활을 그리면서도 그속에서 정치생활을 그려야 한다. 그래야 인물들의 정치성과 인간성이 다같이 풍부하게 살아나면서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보장할수 있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위대한 사상가, 탁월한 작전가로서의 빛나는 모습을 형상함과 동시에 한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적품모도 섬세한 필치로 잘 그려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령관동지의 영상에서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함께 우러러보며 무한한 감동을 받게 되는것이다.

작품의 첫부분에 묘사된 청봉밀영에서의 장면은 그 훌륭한 실례로 된다.

청봉산마루에서 것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사령관동지의 가슴속에는 꿈결에도 못잇을 사연들이 구름처럼 엇갈려 떠오른다.

조국의 품은, 그 품에 이르는 길은 실로 피눈물에 얼룩져있다. 그 길우에 갈대 설령거리는 소사하 뒤산에는 어머니의 봉분이 생겨나고 철주의 순직한 녀은 황막한 광야에 뿌려졌다. 삼촌도 철창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리하여 만경대고향집에는 할아버님, 할머니만이 굵으신 허리로 다가오는 이 봄에 씨불임을 하시며 아득히 이곳-국경의 숲까지 뻗은 우불구불한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실것이다. 언제면 우리 중손이가 아버지, 어머니와 온 조선의 한을 풀고 돌아올것인가고... 앙상하신 그 어깨우에 모든 시련과 슬픔의 짐을 감당하시면서 터갈라진 가슴들에 무엇이 남아있을것인가, 봄을 맞이하여 조국산천은 이렇게 새움이 돋고 향기로운 꽃내가 떠들며 신록으로 단장해가는데 할아버님, 할머니께서 힘겹게 밀고가시는 가대기날아래에는 남리의 척박한 먼지발이 매운 재가 되며 그 슬픔과 분노에 터갈린 가슴들에 또다시 뿌려질것이 아닌가.

사령관동지께서는 으스스하게 주먹을 틀어쥐시었다...

조국땅에 첫발을 들여놓으신 사령관동지의 뜨거운 내면세계에 대한 이 감명깊은 묘사는 자신의 일가분들에 대한 그이의 애뜻한 정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시키면서 위대한 인간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위대한 애국자의 숭엄한 사상감정으로 안겨오게 한다.

소설은 일제의 100만대군을 한손에 거머쥐시고 취락파락하시는 사령관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힘있는 필치로 보여주면서도 언제나 그이의 가슴속에 굽이치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인민의 아들로서의 검소하시고 소탈하신 풍모를 진실하게 보여 주었다.

신사동 강로인의 집에 찾아오시는 걸음으로 처저 내린 추녀를 올라다보신 장군님께서 실그러진 구새통을 바로세우시며 《굴뚝이 이렇게 넘어져서야 불이 들겠습니까. 이런 귀틀집이란 걸바람이 심한데 구들이라도 뜨뜻해야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한 민족의 수령이라기보다 한 가정의 친아버이를 뵈는듯한 친근한 느낌을 받게 된다.

회양동에서 마을사람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벌였을 때 저마다 자기 편이 이기게 하려고 어린애같이기가 나서 돌아가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흐뭇이웃으시는 모습이라든가, 중병에 걸린 한 너대원을 깊은 숲속에 남겨두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안으시고 손수 전령병들을 데리시고 초막을 지으시는 모습, 그리고 올기강기슭 백일평에서 써늘한 밤이슬을 맞으며 피곤히 잠든 대원들을 돌아보실 때 밤이슬을 가리울 한장의 모포가 없어서 골고루 덮어주지 못하시는것을 가슴아파하시는 모습들은 혁명전사들과 우리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 자애롭게 보살피주시는 그이의 숭고한 덕성과 더불어 더없이 다정한 인간적풍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가운데서도 올기강기슭에서의 낚시질장면은 가장 빛나는 화폭의 하나이다. 나 어린 전령병들인 재영이와 상철이가 어찌나 소란을 피우는지 고기가 잘 물리지 않자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시고 미끼를 바꾸어보시는 사령관동지, 큰고기가 달린 총격이 팔굽을 툭 치자 금시 긴장되시여 실수없이 기슭으로 낚아올리시느라고 원심을 쓰시는 사령관동지, 그이의 낚시에 걸린 큰고기를 제가 먼저 건져올리겠다고 앞을 다투어 물에 뛰어들었다가는 선손을 빼앗긴 분함때문에 토라진 꼬마들을 바라보시며 곱절 웃으시는 사령관동지...

밀림속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인간생활의 화폭은 사령관동지의 고결하신 성품을 인상깊게 아로새기고있다.

사령관동지의 빛나는 형상에 바쳐진 무수한 인간생활의 화폭들은 단순한 인간생활로만 그려진것이 아니다.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사령관 동지께서는 왜놈의 행패에 시달린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강로인을 손수 부축하여 일으켜세워주시고 원수놈들이 살판치는 무시무시한 한복판에서 대낮에 큰 운동회를 조직하시며 적들의 공격을 예견하여 바싹 긴장된 부하들의 마음을 농쳐주시기 위하여 태연자약하게 낚시대를 드시고 강기슭 풀밭에 앉으시여 명상을 즐기시는 이 모든것이 곧 정치사업이시고 혁명투쟁이시였다. 혁명은 사람이 하는것이고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본성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소중히 꽃피워주는것이 다름아닌 혁명사업으로 된다는 사령관동지의 신념에 관한 투철한 파악은 소설의 창작가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 바쳐진 인간생활의 모든 화폭들을 곧 숭고한 정치사상생활의 화폭으로 묘사하여 보여줄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사령관동지의 불멸의 형상만이 아니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존귀하신 형상을 비롯하여 안충렬, 리철범, 배정식, 박인섭, 김준삼, 장경수 등 혁명가들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정치사상생활을 인간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그럴데 대한 창작적원칙을 지켜나가고있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형상이다.

소설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사령관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사령관동지를 끝없이 우러러 흠모하고 그이의 안녕을 목숨으로 지키며 최대의 정성을 다하여 받들어모시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생활의 신조였고 최상의 보람과 행복이였다. 소설은 주옥같이 다듬어진 묘사를 통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정치사상적풍모의 최고절정을 이루는 김정숙동지의 아름다운 충성의 한 마음을 감명깊게 수놓고있다.

그런데 조국의 삼지연못가에서 천천히 거닐으시고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끝없이 숭엄한 감동에 휩싸이시는 김정숙동지의 형상에 대한 묘사가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구월십 장군님을 기다리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이께 아름다운 꽃다발을 엮어올리고싶으시여 탐스럽게 피어난 가지들을 골라 진달래꽃을 꺾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사령관동지께 삼가 올린 붉고붉은 조국의 진달래! 거기에는 어버이장군님을 민족

의 태양으로 모시고 영원히 충성다하러는 그이의 불타는 결의와 간절한 념원이 어려있었다.

그러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의 식사를 더 잘 지어드리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시며 사령관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시기 위하여 천고의 밀림속에 자진하여 떨어져 병에 앓고있는 한 녀대원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것이다.

또한 김정숙동지께서 사령부의 주전자가 투박하다고 내내 걱정하시다가 지방공작을 나가는 동무들에게 부탁하여 품위있게 세공한 좋은 양은주전자와 잔을 구해오시는 장면도 감동적이다. 사령관동지께서 떠드리는 물이라면 첫새벽에 제일 선참으로, 또 가장 정갈한 썸물을 떠올리고싶고 사령관동지의 손길이 닿으실 물건이라면 하나의 주전자라도 한점의 티가 없기를 바라시는 그 순결한 마음은 김정숙동지께서만이 지니실수 있었던 고귀한 충성심에서 우려나온것이였다.

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적동지애도 감명깊게 묘사하여 보여주고있다.

조국땅에 들어선 첫날 조국의 아름다리나무를 부여안으시고 평그르르 땀들기도 하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소리없이 기쁨의 눈물을 머금으시는 그 모습과 함께 조국을 리별하실 때는 후미진 곳에 홀로 숨으시여 풀밭을 어루머듬으시며 작별의 눈물을 떨구시는 모습은 조국에 대한 혁명적사랑의 아름다운 화폭이 되어 우리 가슴에 안기여온다.

《얼마나 그리워하던 땅일가, 우리 조국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도 우리는 이 땅에 안기니 이렇게... 이렇게 눈물이 나도록 기쁘게 아니겠어.》

김정숙동지께서는 동지들을 그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시였는바 천고의 밀림속 모진 태풍속에서 천신만고 무릅쓰시고 혁명동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눈물겨운 모습과 애인을 잃고 가슴에 상처를 입은 금숙이를 친언니의 심정으로 다짐하게 보살피시는 모습 등은 그이께서 지니신 고결한 성품을 더욱 빛내여준다.

소설에서는 김정숙동지의 혁명가적품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정치사상생활의 화폭들을 철저하게 그이께서 지니신 아름다운 인간미를 밝혀주는 인간생활로 전환시켜 보여주었다.

혁명가의 정치성과 인간성은 언제나 함께 표현된다. 정치성은 사회적범위로 확대된 인간성이며 그의 최고표현이다. 인간성은 혁명가들이 지닌 정치성의 기초로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 그렇듯 열렬한 혁명가로, 투사로 자라날수 있었는가를 밝혀준다.

조국땅에 들어선 크나큰 감격속에서 김정숙동지의 마음속에 찾아든것은 썸썸한 환희만이 아니였다. 고향 오산덕마루에 백살구꽃이 활짝 피여 그 꽃속에서 어머니며 오빠며 동생이 이제야 왔는가고 손저어 부를것만 같으시였다. 《어머니, 전 장군님을 모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싶어하던 조국에 왔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머니가 누워계시는 아득한 부암의 하늘가를 향하여 마음속으로 속삭이시였다. 눈에는 함빡 눈물이 어리었고 떨리는 입귀에는 웃음이 피여있었다. 평생소원이 이룩된듯한 벅찬 감정이였다. 동시에 가슴에이는듯한 충격이기도 하였다.

그렇다. 그 모진 시련속에서도 드물지 않는 무쇠같은 혁명가들의 가슴속에도 애달픈 추억은 있고 가슴에이는 눈물도 있다. 그들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애인이 있으며 남모르는 꿈도, 소원도 있으며 버리기 아쉬운 소중한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뜨거운 인간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었기에 혁명에 바친 그들의 희생이 그렇듯 눈물겨웁고 값높은것이 아니겠는가!

삼지연못가에서 해방된 조국의 래일을 그리시며 그날을 생각하실 때마다 가슴아픈 희생도, 겪은 고생도 하나 아깝지 않고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문득 달려오는 발자국소리에 놀라 눈길을 드시는 순간 나팔을 메고 달려오는 신호수 상철이를 그만 기송이로 헛보시고 심장이 뚝 멎는듯한 충격을 받으시기도 하시는것이다.

장편소설은 이렇듯 철저히 정치사상생활과 인간생활을 결합시켜 혁명가의 정치성과 인간성을 다 같이 풍부히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불멸의 형상을 창조해낼수 있었다.

×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주체사상의 심오한 철학성과 성격형상의 진실성으로 하여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사상에술적정지를 개척한 기념비적대작으로 될수 있었다.

소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펼쳐나신 우리 인민들을 영원한 충성의 한길로 고무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길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줄것이다.

위대한 사랑이 안겨준 혁명가의 지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은 어떤 것이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를 크나큰 감흥속에 읽었습니다.

소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니신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에게 백절불굴의 혁명적지조를 주었으며 것처럼 고귀한 혁명적지조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낳는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처럼 혁명투쟁에서 근본문제에 되는 수령과 혁명전사들의 혈연적연계를 심오하고 풍부한 생활속에서 형상한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인민대중속에서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 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것입니다.

작품의 중심에는 압담한 일제식민지통치하에 신음하는 조선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과 겨레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투쟁의 길을 헤쳐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그것은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전략과 전술의 원천이며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의 량식이며 억눌리고 짓밟힌 인민대중을 새로운 삶과 투쟁으로 불러주는 화불이라는것을 소설에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해명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에 들어서시자 장경수와 금숙이 그리고 채영이를 풍산쪽으로 공작을 내보내시면서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동무들이 가게 될 그 부락에서 갑산쪽으로 넘어오면 그리 멀지 않은곳에 신양광산이라는 광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그런 광산이 있거나 한지... 그게 바로 한태혁명투가 4년전에 누이동생을 두고 왔다는 광산입니다.》 《가망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찾아보시오. 한필네라고... 그때 열일곱살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스물이 넘은 다 자란 처녀일것입니다. 가서 찾아보시오. 혹시 찾거든... 데려오시오.》

이 말씀앞에서 장경수도 희생된 태혁의 애인인 금숙이도 뜨거운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희생된 전사들을 제일 못잊어하시는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전사들의 가슴에 서린 그들을 가시여주시려고 조국진군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해가시는 거창한 투쟁속에서도 이처럼 전사들의 사사로운 념원까지 헤아리시어 사업을 조직하시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금숙이는 자기가 바친 희생에 비하여 그이의 사랑은 너무도 크다는것을 눈물속에서 깨달으며 그 사랑을 충성의 일념으로 불태우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들에 대한 사랑은 가장 열렬하고 가장 웅심깊은 배려로서만이 아니라 생사를 같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감정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뜨거운 인정을 지니시고 언제나 혁명의 길에서 용감히 싸우다 먼저 간 혁명동지들을 그리워하시고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키워주십니다.

이러한 생활적화목을 통하여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인류의 진보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생명은 영원불멸하다는 심원한 진리를 감명깊게 밝히고있습니다.

또한 작품에서는 수령일만이 지닌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항일혁명대오라는 하나의 큰 가정의 아버지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친어버이이신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만이 지닐수 있는 섬세하고도 진실한 인간애의 감정을 심오히 밝힘으로써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남겨 하였습니다.

필네를 찾아왔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너무도 기쁘고 반가우시며 걸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필네가 오빠의 희생을 아시고 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네가 나더러 오빠를 내놓으라면 내가 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짧은 한마디의 물음속에는 참으로 혁명전사들에 대한 한량없이 숭고한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진실한 인간적품모가 응결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러한 수령님이시기에 울음을 터치며 몸부림치는 필네와 금숙이 앞에서 실로 백만대군의 원수일제와 맞서싸우시는 시련보다 더 아름답찬 정신적부담을 느끼시는것입니다.

전사들의 울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입니까!

《실컷 울라구! 앞으로라도 울고싶을 때는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마음껏 울라구. 그러나 다른데 가서 울지는 마오. 죽을 때조차 웃으며 숨을 거둔 혁

명가 한태혁의 누이동생은 사람들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돼.》

고결하고 진실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참다운 사랑은 혁명전사들에게 백절불굴의 혁명적지조-위대한 수령님을 끝까지 받들어모시려는 혁명정신으로 심어진다것을 필네의 뜨거운 맹세를 통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저는 오빠대신에 장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저는 울지 않습니다.》

고정격식화된 정치적구호와 같은 맹세나 결의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혁명전사들의 보람찬 생활체험을 통하여 온몸에 피처럼 배인 이러한 맹세는 절대로 흔들릴수 없다는것을 소설에서는 깊이 있게 해명하고있습니다.

한때 변절자 럽가놈의 위협과 공갈때문에 동지들을 배반했던 성림은 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뜨겁게 체험하였기에 원썩음들에게 체포되어 팔다리가 다 부서지도록 고문을 받으면서도 혁명가의 지조를 굽히지 않는것입니다.

《나에게 신념이 두렵지 못할 때 그것은 참을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신념이 없고보니 진실이 없고 이 세상에 고귀한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단 신념이 가슴깊이 자리잡고보면 손바닥에 구멍이 뚫리는것이 아니라 심장에 구멍이 뚫려도 두렵지를 않다.》

참으로 혁명가에게 있어서 필승의 신념에 기초한 불굴의 지조는 그의 생명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평범한 한생을 몇백번 고쳐살아도 지닐수 없는 혁명의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해야 할 공산주의자의 정치적생명이기때문입니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이처럼 1930년대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었던 혁명적지조가 무엇이였는가를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밝혀내고있을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조를 지닌 항일혁명투사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에 대하여서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서계십니다.

아직도 겨울의 찬기운이 채 가시여지지 않은 이른봄에 사령관동지의 식사를 위하여 봄향기가 풍기는 청채를 뜯어 배낭에 간수해가지고 다니시는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은 혁명전사들이 지녀야 할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이 어떤것인가에 대한 생활적인 대답으로 되는것입니다.

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어모시였을뿐만 아니라 전사들에 대한 사령관동지의 사랑을 그대로 한몸에 체현하시고 동지들을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다 바쳐

가십니다.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동지들을 위해 끓는 강냉이를 그대로 배낭에 넣어가지고 행군하기도 하시고 사령관동지를 따라나선 인민들이 한명이라도 상할세라 위험을 한몸에 안으시고 적들을 유인하시기도 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희생정신은 그대로 대원들의 량심이며 거울이었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는 후남아주머니를 외딴 밀림속에 남기며 그의 치료를 두고 걱정하시는 사령관동지께서 사께서는 이렇게 말씀올리십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대로 후남아주머니의 몸을 꼭 추세우겠습니다.》

밀림에 남은 녀사께서는 후남아주머니의 치료를 위하여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의 고비를 헤쳐가십니다.

자신께서도 굶고 허기진 몸이지만 동지를 위해 먹을것을 마련하고 물을 찾아 헤매시였으며 폭풍으로부터 초막을 지키기 위하여 아름답리 나무를 찍으십니다.

소설에서는 이런 역경속에 서계신 녀사의 심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게 힘은 얼마든지 있고 전우를 위한 정성이라면 얼마든지 바칠수 있을것 같으시었다.》

이처럼 소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닌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은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열정, 혁명동지와 인민대중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존경,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을 애써 풀어나가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데서 행복과 영예를 찾는 가장 아름다운 혁명적 생활관과 인생관의 발현이라는것을 생동한 생활세부와 섬세하고 진지한 성격탐구로 밝혀내고있습니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믿음, 그이를 모시고 싸우는 혁명투사들의 불굴의 지조와 공산주의적품모가 어떤것인가를 깊이있게 그렸습니다.

때문에 소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인민들의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투쟁의 무기로 복무하고있는것입니다.

저는 이 혁명소설을 읽으면서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오늘의 행복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작가양성반 강선규

맑은 시내

전흥식

림산마을에 밤이 오자 수많은 창문들이 눈을 떴다. 유난히 반짝이는 그것들을 별무리로 착각하고 내려온듯한 초여름의 둥근달이 밝게 웃으며 마을 상공에 낮게 떠있었다.

자그마한 들가방을 손에다 들고 림철길을 따라 부지런히 산골이를 돌아가던 처녀는 마침내 정들어 그립던 사람들의 눈빛같은 그 불빛들을 보자 긴숨을 내쉬며 잠시 멈춰섰다. 림철침목을 골라디디며 인적 그친 15리의 밤길을 재촉해오는동안 걸음걸음 따라서던 무서움과 초조감은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다. 그저 모든것이 홀룡하고 모든것이 마음에 들었다.

밤바람은 부드럽다. 시내물소리는 들을수록 정다롭다. 달이 웃는 하늘에서 엷은 구름이 조용히 흘러가고 검푸른 수림은 서서히 걷히는 안개속에서 놀랄만치 섬세해진 자태를 조심스레 드러낸다.

갑자기 시내가의 숲속에서 이름모를 밤새 한마리가 크게 울어댄다. 그것은 마치 《달이 밝아 좋아, 달이 밝아 좋아.》라고 하는듯만싶었다.

《아이, 어찌문! …》

부지중 처녀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보도록새 황홀한 정경이어서 이 순간 처녀는 자기 자신조차 더없이 아름다와지는것 같았다. 여기에서 나서자랐으며 또 여기에서 2년째나 교편을 잡고 있는 그였지만 지금처럼 고향마을의 달밤에 매혹되어 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모름지기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 수고로운 밤길을 걷고있다는 긍지때문이라.

교원이면 누구나 다 밤길을 걷게 마련이다. 그러나 마을의 너선생 백순금의 이 밤길은 학생들의 개별지도를 위해서 걷는것도 아니였고 매일수업의 교편물을 구하려고 떠난것도 아니였다. 이미 치르어버린 생물수업의 부족점을 보충하려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때문에 림산사업소 양어장으로 다녀오는 길이다. 이제 맞춤형 기회를 타서 학생들에게 이 근방 물고기들의 분포상태며 그 생태적특성을 자세히 이야기해줄 작정이다. 그것이 비록 때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백순금이로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였다. 마음속에 비낀 그늘을 지워버린다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교장선생님이 아시면 뭐라실가?)

백순금은 다시금 발걸음을 떼며 생각해보았다. 그는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한 정지훈교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안경너머로 눈을 끔찍해

이며 고개를 끄덕이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래, 분명 그러실거야. 하지만 아깐 정말 너무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의 입가에는 금시 미소가 사라졌다.

저녁무렵, 《물고기의 생활》에 대한 생물수업을 참관하고난 정지훈교장은 그한테 이렇게 말했었다.

《선생이 우리교장에 없는 붕어를 산채로 구해다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해부까지 해보인것은 물론 잘한 일ियो. 그러나…》

정지훈은 어쩐지 말을 떼기 힘겨운듯 담배를 꺼내어 붙여무는데 그 몸가짐 또한 부자연스러워보였다. 녀교원의 자존심을 존중해주려고 그러는듯 더욱 조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교수경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해서 지금까지도 그 방법을 그대로 되풀이하는건 마음에 안드오. 모든것이 새로와지는데 교수방법도 끊임없이 새로와져야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교원의 발자국이란 창조 없이는 찍혀지지 말아야 하는건데… 어떻게? 자신한테다 좀더 높은 요구를 제기할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지훈은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도 잘 아는 이 근방의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었다더라면 아주 좋았을것이라고 했었다.

그때 백순금은 모닥불을 끼었는것 같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자기 수업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컸던 그여서 창피스럽기도 했지만 정지훈의 평가가 억울하게 느껴졌고 살아있는 붕어를 구해오느라 그토록 애쓴 자기의 수고를 몰라주는것이 그지없이 야속스러웠다. 더군다나 자기한테는 학교장이라기보다 늘 그전날의 담임교원으로 되여주는 정지훈이 아닌가.

그래서 백순금은 교장실을 나서기 바쁘게 무작정 때아닌 먼길을 떠났었다. 자기의 눈으로가 아닌 남한테서 발견당한 흠집이어서 그대로는 묵새겨버릴수 없었다. 손상당한 자존심이 불려온 일종의 반발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서는 이상하게도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올랐던 그 분하고 억울하고 야속스러운 생각은 가뭇없이 녹아버리고말았다.

(이것두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거야!)

그가 이렇게 자신을 위안하며 더욱 탄력있게 걸음을 내짚노라니 문득 어디선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길아래 버들숲이 푸르게 덮인

시내가에서 분명 아이들이 웃고있었다. 여럿의 웃음속에서 너무도 귀에 익은 목소리까지 들려온다.

《저건 봉국이구나!》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알수 없었으나 백순금은 우선 반가왔다. 교원의 마음이란 역시 류다른것이여서 잠시라도 학교를 떠나기만 하면 못내 아이들이 그리워지는 법이다.

그러나 림철길을 벗어나서 얼기설기 뒤엉킨 버들가지들을 밀어내며 시내가로 내려온 그는 뜻밖의 광경에 아연해서 그 자리에 못박혀버렸다.

앞에는 달빛을 안은 시내물이 고기비늘처럼 번뜩이고 그속에서 바지를 무릎우까지 걷어올린 대여섯명의 아이들이 웃으며 소리치며 마구 내달아 다니고있었다. 죄꼬만 발들이 물을 걷어찰 때마다 하얀 물구슬이 튀겨오르며 진주알처럼 반짝인다. 작살과 장대를 휘두르며 본격적인 반두질을 하고있는것이다.

《저기다. 저쪽으로 간다!》

《앞을 막아라, 앞을...》

《걸렸다! 이크! ...》

아직은 물도 차가운 산촌의 초여름밤이었으나 추운줄도 모르고 젖는줄도 모르는 아이들은 이 놀음이야말로 자기들의 생활의 전부이며 기쁨인것처럼만 생각하는것 같았다. 또다시 물고기를 쫓으며 한쪽으로 점점 몰려들던 아이들속에서 런닝그만 입은 애가 새매처럼 반두우로 몸을 던졌다. 그바람에 반두채를 잡은 아이가 갑자기 실리는 무게를 감당치 못하고 비칠거리면서 《런닝그》를 무릎도 못치는 시내물속에 풍당 빠뜨려놓았다.

《아니 저걸! ...》

백순금이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소리를 삼키며 황급히 그쪽으로 발을 떼는데 물속에서 불쑥 머리가 솟아났다.

《어푸! 어- 밀지 말아라. 고기를...》

《비켜라! 작살로 찌르자!》

《큰고기다, 붙잡아라!》

물에 자빠진 《런닝그》는 한팔을 내저으며 밀지 말라고 소리쳤으나 아이들은 저저마끔 자기가 먼저 물고기를 잡겠노라고 오구작작 떠들어댔다.

떠드는것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백순금이 서있는 시내가의 웃쪽 수풀뒤에서도 한 소년의 야무진 소리가 그친줄 몰랐다.

《야하! 밀지를 말아라! 밀지 마. 그러다가는 다 잡은걸 놓치겠다. 창길아, 명남아! 자꾸 보채겠니?...》

봉국이였다. 학급에서 키가 제일 작았으나 남달리 역빠르고 오달진 봉국이는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보다 더 속이 달아서 야단을 쳤다. 그의 곁에서는 파란 실연기가 하늘을 향해 곧추 오르고있었다. 몸

을 쪼이고 옷을 말릴 모닥불을 지필 분공이 봉국이한테 차례진 모양이였다.

《뚝중개다. 피- 뚝중개...》

《뭘 뚝중개?! ...》

물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에 우뚝 서버린 아이들은 한동안 어이없이 서로 마주 쳐다만보았다. 지기들이 제일 《하급어족》으로 치는 뚝중개라는 소리에 딱심이 풀린듯싶었다.

그러는데 《런닝그》가 물속에서 일어섰다. 온몸으로는 구슬같은 물이 팔팔 흘러내렸으나 그는 손에 움켜진 물고기를 높이 쳐들어흔들며 환희에 차서 웨쳤다.

《봐라, 큰고기다. 아주 신기한...》

그 소리에 아이들은 일시에 와- 함성을 지르며 《런닝그》를 뒤쫓았다. 물에서는 또다시 유쾌한 《판무》가 벌어졌다. 물소리,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달도 웃고 물도 웃고 마을의 불빛들도 웃는것 같았다. 백순금이라도 이 순간에는 어릴적 오빠들을 멋없이 따라다니던 철부지소녀로 돼버린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내 웃음을 거두었다. 웃을수가 없었다. 아무리 아이들과 함께 이 밤을 즐기고싶었으나 신통히도 그가 맡은 학생들이 저런일과를 어기고있다는 사실을 무심히 대할수가 없었다. 지금은 봉국이네 집에서 학습반을 운영할 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판장난을 하다니? 그것도 자기가 생물수업과 과외교양시간에 그처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물고기를 마구 잡고있는것이다.

《참, 애들두, 그만치 당부를 했는데두...》

백순금은 믿음을 저버린 아이들을 보노라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저희들을 위해 수없는 밤길을 걷고있는 선생을 언제 가면 알아주려싶었다.

사람들이 알면 더구나 교장선생님이 알면 뭐라고 하겠는가. 생물교원의 학급학생들이 저런것을 한다는것이 그들한테까지 알려진다면 그야말로 난처해질 백순금이였다. 참으로 교원이란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는 사람인것 같았다.

백순금은 물속에서 그냥 뛰노는 아이들을 원망하며 모닥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잠시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때일수록 교원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침착해야 했다. 서투른 책망으로 하여 오히려 자존심을 손상당하는 일이 있으며 웅당한 꾸지람도 때에 따라 피해주는 거기서 학생들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클 때도 있다는것을 백순금은 잘 알고있었다. 어쨌든 이들을 최소리나는 집단으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녀선생 백순금이 맡은 학생들이 다르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자면 걸음걸음 신중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 생각은 단지 한순간뿐이었다. 모닥불이 타는 수풀너머에서 아이들을 부르는듯한 웬 사람의 목소리를 귀결에 들었던것이다. 누구인지 이철부지들의 장난을 말리자고 그러는것 같았다. 그러자 아이들은 아쉬움을 금치못해하듯 뜨직한 걸음으로 물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시내가에는 갑자기 정적이 깃들었다. 밤새들의 울음소리도 별로 조심스러워진듯했다. 오직 줄기치게 흐르는 시내물만이 무어라고 더 높이 주절대는데 아이들을 타이르는듯한 그 사람의 말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백순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 역시 바라지 않던 일이었다. 교원에게 있어서 자기가 아닌 판사람의 책망을 듣는 학생을 보는 순간처럼 분하고 피로운 일은 없는것이다. 백순금은 고개를 떨구고 서서 꾸중을 듣고있을 그 학생들한테서 어딘가 땀뿜지 못한 자신을 보는것 같아서 그 자리에 그냥 있을수 없었다.

(끝내 말썹이 생기겠구나!)

백순금은 어지간히 기분이 상해서 그곳을 피하여 숲덤불을 빠져나왔으나 오히려 모닥불가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무슨 이야기엔지 잦아드는듯하다가는 다시 커지고 그런가 하면 탄성으로 바뀌여지기도 했다.

백순금은 정말로 성이 났다. 그 사람이 아이들을 꾸짖으려 나온것이 아니며 또 이 밤고기잡이도 아이들끼리만 하는 일도 아닌것 같은 예감이 얼핏 들었기때문이다.

(무슨 사람이 분별을 잃고 저런담? 저런 행동이 학생교양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구...)

그렇다고 아이들앞에서 함부로 핀잔을 줄수도없는 일인줄을 모르지 않았으나 백순금은 벌써 모닥불을 향해 걸어가고있었다. 그대로는 떠날수 없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자제력을 눌러버린 까닭이다. 모닥불이 가까와지는 그만큼 목소리도 분명해 졌다. 백순금은 어찌 그런지 자꾸만 조심스러워지는 자신을 다잡으며 완강히 수풀속을 헤쳐나갔다.

《아니?! ...》

마침내 모닥불가로 나서던 그는 일가에 손을 가져가며 무춤 서버렸다. 바람결에 가볍게 설레이는 무수한 잎사귀들사이로 모닥불을 가운데 놓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는 정지훈의 모습을 발견한것이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아서 백순금은 한동안 어리둥절해졌다.

아이들은 밤고기를 잡고 정지훈은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나 다음 순간부터 백순금은 호기심 많은 소녀처럼 돌바위위에 걸터앉은 정지훈의 이야기에 솔깃이 끌려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모닥불가로 한발두발 다가갔다.

정지훈의 말소리는 정확히 들려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향마을의 땅과 수림과 저 시내물속에 얼마나 귀중한것들이 간직되어있는지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들에 만족할수는 없지, 없구 말구.

좀 생각해보아라. 이 고향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놓은 그때를말이다. 아침해 솟는 저 언덕에서 맑은 피리소리가 울리면 노루, 사슴이 구름처럼 떼지어흐르고 또 이 시내가로 나오면 사람을 보고 반갑게 모여들 물고기떼를말이다. 그뿐이겠느냐? 어딜 가나 진귀한 약초가 무성해지고 아름다운 새들이 앞을 다투어 날아들 우리의 수림을...》

정지훈은 신기한 옛이야기처럼 고향마을의 앞날을 펼쳐놓았다. 조금도 과장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이야기에 아이들은 숨죽여 귀기울이고있었다.

시내물은 정가롭게 돌돌거린다. 실버들은 기분 좋게 굴실거린다. 밤새들은 더 명랑하게 지저귓다. 바로 그 이야기로 하여 고향땅의 모든것이 더 귀중해지고 빛나고 의의깊어지는것 같아서 백순금의 가슴은 몹시 뛰놀았다.

《그런데 누가 대답해보렴. 그렇게 가꾸자면 어떻게 해야 할것 같으냐?》

정지훈이 이렇게 묻자 아이들은 서로서로 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물고기를 마구 잡지 말아야 합니다.》

《땀이랑 노루랑 잘 보호해야 합니다.》

《약초밭도 만들고 나무모도 심고...》

정지훈은 만족한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였다.

《웁다, 웁아! 그렇게 해야 한다. 잘 가꿔야 한다. 그걸 위해 너희 부모들이 땀흘려 일하는거구 또 너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국의 앞날을 가꿀 힘과 지혜를 기르는거란다. 그런데 이렇게 한창 알쓸이를 하는 때에 마구 반두질을 해서야 되겠느냐? 더구나 바로 오늘 생물시간에 물고기의 생활에 대해서 배운 너희들이니만치 더 잘 자래울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 못쓴다. 잡겠으면 이런걸 잡아야 한다.》

정지훈은 어느 아이한테 허리를 굽히더니 버들가지에 쥔 물고기를 쳐들었다. 한뼘은 잘될 물고기 한마리가 아직도 살아서 꾸불뻑거리고있었다.

《너희들이 처음 봤다는 이 쏘가리는 물속의 승냥이나 다름없단다. 이놈은 자기의 일생동안에 무려 두툼이나 되는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맹어란다. 요 한마리가 두툼을 말이다. 그런데 압록강이나 허천강 같은 큰강에서나 볼수 있는 이놈이 여기까지 기여들어올줄은 나도 몰랐구나. 이런놈을 가만 놔두어서야 안되지.》

정지훈은 아이들에게 주먹을 흔들어보이며 이야기를 끝고나갔다.

(이것은 그대로 수업이다. 산 수업이다!)

백순금은 이 놀라운 사실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별치 않은 물고기잡이를 두고서도 아이들의 가슴속에 조국의 귀중함과 그 미래를 심어주려고 저같이 고심하는 정지훈의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자기라면 분명 아이들에게 왜 학습반규를 어기고 이런짓을 하느냐며 안타까운 하소연이나 했을것이였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다시 눈을 피해 고기잡으러 시내가로 나올것이며 도대체 선생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것이였다. 그것이 가져다줄 후과는 또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하니 몸서리가 났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수업에 대한 정지훈의 충고야말로 더없이 웅심깊은 뜻을 담고있었다는 것을 석연하게 깨달을수 있었다. 단순한 교재내용의 전달, 유익한 동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강조, 그러고도 무슨 일이나 빈틈없는 교원으로 인정을 받자고만 급급해하던 일과 모든 약점들을 정지훈은 한 수업을 통해서도 속속들이 꿰뚫어보았을것이며 그래서 것처럼 아픈 말도 했을것이다. 또 그 약점들을 저렇듯 남모르는 수고와 노력으로 성심껏 고쳐주고있는것이다.

(그런것도 모르고...)

아프게 입술을 깨물던 백순금은 정지훈의 이런 수고가 비단 오늘날뿐이라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30년이라는 교원생활의 경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언제나와 같이 학생들을 위해 저렇듯 소문없이 자기를 바쳐가는 정지훈이 아닌가싶었다.

불현듯 백순금의 눈앞에는 잊을수 없는 7~8년 전 그날의 일이 방불히 떠올랐다.

...그날은 날씨도 무척 좋았다. 사범대학 입학통지서를 받은 중발머리의 백순금을 바래주려고 담임선생인 정지훈이 교문밖까지 따라나왔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침울해보였다.

《선생님, 어디 아프십니까?》

《아픈가? 아니 ...》

그들은 묵묵히 걷기만 했다. 교문밖에는 시내물이 흐르고 그우에 자그마한 나무다리가 있었다.

다리에 들었던 정지훈은 잠시 란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어떠냐? 저 물을 보니...》

《배를 탄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고 빠른 배를 탈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우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것만 같습니다. 저 학교두, 마을두, 산두 다 같이 ...》

백순금은 담임선생의 마음이 무겁다는걸 눈치채고는 애써 명랑한 빛을 보이려고 했다.

《그래! 모두 끝없이 가는것 같구나. 그담엔 또 뭘 봤니?》

《그담엔... 하얀 돌, 노란 자갈 그리구... 저것 보십시오. 저쪽 금모래우에 바늘만한 고기새끼들이 ...》

《나두 봤다. 얼마나 맑은 물이냐? 죄다 들여다 보이는구나.》

참 좋은 물이다. 맑구 줄기차구 또 지칠줄도 모르구...》

《...?!》

백순금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를 뵈히 쳐다만 보았다.

이윽고 정지훈은 란간에서 물러나더니 다시 걸음을 떼었다.

《너는 오늘 최우등졸업생으로 대학입학통지서를 받아가지구 학교를 떠나간다.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애들두 있다. 창남이... 그 애가 어깨를 떨구고 교문을 나가는걸 보니 정말 마음이 좋지 못하더라. 난 작별하러 온 그 애의 눈동자를 마주볼수 없었다.》

정지훈은 긴숨을 내쉬었다.

그때야 백순금은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선생님, 저두 늘 최우등생이던 창남이가 우등으로 졸업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건 창남이가 실수를 해서 그런거지 어디 선생님탓입니까? 선생님이 우리의 공부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쓰셨다구.》

선생님, 창남이두 이번에 교환을 찾구 결심도 세롭게 가졌습니다. 래년엔 통신공부도 시작하구, 우리들도 힘껏 도와주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그것때문에 너무 근심 마십시오.》

《허허, 나두 창남이한테 다 들었다.》

그러나 너는 이걸 알아야 한다. 만족을 모르는 거기서만 교원의 량심이 빛나는 법이다. 그런데 난 <최우등학급>을 만들어왔다는 그 <공적>에 도취한 나머지 창남이를 위해 자기를 성심껏 바칠 생각을 못하였다. 그게 가슴아프다.

교원이란 어떤 사람이겠니? 네가 바로 교원이 되자고 사범대학으로 가기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거다. 교원이란 일생을 바쳐 조국의 앞날을 가꾸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아이들의 래일을 위해서 자신의 오늘을 아낌없이 바쳐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교원의 마음속엔 한순간도 때가 끼여서는 안되며 언제나 맑고 깨끗해야 하는것이다. 저 시내물처럼말이다. 그러지 못한 교원은 교단에 나설 권리가 없다. 이걸 명심하구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해라.》

정지훈은 제자의 어깨를 힘있게 두드려주고는 결연히 교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의 인상이 얼마나 강했던지 백순금은 꿈속에서도 자주 다리우에서 시내물을 내려다보던 정지훈의 모습을 보았으며 마음속에 때가 낀 교원한테는 교단에 나설 권리조차 없었던 그 말을 현실에서처럼 듣곤했었다.

정지훈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심없이 후대 앞에 자기를 바치고있었다. 저앞에 흐르는 시내물처럼 그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또 그의 량심이기도 했다. 그런 정지훈에 비하여 백순금은 자기가 얼마나 아득히 뒤떨어져있는가를 생각지 않을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자기는 학생들이 아닌 자신의 명예만을 먼저 생각해온 사람이었다. 먼곳에 가서 봉어를 산채로 구해온것도 또 밤길에 양어장까지 다녀온것도 따져보면 그때문이 아니었던가 싶었다. 결코 아이들의 래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바치는 사람이라고는 말할수 없었다. 그런데 왜 이제껏 그것을 모르고 지냈는지 스스로도 놀라왔다. 만약 이 밤, 정지훈의 저렇듯 성실한 량심을 띄여보지 못했더라면 어찌라싶어 몸서리가 쳐졌다.

(아니다. 나의 한생도 저 시내물처럼 흘러갈것이다. 언제나 맑구, 줄기차고 또 지칠줄도 모르게 ...)

정지훈의 말없는 가르침에서 깨달은 이 생각으로 하여 백순금의 숨결은 몹시 높아졌다. 그러고보면 학생시절에 그랬던것처럼 교단에 선 지금까지도 자기는 여전히 정지훈의 일깨움속에서 눈을 뜨고 자라는게 아닌가싶었다.

그러는데 백순금은 문득 자기를 두고 말하는 정지훈의 목소리를 가려듣고 생각에서 깨어났다.

《이번 일요일에 너희들은 담임선생과 같이 시내물을 조사해보고 쏘가리같은것을 모조리 잡아내거라.》

정지훈이 이렇게 말하자 아이들은 우리 반 선생이 쏘가리를 아느냐며 불안해했다.

백순금은 가슴을 얻어맞은것처럼 흠칫 놀랐다. 아이들속에서 자기에 대한 불신임이 언제 저렇게 생겼는가 해서였다.

정지훈은 그렇지 않다며 손을 내저었다.

《그건 너희들이 모르구 하는 소리다. 너희들의 선생은 저 수림과 새와 물고기들이 가지고있는 비밀을 죄다 알고있단다. 이제 물어보렴. 쏘가리가 어떤놈이구 어떤데 숨어있기를 좋아하며 어떤 미끼를 던져야 손쉽게 낚을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줄게다.》

아이들은 좋아라고 환성을 질렀으나 백순금은 눈물이 쿵 솟아나서 앞을 내다볼수 없었다. 아이들앞에 자기를 내세워주는 그 마음이 고마와서였다. 이제 정지훈은 자기한테 쏘가리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줄것이었다. 그나마도 우연히 지나가는 말처럼...

갑자기 누군가의 부르는 소리에 백순금은 자기를 지켜보는 술한 눈길들을 의식했다.

《아니, 내가?!...》

백순금은 수풀속에 몸을 감추고있던 자기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그들 가까이로 다가갔는지는 종시 기억해내지 못했으나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서슴지 않고 그들앞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이 마주 달려왔다. 그 애들은 먼곳에 갔던 다심한 누나를 만난것처럼 기뻐하며 두팔에 마구 매달렸다. 《선생님이 어데로 갔댔는지 우린 다 알고있습시다.》

《선생님, 우린 마중가자고 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쏘가리를 잡았습니다. 일생에 두툰이나 잡아먹는...》

자기의 주위를 맴돌며 새떼마냥 떠드는 그 아이들을 보자 백순금은 눈물이 나도록 반가왔고 마음속이 그지없이 밝아졌다. 그는 매 아이들에게 일일이 대답을 주며 일요일의 개울조사를 약속했다.

《허허... 오자바람으로 잘은 걸려들었군. 무서운 때질군들이라니까.》

정지훈이도 껄껄 웃으며 습관처럼 안경너머로 눈을 끄적해보였다. 그리고는 아이들더러 어서 모닥불에 물을 끼얹으라고 재촉을 했다.

백순금은 그가 자기의 흥분된 기분을 알아차리고 저런다는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왔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빛으로만 감사를 보냈다.

얼마후 그들은 길에 나섰다. 작살과 장대와 반두채를 둘러멘 아이들이 두사람을 둘러쌌다.

백순금은 아이들만 아니라면 정지훈에게 자기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털어놓고싶었다. 그러나 말을 못한다고 해서 별로 안타깝지는 않았다. 벌써 정지훈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짐작하고 기뻐한다는것을 눈치챈것이었다.

림철길을 벗어나자 곧 나무다리가 나지고 밤수풀 너머로 학교가 건너다보이였다, 그뒤로 불빛들의 세계인 마을이 시작되였다.

그들이 다리에 들어섰을 때였다.

《야하, 저것 봐라. 물에서 달이 웃는것 같구나.》

앞에 섰던 봉국이가 물밀을 가리키며 희한해서 소리쳤다. 그러자 모두 다리의 란간쪽으로 몰려갔다.

《저것 봐라! 달이 웃지 않나.》

《응, 저건 학교구나. 마을두 보인다.》

《저 봉국일 봐라. 병굴병굴 웃는걸...》

그랬다. 백순금이라도 그것들을 보고있었다. 무심히는 볼수 없는 그 시내물속에 모든것이 들어있었다.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학교와 마을과 그들자신이

있었다. 그 모두를 담아내고 시내물은 끝없이 흘러간다. 미래를 향하여 흘러간다...

《자, 이제 그만 가가요.》

아이들을 돌려세운 정지훈이 또 재촉해서야 백순금은 못내 아쉬운듯 내키지 않는 걸음을 떼었다.

두사람은 흘러간 그 세월을 거슬러보듯 다리우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이 걷는 앞길에다 둥근달은

더욱 강한 빛을 뿌리었다. 숲속의 《고음가수》는 무엇이 좋은지 더 류창하게 노래부른다.

정력적인 시내물은 대자연을 깨끗이 씻어줄듯 자기의 마음같은 물안개를 서서히 피워올린다.

이 밤도 좋지만 보다 청신해진 아침은 또 얼마나 좋을것인가.

우리 사는 락원의 거리여

김정호

해빛 눈부신

아침거리를 걸을 때

은빛 무리등 찬란한

밤거리를 걸을 때

생각에 잠긴다

예가 내가 사는 나의 집, 나의 거리

귀여운 딸애의 손목을 잡고

오르내리는 층계는 얼마나 즐거운가

화목한 이웃과 서로 나누는

인사도 정에 겨워 좋더라

때로 공원의 무지개빛 분수비를 맞으며

아이들과 함께

내 한동안 철부지가 되고

새 거리로 새집들이 하는

친구의 집을 찾아간 그날엔

며칠새 달라진 거리 한복판에서

어리둥절 서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나의 거리

아름다운 나의 도시여

해빛이 흘러드는 그 어느 창문가에도

가로수 휘청이는 넓은 길우에도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은혜는 넘쳐

이 가슴 이 마음 뜨겁게 하여라

하늘에 치솟은 저 거리는

보통강반에서 첫삽을 뜨신

어버이 그 손길에 일떠선것이 아니냐

해빛에 번쩍이는 저 창문들은

찬바람 찬비속에 걷고걸으신

그 사랑을 안고 빛나는것이 아니냐

문득 어느 집 문을 열고 들어서도

새집들이 하는 날

수령님 오시여 짊어주신

그날의 그 손길에 방안은 따스하고

당중앙의 해빛어린 밝은 창가엔

한겨울에도 붉은 꽃 활짝 피어나고

여기도 락원의 거리

저기도 락원의 거리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고마운 당이

우리 살림에 부러움 없으라고

사랑의 거리들을 세워주시고

뜻깊은 이름을 달아주셨으니

온 세상이 쳐다보는 우리의 거리거리여

아, 우리의 주소는

락원의 거리

사랑의 거리

언제나 해빛 밝은 여기서

우리 태어나

우리 한생을 살아가나니

아름답다

은혜로운 해빛속에 눈부시고

따사로운 사랑속에 솟아있는

조국의 거리거리와 마을들...

우리 영원히 안겨사는

아, 행복한 삶의 요람

어버이수령님의 품이어

성실한 삶

서진명

홍원군 호남협동농장마을에는 사람들로부터 《공산주의아바이》로 불리우는 한 로당원이 있다. 그는 올해 70살의 송정준농장원이다.

근실한 농민들이 그러하듯 말없이 당원으로 해야 할 일을 수직수직 찾아하는 그의 변심없는 충성심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전사들이 한생을 어떻게 빛내여가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훌륭한 모범이라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에 대한 성실성은 공산주의자의 기본표징으로 됩니다.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정력적으로 일하며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사람만이 참된 공산주의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교장에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된 초시기부터 스무해 남짓하도록 분조장사업을 맡아하던 그가 년로한 관계로 몇해전 분조장책임을 벗게 되자 관리위원장은 그에게 이제는 쉬엄쉬엄 탈곡장 경비나 서는것이 어떤가고 진정으로 권고한적이 있었다.

했으나 그는 관리위원장의 권고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보게 관리위원장, 그제 기껏 날 생각해서 한 말인가. 자네 내 나이만 알았지 내가 당원이라는것은 감감히 잊었나보군. 마음만은 언제나 늙지 않도록 날 도와줄 대신 그런 말을 하니 섭섭하네 ...》

그는 그후 한다하는 장정들도 말아하기를 달가와하지 않는 작업반 소방목공의 직무를 스스로 맡아나섰다.

소방목공, 그 직무는 비오고 눈오는 날은 물론 명절날도 가림없이 숨쉬는 집승을 관리하는, 잔손질잔근심을 그칠줄 모르게 하는 조련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훌륭히 맡아하면서도 분조장사업을 할 때와 같이 당원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당과 혁명에 보탬을 줄 일을 스스로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비닐박막아래 강냉이영양단지모들이 파릇이 움트기 시작하던 금년 초봄에 있던 일이었다.

안골포전과 잇닿은 나지막한 산등판에는 소무리들이 햇풀을 가담가담 뜯어먹고있는데 얼굴이 땀으로 화락하게 젖은 송정준아바이가 밭에 널려있는 돌을 삼태기에 담아안고 개울가로 나르고있었다. 그는 어찌나 자기가 하는 일에 심취되어있는지 사람이 다가가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지난해 장마때 갑자기 불어난 물이 개울을 넘어나면서 50평남짓한 개울가의 밭에 돌무지를 날라다 덮쳐워놓은것을 알게 된 그는 작업반사람들의 손이 미치기전에 소방목을 하는 잠시간을 리용해서 그 일을 하는것이였다.

농장원들은 그가 분조장사업을 하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혼자힘으로 한정보의 땅을 새로 일켰다고 말한다. 3천평이란 땅이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닌만큼 송정준아바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이곳 농장에는 옛날 강물이 흐르던 굽인 강바닥이 자연호처럼 남아있는 물덕에 앞개논이라는 포전이 있다.

양수기로 물을 풀 때면 호수물이 줄어들면서 깊은 웅덩이가 있는 반면에 물우에 울퉁불퉁 솟아나는 땅덩이를 본 송정준아바이는 그 호수변두리를 흙을 날라다 메우면 능히 논을 풀수 있으리라는것을 타산하였다.

그해 송정준아바이는 시험적으로 한 40평되게 논두령을 내다 막고 흙을 날라다 바닥을 공근후 버를 심어보았었다.

오랜 기간 잡풀이 돌아났다가는 썩고 다시 돌아났다가는 주저앉으며 땅을 걸구어놓은탓인지 비료

를 얼마 안주어도 어느 눈 못지않게 결실이 좋았다.

이에 힘을 얻은 그는 그해 가을걷이때 개간할 면적의 물의 깊이를 미리 재놓았다가 물이 얼자 달구지로 흙을 실어다 깊은데는 두껍게 얇은데는 얇게 퍼나가기 시작하였다.

한해 두해 해가 바뀔수록 늘어나기 시작한 앞개논은 여섯해후에 1,700평으로 불어나 농장토지대장에까지 버젓이 오르게 되었었다.

그후에도 그는 해마다 본조앞에 부과된 알곡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면서 짬시간을 리용해 땅을 일구는 사업을 계속 벌려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무심히 스쳐지나 발두령도, 잡판목 우거진 자그마한 등성이도, 발가운데 쌓여있는 돌각담도 그에게는 미구에 곡식포기들이 뿌리내리고 자랄 기름진 땅으로 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해빛님친 땅에서 땀흘려 더 많은 일을 찾아할수록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고 윤택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게 된다는것을 자각한 그의 성실한 로동으로 하여 불모의 땅들이 옥답으로 태어나 만풍년포전들에 합쳐지게 되었던것이다.

당원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보탬을 주는 일을 할 때에만 바로 자신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게 되는것이다. 늙었다고 하여 당원이 서야 할 자리가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두릅세굽 일을 할 때에 당원이 늙었다고 뒤전에 서서 구경만 할수 있겠는가.

비록 세월은 흘러도 로쇠하지 않게 하는 그 정신적힘을 우리 당이 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야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 힘은 있어도 땀흘려 일할 한조박 땅이 없이 계절조차 정처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던 짓눌린 인생이 아니었던가.

농사철에는 지주집머슴군으로, 겨울철에는 몇푼안되는 선금에 끌려 샅배군으로 쪽배를 타고 풍파를 헤쳐야 했었다.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그 생지옥같은 세상에서 해매던 그에게 마침내 광명의 해빛을 안겨주고 그를 어엿한 땅의 주인으로, 당원으로 키워준 조선로동당!

물과 공기가 없이는 살수 없듯이 당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음을 자각하며 위대한 그사랑, 그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해가는 로당원, 누가 보든말든 애오라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충성의 그 한마음을 간직하고 당의 위업을 받들어 일을 찾아하는 로당원!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감동 없이는 들을수 없는 새라새로운 이야기로 사람들을 고무하고 추동하며 그는 오늘도 여전히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기쁨만을 드리는 로력투쟁의 선봉에 서서 혁명전사의 삶을 꽃피워가고있다.

이렇듯 당적의무를 자각한 당원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로쇠해도 정치적으로는 더더욱 청춘기를 맞이하는것이다.

당대회가 열렸던 지난 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해로 되게 하려는 농장원들의 마음이 꽃피고 열매로 맺어 이곳 호남협동농장에도 례년에 드문 대풍이 들었다.

송정준아바이가 20여년을 하루같이 새로 일구고 갈구어온 한정보의 논밭에도 볼수록 흐뭇한 풍년열매가 주렁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당,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에 감사를 드리는 한 농민당원의 마음을 고이고 고여 그는 지난해에 호합진 풍년가을을 어머니당대회앞에 선물하였다.

오늘도 송정준아바이는 영광의 년대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의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더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여전히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숭고한 모범을 자기 사업과 생활에 그대로 체현하며...

덕흥나그네

정창윤

전쟁후 탄광은 다시 옛처럼 일을 시작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자재인수원이었다. 집떠나 다니기가 힘들어서 다른 일을 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해방된 날부터 자재과에서 일을 한것만큼 나 이상으로 탄광의 자재사정을 알고있는 사람이란 없었다. 과장을 포함한 자재과 인원들은 죄다 새로운 사람들이어서 전쟁전부터 거래하던 상대기관들의 형편도 몰랐고 낯도 익히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은 나로 하여금 바깥출입이 어렵다고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 없게 하였다. 전쟁을 겪고나서 일을 하자니 걸리는 자재가 한돌이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동발감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였다. 하는수없이 나는 산서면 립산지구에 얼마동안 가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새 과장은 갱속에 묻어두었던 옛날 장부책을 꺼놓고 말하였다.

《거기엔 전쟁 직전에 접수해놓은 나무무지만도 20여개나 있군요. 이게 그 략도입니다. 찾아서 운반해오도록 힘써보시오.》

나는 그가 내보이는 략도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한것은 전쟁 3년동안에 그것들이 제대로 보존되어있으리라 믿고있는 새 과장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되었기때문이다.

그 략도로 말하면 내가 그린것이고 그 나무무지들도 내가 접수하여 쌓아놓았던것들이었다.

어쨌든 나는 출장증명서를 받아들자 그날로 떠나고말았다.

산서면은 전쟁전에 매우 흥성거리던곳이었는데 이제는 폐허뿐이었다. 산동쪽으로 뻗은 외통신작로를 끼고 산과 산 사이에 끼워있는 면소재지이긴 했으나 두개의 립산산업소와 하나의 광산이 있어 도시 못지않게 번잡하던곳이었다. 술집, 고기국집, 국수집, 떡집은 손님들로 차있었고 천이나 신발로부터 시작하여 합지나 빨래방망이까지 없는것 없이 장마당에 퍼놓던곳이었다.

그렇지만 전쟁은 이 땅을 휩쓸면서 여기저기에 굴뚝들만 남겨놓고는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짓뭇개버렸다.

광산도 아직 복구에 착수하지 않았고 립산산업소들도 예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한채 보잘것없는 생산수자를 내고있었다. 내가 들어있는 객주집 역시 서툰으로 쓰러지는것을 여러개의 덧기둥이 부지해 주고있었다.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인 길가집이다. 문을 열면 마당 울타리와 신작로가 붙어있다.

《운수가 좋아서 이나마 서있지요.》

나이60에 40밖에 안된 녀자를 데리고 사는 주인이 하는 소리다.

누런 금이발에 상고머리를 한 그는 옛날회중시계를 차고있다.

객주업30년 리력자인 주인이요. 하루에도 몇번씩 얼굴에 분칠을 하는 녀자다. 손님은 나까지 세 사람이었다.

맨 옷목엔 주인내외가 《덕흥나그네》라고 부르는 손님이 자리잡고있었다. 색날은 검정작업복에 진창발림을 한 로동화를 신고 다니는 덕흥기계공장 로동자다.

모자도 본바탕색은 밤색같은데 기계기름과 먼지와 땀이 찌들어붙어서 검정모자나 다름없이 보였다.

마흔다섯살 전후했을 갱뽕한 이 중년나그네는 몸놀림이 가볍고 구리빛 얼굴인데 아침만 먹으면 삼과 곡뽕이를 메고 객주집을 나섰다가 어두워서야 돌아오곤하였다.

후퇴시기 소개설비들을 싣고 가다가 이 주변에서 적들의 폭격을 받게 되어 파묻어버린 크고작은 전동기들을 파내고있는 사람이었다.

아래목 벽밀에 자리잡은 손님은 주인내외가 언제나 깃듯이 존대하는 《사리원선생》이다.

50을 전후했을 똥뽕보로서 사리원쪽에서 와있다는 장사군이다. 무슨 장사군인줄은 모르겠으나 돈 잘 쓰고 무점이 좋은데다 점잖은 티를 뵈노라고 애쓰는 사람이다. 전쟁전 홍콩수입제 회색양복에 흰 와이샤쓰를 입었고 반들거리는 토색구두를 신었다. 어디로 보나 전쟁을 치르고 난 사람같지 않다.

아침을 먹고나면 장사속때문인지 몇군데 돌고와서는 진종일 방구석에서 덩굴고있다.

아무도 없을 때면 주인녀편네와 수군덕거리기도 한다.

10월이다.

전쟁이 끝난지도 두달이 넘었다.

비행기소리와 폭탄 쏟아지는 소리가 없는 산간의 낮과 밤은 적막하였다.

도시들과 공장지구들 같으면 복구건설로 하여 낮과 밤이 없으려면 이 외통신작로가 지나간 산골면소재지는 이제 겨우 폐허가 된 집터들에서 깨진 기와장이나 웅기조박들을 집어내는 정도다. 이따금씩 집앞 신작로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지나온다.

객주집의 밤은 판에 박은듯 변화란 없었다.

하루종일 삽질과 곡괭이질을 하다가 돌아온 덕흥나그네가 제일 먼저 잠든다.

그 다음은 림산산업소에 붙어있으면서 동발목때문에 고래고래 싸움판을 벌리다가 돌아온 내가 잠든다.

예상했던바와는 달리 전쟁전에 접수해놓은 나무무지들이 그럭저럭 절반정도는 남아있어 탄광에서 차를 보내면 빈차로 돌려보내지는 않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잠드는 사람은 사리원장사군이였다. 아침에 한바퀴 돌며 전쟁으로 병락해진 산간사람들에게 나무함지나 쌀함박따위들을 만들도록 선돈을 뿌리고는 그것이 되는차로 객주집 뒤뜰에 받아서 쌓아놓는것이 이 사람의 일 전부였다.

그가 산간사람들과 계약한 금액은 두차분인데 벌써 한차는 실어서 사리원시장으로 뽑아내였다.

객주집에서 잠을 깨는 순서 역시 같았다.

주인은 지독한 노랭이였다. 손님따라 철저하게 대접을 달리하는 사람이었다.

령감이나 녀편네는 사리원장사군에게 돈푼이나 있는것 같으니까 그것을 뜯어먹느라고 어찌나 알랑대는지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사리원동동보에겐 이부자리도 비단깁대기를 씌운것을 내주었고 베개도 수놓이한것이였다. 사리원

장사군은 밥상도 우리와는 달랐다. 아침엔 닭 한마리를 먹었고 점심엔 주인녀편네가 받아다주는 국수 두그릇을 먹었으며 저녁엔 곡주 몇잔씩 기분 좋게 마시곤하였다. 그대신 덕흥나그네와 나의 밥상엔 산나물 한접시와 채소국이 올랐을뿐이였다.

주인녀편네는 밥상을 물릴 때마다 나보고 똑같은 말을 하곤하였다.

《탄광아저씨야 무엇때문에 이런 밥을 잡수시우. 나무 한가지가 금처럼 비싼 세월에 제 물건을 끼고있으면서 덕흥나그네나 다름없는 밥상을 받다니...》

《그게 어디 내 물건이요. 국가물건이지...》

《아유, 천진도 하시구려. 황정승이 되겠수다.》

나로 말하면 살아온 전기간에 매사를 청백하게 처리한 사람은 못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객주집녀편네의 얼림질에 넘어가서 국가물자인 탄광의 동발목들을 팔아서 제 배를 채울 생각은 없었다.

본심은 이러했지만 객지에서 배고픈것을 면해보려고 약간의 원장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인집녀편네가 온갖 우는소리를 다해가면서 한켠으로 쓰러지려는 저희 집을 수리하게 제목을 달라는 청을 거절하지 못한것이였다.

주인집녀편네가 턱밑에 기여들면서 제살이라도 베어줄듯하는데 넘어간 나는 탄광으로 실어보낼 동발목들중에서 끈고 미끈한 나무들을 려인숙집 수리용으로 떼어주고말았다.

이리하여 내 밥상도 달라졌다.

《벌써 그렇게 하실것이지...호호호.》

주인녀편네가 야양을 떠는데는 이마를 찌프리지 않을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잘먹으니 좋았다.

변함이 없는건 덕흥나그네뿐이였다. 아침이면 주인집에서 빌려쓰고있는 삽과 곡괭이를 메고서 소개설비를 파묻었던 장소들을 찾아가곤하였다.

어떤 날엔 방수포나 유지에 쓴 소형전동기를 메고 오기도 하였고 어떤 날엔 전동기들이 들어있는 나무괘짝들을 지고 오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날엔 헛탕을 파느라고 수고만 했을뿐 빈손으로 들어오기도 하였다.

기계기름과 땀과 먼지에 찌든 모자를 꼭 눌러쓰고는 진창발림을 한 로동화를 단단히 졸라매 신고다니는 그였다.

밤에도 달빛이 있어 주변을 분간할 정도나 되면 소개설비를 묻어놓은곳에 가있곤하였다.

객주집 주인녀편네는 갈아입을 의복하나 없는 주체에 남의 집 이불을 덮는다고 매일밤 야단질이였다.

그런가 하면 주인령감은 삽이나 곡괭이가 필요하면 들고다닐것이지 빈주먹으로 와서는 저희 집것을 빌려쓴다고 한참씩 떠들어대곤하였다.

《당신네 로동자들도 사유재산이야 인정할것 아니요. 그러니 남의 삽이나 곡괭이를 쓰겠거든 그 값을 치르란말이요.》

상고머리를 뺏뺏이 세우고 분통을 쏟아붓는 주인이였다. 그때마다 덕흥나그네는 담배를 말아서 피워물고는 건너편 산을 바라보고있을뿐이였다.

덕흥나그네는 아침일찍 일어나서는 객주집 울타리밧의 도랑을 쳐주곤하였다.

못이 빠져서 너털거리리는 울타리널판자들도 제대로 붙여주었고 삭아서 넘어지려는 울타리기둥도 바퀴 세워주곤하였다.

이런 그를 보면서 나는 그가 어리숙하고 또 어리숙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갈아임을 의복이나 작업할 도구하나 없이 외토리로 와서 이동작업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그였다. 객주집 주인들한테까지 쓸소리 못쓸소리 다 들으면서도 못들은척하는 그였다.

《그 공장엔 삽이나 곡괭이도 없는가요?》

이렇게 묻는 나의 어조 역시 건방졌지만 그는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없지요. 재더미뿐이외다. 벽돌 한장 성한게 없지요.》

그처럼 소문높던 덕흥기계공장이 아무리 전쟁의 상처를 입었다 하여도 형편이 이러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던 나였다.

이런 어느날이었다.

나는 밤이 깊어 우뢰가 울며 소낙비를 내리쬘는 바람에 잠을 잤다.

그런데 놀라운건 사리원 뚝뚝보장사군과 덕흥나그네가 문을 열어놓고 가지런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있는것이였다.

초저녁에 달이 밝아 덕흥나그네는 작업장으로 갔었다. 짐작하건대 비를 구름을 보자 그때 돌아오는 길인듯하였다.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탄 구멍도 볼줄 알아야지요.》

사리원뚝뚝보의 말소리였다.

《그게 내 물건이면 몰라도 공장물건인데 팔면 되겠소.》

덕흥나그네의 말소리였다.

《후퇴시기 소개하다가 파묻어버린건데 그 누가 모라수자들을 그렇게 정확히 따지려들겠소. 모르겠다면 다시...》

나는 이 몇마디로서 그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는지 알수 있었다.

요즘 사리원뚝뚝보는 덕흥나그네가 그동안 하나씩 하나씩 메다가 토방에 쌓아놓고 마대를 덮어놓은 소형전동기들에 눈독을 들여 하루에도 몇차례씩 들여다보곤하였다.

《생각을 좀 넓혀보시우. 난 철공소를 하나 차리고싶지만 전동기들을 구할수 없어서 못차리고있어요.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 아니요.》

《딱한 사정이긴 하지만 다른데서 구해보시우. 우리가 공장을 복구하는데 전동기를 내놓을수는 없지요.》

《정 그러시다면 하는수 없군요. 난 그래도 덕흥나그네가 좀...》

이로서 그들은 말을 끊고 문을 닫은 다음 제각기 잠자리도 드는듯하였다.

이로서 그들의 흥정판이 어떻게 되는가 귀를 기울이고있다가 이렇게 깨지는것을 보고 가볍게 혀를 찼다.

덕흥나그네가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되었기때문이다. 후일에 그 누가 따지고들것도 아닌 매물물자요. 장부에도 가입되어있지 않는 전시행불설비들인데 무엇때문에 저처럼 각쟁이짓을 하는지 알수 없었기때문이다. 그것도 소형전동기 한두개면 배고픔을 면할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덕흥나그네가 앞뒤가 막혀도 이만저만이 아니게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또 며칠이 지나갔다.

그날 아침은 제법 가을기분이 돌아서 서늘하였다. 덕흥나그네도 인젠 객주집 일을 해주리만큼 해준 뒤끝이여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아침상을 기다리며 방안에 앉아있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눈에 독을 올린 주인령감이 막아섰다. 한동안 덕흥나그네쪽을 아니꼽더니 누런 이발을 드러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오늘도 우리 집 삽과 곡괭이를 쓸테요?》

《써야지요.》

《곡괭이를 이 꼴로 만들고도 그냥 쓴단말이요.》

주인령감은 문밖토방에 세워놓은 곡괭이를 들어서 문턱우에 올려놓았다. 끝이 문드러질대로 저서 예리한 맛이란 없어진게 완연하였다.

《내 이제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좋은 곡괭이를 보내올리다.》

덕흥나그네는 매우 미안한듯 이런 약속을 하였다.

《뭘라구? 공장이 돌아가면 어쩐다구... 여보, 당신네 그 공장이 10년안팎에 돌아갈상실소.》

《.....》

입이 쓰거워 먼산만 내다보는 덕흥나그네였다.

《당신같은 량반을 두번만 들였다간 부엌식칼까지 없어지겠소. 오늘부터는 우리 집 삽이나 곡괭이는 못쓸줄 아우. 쓰겠거든 값을 물란말이요.》

주인이 으름장을 놓는 기세란 찬서리도 무색할 지경이였다.

《너무하구려 주인장, 내가 대신 그 값을 물면 안 되겠소.》

사리원장사군이 주머니에 손을 찌르더니 지전몇 장을 꺼내서 공중에 내밀었다.

《선생이 값을 치르겠단말이요. 생각이 그렇다면 치르시우.》

주인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려고 하였다. 순간 덕흥나그네의 번개같은 손이 올라가며 그들의 손과 손이 련결되는 째에서 그 돈을 빼앗아내렸다.

돈을 빼앗긴 주인은 눈알에 불이 일며 고향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불한당같은놈아. 배운것 없는 로동군놈아.》

그러나 덕흥나그네는 흰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나서더니 주인이 서있는 문턱우에 다가갔다.

《뭐라구? 불한당... 배운것 없는 로동군이라고... 내 그동안 령감이 지껄이는 소리를 잠자코 들었지만 그따위 수작질만은 앉아서 들을수 없어 일어섰소.》

덕흥나그네는 한발을 문턱우에 올려질더니 주인 령감에게로 바짝 붙어섰다.

《이놈, 이놈 봐라, 그래 네놈이 나를 어쩔테냐.》

주인의 고향소리 역시 계속 높았다.

《전쟁 3년동안에 당신같은 벌레들이 살아남고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건 가슴더질 일이요. 우리는 당신같은것들의 곡괭이 한번 공짜로 써본 일이 없소. 그렇다고 지나치게 값을 물지도 않는단말이요. 당신네 곡괭이 값은 그만했으면 후히 문셈이요.》

덕흥나그네는 몇번이나 분통을 이기지 못하여 손을 내밀려다가는 간신히 참아내는듯하였다. 겨우겨우 자신을 억제한듯 제자리로 돌아와앉는 그였다. 완력행사가 오가지 않은건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놈, 이놈, 이놈을 그저... 나더러 벌레라구.》

덕흥나그네가 그앞에 다가섰을 때는 파랗게 질려있던 주인령감이 다시금 분을 이기지 못하여 불에 덴 송아지처럼 두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는것이였다.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던 주인너편네의 행악질이 또한 귀청을 찢었다.

《아유... 그 주제에 우리더러 벌레라구. 저런걸 그냥 뒹야 쏘아요? 손님들이 버릇 좀 떤주구려. 이거야 분해서 어떻게 참겠소.》

하지만 사리원뚱뚱보 《선생》이나 나 역시 가슴 한구석이 써늘하여 식은땀을 흘리면서 덤덤히 앉아 있을뿐이였다.

옷목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있는 그의 기상은 도고하기가 변신한 범과 같아서 사리원장사군이나 나는 기가 꺾이고말았다.

그 이틀후에 사리원장사군은 불일을 다 보고 떠나게 되었다. 그동안 사방에 돈을 뿌리고 걷어들인 물건들을 쌓이는 차례로 실어보내더니 마지막 한 자동차는 제가 직접 싣고서 가는 모양이였다.

《자, 우리 다시 만납시다. 사리원에 오시면 들리시우. 그동안 두분이 안계셨다면 저는 매우 적적하였을것입니다.》

제법 그 무슨 오랜 친구간에 작별이나 하는것 같았다.

《저는 이번 길이 객지 장사일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는 철공소를 차려놓고 밥을 벌어먹으려고 합니다.》

사리원장사군은 자기의 금후 계획을 털어놓기까지 하였다.

《그저 이번 길에 섭섭한 일이 한가지 있었다면...》

사리원장사군은 입에 물려던 담배가치를 도로내 리더니 누구에게나 동정을 살수 있는 서글픈 어조로 말하였다.

《그 섭섭한 일이란 이 덕흥나그네부터 전동기를 몇대 얻어내지 못한겁니다. 아무렴 제가 그 값을 후하게 치르지 않을라구요. 정말 섭섭합니다...》

덕흥나그네는 못들은척 눈을 아래로 내려깔고 앉아있을뿐이였다.

나는 세상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이런 때에 누구를 도와주어야 하는가를 알았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이 덕흥나그네는 정직하다나니 그러는걸요.》

《그거야 전들 모르겠는가요? 혹시 전동기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있었을겁니다.》

했을 때 덕흥나그네가 아래로 내려깔았던 눈을 들더니 사리원뚱뚱보를 곧바로 건너다보았다.

《당신은 더 늦기전에 떠나는게 좋겠소. 우리 공장 전동기때문에 당신이 섭섭해할 일이 뭔가요? 당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공장 전동기를 팔아먹으란말이요? 당신의 우리 로동자를 뭘루 아오.

전쟁을 겪고난 나라가 몹시 어려움을 겪는 때에 당신처럼 제살 구멍이나 찾는 로동자는 없지요.》

사리원뚱뚱보는 마신 술이 죄다 깨는듯 정지간을 향해 찬물 한사발을 달라고 하여 꿀꺽꿀꺽 마시고는 떠나고말았다.

그리하여 객주집엔 나와 덕홍나그네만 남게 되었다.

그동안 덕홍나그네는 매물했던 전동기계짜들을 거의 전부 파내서 토방에 운반하여 쌓아놓았다.

사리원장사군이 것처럼 탐내다가 간 각종 규격의 중소형 전동기들이었다.

덕홍나그네는 이제 200와트시 전동기 3개만 찾으면 떠날것이라 하였지만 좀처럼 찾아내지 못하는 듯 빈손으로 돌아오곤하였다.

《혹시 판 지방에 소개시킨건 아니요?》

나는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맥을 잃곤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보았다.

《내 짐작엔 여기 어데다 묻었을것 같단말이요. 자강도 목적지까지 실어간 설비들중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폭격받은 자동차들에 실려있었을텐데... 나는 그때 첫차에 탔으니 여기 실정은 잘 모르지요.》

《그렇다면 자동차에서 부리우기전에 타버린것들도 있지 않았겠소.》

《그런것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끝까지 찾아는 봐야지요.》

덕홍나그네는 정말 끝까지 찾아볼 결심이였다.

진종일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파보던 그는 객주집에 잠시 들려 저녁을 먹고는 또다시 방향을 달리하여 떠나가곤하였다.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어 땅과 바위만 분간할수 있으면 잡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빈방에서 혼자 잘 때가 많았다.

《모-타에 환장을 한 사람 아니유.》

주인내외가 나보고 하는 소리였다. 나 역시 것처럼 극성스럽게 전동기를 찾아다니는 덕홍나그네가 리해되지 않았다. 공장도 공장이지만 제뻘다귀는 제뻘다귀다. 아무리 공장일이 중하다손치더라도 제오금이 부서지지는 말아야 할게 아닌가?

나도 전쟁전에 젖꼭지에서 갓 떨어진 딸을 데리고 도시로 나갔다가 그애를 잃어버리고 하루낮, 하루밤을 미친놈이 되어 돌아다니던 일이 있었다. 그때 겪어보아 아는 일이지만 어방대고 사람을 찾거나 어방대고 물건을 찾아다니기란 녹달병들노릇이었다.

하거늘 이 사람이 아무럼 전쟁때 파묻어버린 전동기를 제 새끼 찾듯이 돌아다니며 찾다니... 사람도 고지식하기란... 허를 차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어느날 덕홍기계공장에서 화물자동차 한대가 왔다. 그가 찾아놓은 설비들을 실어가기 위해서 온것이다.

공장에서 온 자동차운전사와 덕홍나그네는 자지 않고 그간의 소식들을 주고받았다. 젊어서 팔팔한 운전사였다. 그래서인지 덕홍나그네를 아바이라고 불렀다.

《이제 가면 놀랄거우다. 잔해처리를 거의 다 했어요.》

《벌써?》

《벌써라니요. 아바인 여기 와있으니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는것 같수다. 학생들까지 총동원해서 공장복구를 도와주고있어요.》

《그래...사방에 헤여졌던 우리 동무들도 거의 돌아왔겠지?》

《그럼요. 군대에 나가있던 동무들도 거의 돌아왔어요. 산이라고 떠밀듯이 와와 하거던요.》

《힘들이 막 솟겠군.》

덕홍나그네는 떠나온 공장을 그리워하는듯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래일아침 어둑새벽에 떠나자구요.》

《.....》

이 말엔 덕홍나그네가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들 아바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임자 로비를 갖고온게 없나?》

《로비는 뭇에 쓰려구요.》

《아무래도 난 며칠 더 있어야겠네. 아직 몇군데를 마저 파보아야 하겠어.》

《공연한것 아닐가요. 여직 없었으면 없는거겠지요.》

《그래도 혹시 알겠나.》

잠시후 두사람은 말을 끊고 생각에 잠기는듯하였다.

《그래서 곡괭이하구 삽을 꼭 구해보내라구 기별했군요.》

《못가지구 왔나?》

《아바이가 떠날 때와 같은줄 알아요. 단야직장동무들이 제일 먼저 일을 시작했는데 공장복구에 쓸 곡괭이와 삽이 하늘 찌르게 쌓여있어요.》

《그거 기쁜 소식이로군.》

《내가 떠날 때 단야직장 오래준아바이가 곡괭이 두자루와 삽 두자루를 실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고 마음이 어찌나 허전하던지...틀림없이 그곳 어데서 얻어냈을 터인즉 이것으로 갚아주고 오라고 하게.> 》

젊은 운전사는 먼길에 오느라고 지친듯 늙자마자 코를 골며 잤으나 덕홍나그네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락거렸다.

젊은 운전사가 가지고온 공장소식을 듣고 몹시 흥분하는듯하였다.

이곳 길가 객주집에서 숙식을 함께 한 그가 잠들지 못하는걸 보기관 이 밤이 처음이다. 낮동안 아래 목 옷목이 좁다하게 덩굴면서 한잠씩 자는 나는 밤이면 졸음을 청하느라 애가 타군했지만 이 사람은 그런걸 전혀 몰랐다. 저녁상을 물리면 그대로 통잠에 들군하였다. 그런 사람이 공장소식을 듣고나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뒤치닥거리다가는 일어나서 담배도 한대씩 피웠다. 《새우겠수다.》 덕홍나그네의 부스락질이 잠들어보려는 나까지 방해하였다.

《우리 공장이 일을 시작했다지 않소.》

끝내 잠들지 못하는 그였다.

날이 밝자 운전사는 토방에 쌓아놓은 공장설비들을 적재함이 부서지게 와당탕거리며 싯더니 떠나갔다.

그날 아침도 덕홍나그네는 밥상을 물린후 집을 나섰다.

작업할 대상지로 떠나기 앞서 그는 공장에서 보낸 곡괭이와 삽 두조종 한조를 풀어내어 주인령감에게 주었다.

《그동안 댁의 쟁기들을 써서 매우 미안합니다. 이걸 대신 댁에서 써주십시오. 쇠가 좋아 오래 쓰실 수 있을겁니다.》

덕홍나그네는 그동안 곡괭이때문에 일어났던 일은 전혀 잊은듯한 평온하고 친절한 어조였다. 그리고는 나머지 새 곡괭이와 삽을 메고서 길에 나섰다.

그가 떠난후에도 나는 늦도록 아래목에서 덩굴었다. 사리원뚱뚱보가 간 다음부터 아래목을 차지하게 된 나는 그의 본을 따서 거기서 덩굴며 시간을 보내군하였다.

하루에 한번씩 립산사업소 판매부에 들러보고는 옛날 나무무지들을 돌아보면서 기동감도 한두개씩 주인집에 선심을 썼고 석가래감들도 몇대씩 집어주었다.

덕분에 이날도 나는 점심을 잘 얻어먹고 객주집을 나서서 립산사업소 판매부에 들렀다가 옛날 나무무지들을 찾아 한바퀴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우연하게도 덕홍나그네와 만나게 되었다. 덕홍나그네는 신작로에서 시작된 골짜기를 따라 깊숙이 들어와 휘여든곳에서 땅을 파고있었다.

거기엔 우리 탄광이 점수해놓은 옛날 나무무지가 있어서 나도 잘 아는 골짜기였다.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가 파헤치는 땅속을 들여다보았다. 나무꺾작 한 끄트머리가 보였다.

《짐작이 맞았구려.》

나는 그것이 그가 것처럼 못찾아하던 나머지 전동기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냥 갔으면 어쩔번하였소.》

덕홍나그네는 땀이 물흐르듯하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았다.

나는 거기서 담배 한대를 피우며 다리섬을 하고는 그보다 앞서 객주집에 돌아왔다.

저녁밥을 먼저 먹고 누워있었으나 어두울 때까지 덕홍나그네는 돌아오지 않았다. 짐을 지고오느라고 늦어지는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매우 늦어 돌아온 덕홍나그네는 빈손이었다. 빈손일뿐아니라 오른손 세손가락을 천으로 감았는데 피빛이 내비쳐있었다.

《다쳤소?》

《다쳤지요. 그만 꺾작을 들어올리다가 포장쇠줄에 찢려서...》

《많이 다쳤소?》

《독을 쓰는지 저려서 못견디겠소.》

《그거 안됐구만...》

《밤자고 나면 일없겠지요.》

대수롭지 않게 말한 다음 그는 저녁밥을 먹고 자리에 누웠다.

다친쪽 손이 저려서 이리저리 주물러보던 그가 잠드는걸 본 나도 뒤따라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덕홍나그네는 열이 높아지면서 정신을 잃군하였다.

나도 깨어나고 주인집내외도 깨어났다. 불을 켜고 본 그의 얼굴색은 벌써 자기 살색이 아니었다.

겉에 질린 나는 십리나 되는 진료소로 달려가서 잡자는 준의를 데리고 왔다. 번대머리준의는 덕홍나그네를 오래동안 진찰하더니 실망하여 나앉았다.

《늦었군요. 파상풍입니다.》

준의는 비상용 주사를 놓았다.

해뜰무렵에 정신이 든듯 덕홍나그네가 눈을 뜨고 나를 한참 올려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보였다.

《나는 이렇게 죽는게 통분합니다. 부탁은 어제 찾은 전동기를 공장에 전해주시우.》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하여보였다. 덕홍나그네는 또한번 머리를 이쪽저쪽으로 움직여보고나서

마른침으로 입술을 적시는듯하더니 아까보다는 한결 기운있게 말하였다.

《당신은 국가물자를 가지고 더 〈선심〉을 쓰지 마오. 한번 꼭 말해주고싶었소. 죽는 사람이 하는 소리니 귀담아들소.》

그 다음 덕홍나그네는 나를 한동안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후 더는 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또 한번 눈을 번쩍 뜨더니 곧바로 천정을 올려다보며 헛소리를 하였다.

《모타에 스위치를 넣어라...야 저놈 보지. 전쟁판에 갔다왔는데두 선반 돌리는 솜씨가 그대로인걸...이젠 다들 모였으니 덕홍기계사람들의 본때를 보이자.》

그 다음은 영영 눈을 감아버리고말았다.

나는 그의 공장에서 사람들이 오기까지 덕홍나그네의 결을 지켜주었다.

공장에서는 전보가 도착하는 즉시로 사람들이 왔다.

나는 이미 면식이 있는 그 공장 자동차운전사인 젊은이를 데리고 꺾임골짜기 안턱에 있는곳에 가서 전동기 3대가 들어있는 궤짝을 인계하였다.

공장사람들은 떠나갔다.

나는 그들이 떠나간후 혼자서 빈방에 우두커니 앉아있기가 싫었다.

덕홍나그네가 나를 올려다보며

《당신은 국가물자를 가지고 더 〈선심〉을 쓰지 마오.》하고 말하던 음성이 되살아날 때면 더욱더 그러하였다.

그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말하고싶었으면 죽으면서까지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송곳끝으로 긁어내는듯싶어 몹시 아팠다.

물론 그후엔 탄광의 동발목으로 《선심》을 쓰는 따위의짓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당위원회에 찾아가서 자기를 내놓고 비판은 하지 못했다.

나혼자 한 일이니 영영 숨길셈이었다.

× ×

군대에 나가있던 맏아들이 제대되어 내가 있던 탄광의 자재인수원으로 배치되었다. 이젠 아들과도 함께 있게 되었다.

제애비가 하던 일을 하게 되는 아들을 보는 내 마음은 복잡하다.

아들이 아무쪼록 일을 잘해서 위대하신 수령님과 당에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할것을 바라는것이 이 애비 마음의 전부다.

나는 늙은 자재인수원으로서 그 부문엔 실무도 일등급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니 첫출발을 하는 아들에게 배워줄것도 많다.

하지만 나는 덕홍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 해주기로 결심하였다.

× ×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지금 나는 국가로부터 년로보조금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고있다. 달뜨는 저녁에, 꽃피는 아침에 생각하니 나라의 고마움뿐이다.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우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나의행복한 말년이 있다.

얼마전에 산서면으로 마을 로인들과 함께 약초를 캐러 갔다가 옛 객주집앞을 지나게 되었다. 물론 객주업 간판을 떼버린 집이었다. 옛일이 생각되어 얼굴 한번 들이밀지 않을수 없었다.

《아유 이게 누구시우?》 반기는 목소리의 임자는 왕년의 그 객주집 안주인이었다.

《어떻게 지내시오?》나 역시 반갑기란 일반이었다.

《우리가 지낸 얘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지우.》

첫눈에도 곱게 늙은 안주인이다. 한창시절에 알던 사람이라 더놓고 제 처지 얘기를 한다. 듣고보니 그들 부부 역시 행복한 말년을 보내었다.

우리가 이고장에서 떠난후 령감내외가 지방산업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되어 년로보장을 받는다나... 몇년전에 령감은 근심걱정 모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한다.

작년엔 사리원나그네도 약초캐러 왔다가 하루밤 묵어갔는데 그 역시 사회주의 근로자로 개조되어 사리원 어느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년로보장을 받는다 한다.

생각해보면 나라의 고마움이란 정말 비할바없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고덕부

△ 나오는 사람

길복...마을청년

형근...길복의 아버지

옥너... 길복의 안해

경찰... 마을청년

송씨...경찰의 할머니

유격대 중대장과 대원들

마을사람들

구장

왜놈수비대 오장과 병졸들

△ 막이 열리면 눈덮인 산촌마을, 무대는 길복이네 집이다.

△ 흰눈이 하얗없이 내리는가운데 설화가 들린다.

설화: 이것은 내기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전인 1935년 겨울에 나의 아버지가 실지 체험한 뜻깊은 사랑의 이야기이다.

세월의 흐름속에 어느덧 세대가 바뀌어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 이야기를 오늘은 내가 아들에게 다시 옛말처럼 들려주군한다.

△ 눈이 뱉으면서 차그마한 보구레미를 든 길복이가 가벼운 걸음으로 마당가에 들어선다.

길복: 아버지...

△ 응답이 없다.

△ 길복이 방문을 열어보고나서 집둘레를 두루 살피는데 술에 취한 경찰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우리과 같은 인생은
팔도나 강산 봄이 와도
가슴만 동동 얼어드니

△ 이윽고 경찰이가 비칠거리며 나타난다.

길복: 경찰이가 술을 다 마시구 웬일이야?

경찰: 내가 술을 마신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셨다. 빌어먹을...(눈길우에 얹어진다)

길복: (그를 안아일으키며)이렇게 추운 날씨에 취해다니다가 동태귀신이 되자구그래?

경찰: 동태귀신?... (그제서야 알아본듯)오, 너 길복이로구나. 넌 장가들자마자 목재판에 품팔이 떠나더니 돈이나 좀 벌어가지고 왔니?

길복: 돈이 다 뭐냐 .어서 집에나 가자. 내가 데려다줄게.

경찰: 집떠나기전에 혼자서 송별주 한병 마셨더니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게 세상 근심 다 없어지구 ... 좋긴 좋다.

길복: 네가 집을 떠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경찰: 난 내 제사상에 올려놓을 술까지 다 마셨거던. 래일아침에 난 왜놈 《토벌대》에 짐군으로 가게 댔단말이야.

길복: 뭐 《토벌대》에 짐군으로?

경찰: 말이 짐군이이지 왜놈들의 속심은 총알받이로 써먹기 위해서라는데 미리 도망치면 집에다가 행패질을 할게구... 그까짓거 나 하나 끌려가서 죽구말지. 신수가 좋아서 목숨을 건지면 아예 유격대를 찾아가구... 어쨌든 난 래일아침 집을 떠난다.

길복: 네가 그렇게 제생각만 하면서 집을 영영 떠나면 불쌍한 할머니와 동생들은 누가 먹여살리구?

경찰: 난 자식구실을 못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벌써 굶겨죽인 놈이다. 나한테 효성이 모자라서 그랬겠니? 이놈의 세상에선 내가 집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그럴바엔 차라리 멀찌감치 없어져서 가슴아픈 정상을 보지 않는게 낫지...

길복: 그것두 말이라구 하니? 너 정말 취했구나.

경찰: 술취한 내 걱정은 말구 넌 너의 아버지 걱정이나 해라. 너의 아버지두 짐군으로 뽑혔다더라.

길복: 아니 뭐 우리 아버지까지?! 안경숙

△ 경찰이 다시 구슬프게 노래하러 비척비척 혼자 걸음을 옮기는데 허리굽은 그의 할머니 송씨가 마주온다.

경찰: (허까부러진 소리로) 할머니 나를 마중오 시구... 나는 취해서 오구...

송씨: 집에선 철없는것들이 배고프다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넌 어디 가서 술까지 마셨구나, 응?

경찰: 예, 난 속이 편해서 한잔 했어요.

송씨: 경찰아, 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정신차려라.

경찰: 할머니... 여기 피쌀 한되박은 이렇게 사서 차구왔어요. (허리에 찬 쌀주머니를 내보이며 기다리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진다)

송씨: 원 녀석두,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그를 힘겹게 부축한다.)

경찰: (가까스로 일어서서 도리어 할머니를 부축하러들며) 할머니, 내 다신 술을 안마셔요. 자, 가지자요.

△ 길복이 나가는 그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근심에 싸여 서있다.

△ 이때 람루한 숨저고리차림에 나무지계를 진 형근이가 조심조심 산에서 내려온다.

형근: 게 길복이 아니냐?

길복: 아버님!

형근: 옳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그새 앓지는 않았나? 어디 다친데두 없구?

길복: 예, 그런데 성치않으신 몸으로 어쩔려구 이렇게...(서둘러 나무지계를 받아내리운다)

형근: 허리 쓰기가 좀 난것 같아서 지계를 지구나시켰더니 이제는 마른나무 반단두 겨우 지겠구나.

길복: 아, 땀나무가 없으면 해오라고 하실게지... 이 사람은 어딜 갔나요?

형근: 네 처말이냐? 아까 아래마을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니만 아직 안온게로구나. 시집오자 바람에 혼자 남아서 내 시중만 드느라고 그새 고생이 많았단다.

길복: 아버님을 모시는게 무슨 고생이겠나요.

형근: 그래두 그렇지. 참 너 오면서 구장 눈에 띄우진 않았냐?

길복: 아니요.

형근: 그랬으면 됐다. 들어가자. 남들처럼 겨울 옷도 변변히 못입구 산판에서 그새 얼마나 추웠겠니.

△ 길복이 아버지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간다.

△ 사이벽을 통하여 방안이 들여다보인다.

형근: 여기 내려와 앉거라. 아래목이 뜨스하구나.

길복: 아버님...(가지고 온 보꾸레미를 생각깊이 펼쳐놓는다.)

형근: 그건 웬 천이냐?

길복: 두달이 넘도록 가서 일해줬지만 손에 들고온건 겨우 이것뿐이에요. 아버님의 숨저고리를 하나 지으려고 사왔어요.

형근: 천을 살바엔 네 처한테 줄 물색치마감이 라두 한감 끊을것이지. 시집이라구 올 때두 뭘 하나 못해줬는데...

길복: 젊은 사람들은 아무때 해입어도 해입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아무리 못살아도 이렇게 험한 옷을 그냥 입고다니시게 하지는 않았을텐데 제가 그만 불효자식이다보니 아버님 한분 계신걸...(그의 누덕누덕 기운 숨저고리를 눈물겹게 어루만진다.)

형근: 빗지고 사는 신세에 이런거라두 출지 않게 하나 걸쳤으면 되는거지. 나야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구... 온전한 숨저고린 못입어두 손자나 한번 안아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길복: 저...아버님두 왜놈 《토벌대》 때 짐꾼으로 뽑혔다면서요?

형근: 너 그건 어떻게 아니?

길복: 저도 다 알고있어요.

형근: 누구한테서 벌써 들은게로구나. 하지만 걱정할것 없다.

길복: 그놈들이 짐꾼으로 끌고가서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하실려구 그래요?

형근: 나보다두 너나 우선 놈들 눈에 띄우지 않게 숯구이막에 올라가서 한 이틀 숨어있어야겠다.

길복: 아버님은요?

형근: 제몸 건사도 바로 못하는 이 늙은거야 설마 데려가겠나.

길복: 그러다가 강제에 못이겨 끌려가는 날엔...

형근: 사람은 소처럼 코를 꺾서 끌어두 아니 하면 못끌어내. 죽으면 죽었지 아무려면 내가

왜놈들을 도와서 유격대에 죄되는 일을 할것 같으나.

길복: 아버지...

형근: 김일성장군님께서 유격대를 거느리시고 이 북만땅에 오셨다니까 이제 이고장 왜놈들도 홍씨를 싸게 될게다.

△ 문풍지가 웅웅 바람에 운다.

형근: 해떨어지기전에 내 아래마을 길주집에 좀 다녀오마. 그 집에 장사하다 남은 물색천이 아직 있는지 알아보고 이 천과 좀 바꿔달라고 그래봐야겠다.

길복: 아버지, 그 천은 그냥 놔두시라요.

형근: 이런 일에선 나먹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천을 꾸러들고 문밖으로 나선다.)

△ 때마침 옥녀가 돌아온다.

옥녀: 아버지

형근: 지금 오냐? 어서 들어가봐라. 네 남편이 돌아왔다.

옥녀: 네?

△ 길복이가 밖으로 나온다.

△ 옥녀는 말없이 고개를 수그린다.

△ 그들을 서글픈 눈길로 정겹게 바라보는 형근.

△ 바람이 세차게 인다.

형근: 구장놈이 언제 또 고양이처럼 나타날지 모르니 몸이나 좀 더 녹이고는 숯구이막으로 올라가거라. 판생각일랑 말구(결연히 돌아서서 나간다)

옥녀: ...이왕 늦어오실바에야 왜 하필 오늘같은 날 오셨어요? 마을에선 젊은 사람들 모두가 《토벌대》를 따라가게 돼서 지금 막 야단들인데...

길복: 내가 오늘이라두 오길 잘했지.

옥녀: 네?!

길복: 아버지 혼자서 얼마나 속을 태웠겠소. 정 가야 한다면 차라니 내가 대신...

옥녀: 놈들을 따라가면 살아오지 못한대요.

길복: 그럼 어떻게 하면 종단말이요? 제 한몸 편하자고 아버님을 그 사지판에 끌려가게 해야 옳겠소? 어머니두 없이 나 하나를 키우느라고 고생만 해오시다가 늘그막에 골병까지 드신 아버님을 여생이나마 편히 좀 모셔보자고

했는데 아들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디...

옥녀: (돌아서서 흐느낀다.)

길복: 울지 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무슨 수가 생기겠지.

옥녀: 아버지 말씀대로 어서 숯구이막으로 올라가시라요.

길복: 그건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달리 의논해봐야겠소.

옥녀: 그럼 사람들이 보지 않게 방안에라두 어서...

길복:

△ 그들 집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갑자기 말말 굵소리가 울려오고 개들이 소란스럽게 짖어댄다.

옥녀: 무슨 일일가요?

길복: ...왜놈들이요.

옥녀: 네?! ...저기 구장놈이 이쪽으로 와요. 빨리 여길 피하세요. 어서요!

△ 왜놈들의 고향소리, 마을 사람들의 아우성소리 ...

△ 길복이 집뒤로 급히 사라진다.

△ 옥녀는 불안에 싸여 서성거린다.

△ 형근이가 천꾸레미를 그냥 든채 허둥지둥 달려온다.

형근: 왜놈들이 벌써 쓸어들어 짐꾼들을 끌어내는구나. 이걸 어떡허니?

옥녀: 아버지두 어서 여길...

형근: 네 남편은 어디 있냐?

옥녀: 방금... 저쪽으로 피했어요.

형근: 그랬으면 됐다. 놈들이 뭐라고 해두 머늘 앤 아무 소리 말아라.

옥녀: 아버지...

△ 구장이 왜놈수비대 오장과 함께 들이닥친다.

구장: 이 집엔 아들이 돈벌이 가서 없구 저 령감 뿐입니다.

오장: 령감상도 좋아.

구장: (형근에게 바싹 다가서며)부역 나갈 차비가 다 댔겠지? 군대에서 하는 일이라 사정이 달라져서 지금 곧 떠나야겠네.

형근: 나같은건 따라가야 도리어 짐이나 된다는데 왜 자꾸 이러시우? 보면 모르겠소?

구장: 이젠 또 갑자기 무슨 투정이야? 매 집에서 한사람씩은 예누리 없이 나가야 한다는걸 몰라? 형근경감 이름이 내 목록에 벌써 이렇게 올랐단말이요.

오장: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구장: 예, 예.

형근: 난 허리병이 심해서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 늙은이웨다.

오장: 병신인가?

구장: 원 병신이라니요. 오늘두 산에 가서 집채같은 나무짐을 해지구 썩썩 내려오는걸 내 눈으로 푹푹히 봤는뎡쇼.

오장: 그럼 거짓말이나 하는가. 나쁜놈의 령감... (구두발로 마구 차서 그를 쓰러뜨린다.)

옥녀: 아버지님(와락 달려가 불안한다)

△ 형근이 입에 피를 물고 간신히 일어선다.

구장: 자,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괜한 투정 말구 순순히 나서라구요.

형근: 난 못가겠소.

구장: 이 령감이 이게 죽고싶어 그래?

오장: 령감상이나 정말 못가겠는가?

형근: 난 두말하는 성미가 아니요.

오장: 뭇이?

△ 왜병들이 경찰이를 비롯한 마을 청년들을 총창으로 떠밀며 나온다.

△ 송씨와 마을녀인들이 아우성치며 뒤따라온다.

송씨: 경찰아!

경찰: 집에 가 계시다는데두요...(아직도 허까부러진 소리다.)

송씨: 피살 한되박 사다놓구 네가 어딜 간단말이나-

경찰: 할머니...

왜병 1: 빨리빨리 걷지 못하겠는가?

형근: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며) 여보게들... 도대체 가는데가 어딘지 알기들이나 하구 가나? 응?

구장: 아니?! 저 령감이 정말?

왜병 2: 야, 야,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 앞을!

오장: (발작하듯 소리치른다) 가만! 내 이제 너희들에게 황군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걸 보여줄테다.

옥녀: 아버지님...

오장: (총을 빼들고)자, 이 자리에서 죽어도 못가겠는가?

형근: 죽을바엔 차라리 내집 뜰안에서 죽는편이 낫다.

오장: 하지모도! 이놈을 저기 끌어내다 세우라!

왜병 1: 하! (형근이를 끌고 둔덕으로 오른다.)

△마을사람들 치를 떨며 웅성거린다.

옥녀: 아버지님...(울먹인다.)

형근: 겁내지 말아.

△ 바로 이때 집뒤에서 길복이가 불쑥 뛰어든다.

길복: 아버지님-

형근: 아니?! 네가 어쩔려구 여길...?!

옥녀: 여보...(말못할 괴로움에 겹싸여 목놓아온다.)

구장: 옳지. 길복이 네가 있으면서두 그랬구나.

길복: 난 방금 왔소.

구장: 방금? 그래 어쩔테냐?

길복: 내가 대신 가면 될게 아니요.

구장: 그렇다면 좋아... 아들입니다.

오장: 음, 아들새끼나 아주 효자다. 끌고와! (형근의 앞을 지나며) 령감상이나 아들덕에 사는줄이나 알라. (나간다.)

△ 마을청년들 왜병들에게 끌려간다.

길복: 아버지님!

형근: 이 녀석아, 네가 무슨 죄를 짓지 못해 이러느냐? 응? 차라리 내 앞에서 죽어라. 죽어... (아들의 뺨을 때린다.)

길복: 아버지님, 그럼 어떻게 해요...(울음을 씹어 삼킨다.)

형근: 어이구, 이 일을 어쩐단말이나.

△ 왜병 1 길복이를 재촉한다.

길복:(마당에 떨어진 천꾸레미를 옥녀에게 집어주며) 이 천으로... 아버지님의 숨저고릴... 내가 없더라도 아버님을 부디...

옥녀: 여보...

왜병 1: 빨리빨리...

구장: 잠깐만 좀 계십시오. (길복에게)천이랑 사온
걸 보니까 돈냥이나 좀 번것 같은데 내 빚은
안물고 그냥 가겠냐?

길복: 여보시오. 당신두 사람이요?

구장: 가는놈은 가는놈이구 나야 손해볼 필요
없지. 그 천이라두 이리 내! (천꾸레미를 뺏
어 들고 횡하니 달아난다.)

왜병 1: 좋은것이, 좋은것이(홍물스럽게 웃으며
길복이를 끌고나간다.)

형근: 길복아-!

길복: 아버지님-!

△ 눈보라가인다.

형근: (허겁지겁 따라가다가 눈우에 쓰러지며
절규한다.)

네가 제죽을 길을 모르고 가다니... 누데기에
싸인채 에미를 잃구 동냥젖을 먹으면서 자
란 네가... 이젠 다 자라서 한살림 꾸려놓고
옛말하며 사는걸 보는가 했더니 왜놈들한테
이렇게 빼앗기고 만단말이나... 하늘도 무심
하구나. 길복아-!

△ 옥녀는 애처롭게 울고만 섰다.

△ 눈보라가 울부짖는다.

△ 방창이 들려온다.

방창:

아버지를 대신하여 떠나는 아들
죽음이 기다릴줄 몰라서 가라
부모 위한 그 마음 지극하건만
효성할 길 달리는 없단말인가
아 원통하다 어데로 가나
잡들었던 눈보라도 목놓아우네

△ 방창곡에 무대는 눈덮인 어느 산골짜기로 변
한다.

△ 이틀이 지난뒤.

△ 형근이 실성한듯 아들을 찾아 헤매는데 옥녀
가 울먹이며 그의 뒤를 따라섰다.

형근: 길복아-! 길복아-! 어데 누워있는지 대담
이라두 한마디 좀 하려무나. 길복아-!

△ 까마귀 울음소리만 청승맞게 들려온다.

옥녀: 아버지님, 이젠 제발 내려가시자요.

형근: 네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채로 눈우에 굳
어져있을텐데 시체라도 찾아서 물어줘야지.
까마귀밥이 되게 그냥 내버려두겠냐.

옥녀: 마을에선 짐꾼들도 《토벌대》와 함께 다
잘못됐다고 하지만 온 꼴안을 훑어봐야 왜놈
들 죽은것밖에 없는데 또 어디 가서 찾는다
고 그러시나요.

형근: 이 너석이 내 속타 죽는걸 보자고 그랬지.
그렇지 않다면야 환장을 했다고 제발로 나서
서 왜놈들을 따라왔을가...

옥녀: 아버지님, 집으로 내려가시자요, 네?

형근: 애비생각은 못할망정 백성된 도리나 지키
다가 왜놈의 총알에 맞아죽었대두 내 속이
이렇게 타들진 않을게다.

△ 옥녀 나무밑등을 불안고 안타까이 흐느낀다.

△ 나무가지에서 눈가루가 떨어져 그의 들먹이
는 어깨우에 내려앉는다.

△ 저 멀리 산릉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형근: 며늘애야, 울지 말구 밝은 눈에 거기나 좀
봐라. 저 앞산에서 무슨 내굴같은게 나지 않
냐?

옥녀: 연기에요... 저기 혹시 유격대가 머물러있
는게 아닐까요?

형근: 유격대라니?

옥녀: 틀림없을거예요. 《토벌대》놈들은 오늘
아침에 다 녹아갔구 누가 그럼 저 산에서 연
기를 피우겠나요.

형근: 글썽 그럴것 같기는 한데...

옥녀: 아버지님,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
기 가보면 꼭 알수 있을것 같어요. 가보시자
요.

형근: 유격대가 저기 있다 한들 제 자식이 왜놈
들을 도와나섰었는데 내 무슨 체면으로 그분
들앞에 얼굴을 내밀겠냐.

옥녀: 정 그러시면 저 혼자서라도 가서 딱히 알
아보고 오겠어요.(서둘러 나간다.)

형근: 며늘애야-! (뒤따라 머뭇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 그의 걸음을 따라 배경이 흘러간다.

△ 무대는 다시 수림이 우거진 산중턱으로 변한
다.

△ 같은 시각.

△ 멀지 않은곳에서 출판이 벌어졌는지 손벽장단에 맞춰 하모니카소리가 흥겹게 들려온다.

△ 길복이 그쪽은 아랑곳 않고 혼자 시름에 잠겨 서있는데 경찰이가 달려온다.

경찰: 길복인 여기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해?

길복: 경찰이두 춤을 쳤나?

경찰: 유격대원들이 자꾸 청해서 한바탕 쳤더니 속이 후끈후끈한게 좋기만하다.

길복: 옛그제 마신 술맛보다두 더 좋은 모양이구나.

경찰: 아무러면 웃으면서 추는 춤맛을 눈물에 섞어 마신 그 술맛에 비하겠니.

길복: 우린 여기서 좋다고 춤을 추는데 집에서 들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경찰: 넌 또 집생각을 하했구나. 집은 집이구, 이제 저 오락회가 끝나면 유격대는 여기서 멀리 떠나간다는데 우리 둘이서 장군님께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

길복: 유격대에?

경찰: 왜?

길복: 그렇게 되면 집에서는...

경찰: 또, 또 아버지 모실 일이 걱정돼서 그래?

길복:

경찰: 네가 글썽 아버지밖에 모르는 효자라는건 나두 알아. 그렇지만 네가 이때껏 집에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를 호강시킨게 뭐냐?

길복: 그렇긴 하지만...

경찰: 너 색시 떨어질걸 생각해서 그러는건 아니겠지?

길복: 넌 별소리 다 하누나.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난 사실 아버님이 몇날 더 앓아 계실것 같지 못해서 그래.

경찰: 다 죽게 됐던 목숨이 살아나서 유격대원이 됐다면 너의 아버지 너무 기뻐서라도 더 오래 사실게다. 난 너처럼 집에 색시라도 하나 얻어다 놓고 왔으면 걱정이 없겠다.

길복: 정말이지 너야 나보다두 사정이 더 딱하지 않니?

경찰: 딱하긴 뭘 딱해. 저 많은 유격대원들은 뭘 집걱정이 없어서 싸움판에 나섰을것 같애?

△ 한 유격대원이 지나가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푸점 좋게 나선다.

대원 1: 그건 동무의 말이 옳소. 나두 저 동무와 똑같은 처지요.

경찰: 길복이 들었지?

길복:

대원 1: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린 나라를 찾자고 왜놈들과 싸운단말이요. 동문 집에 홀아버님 한분 모시고있소?

길복: ...예.

대원 1: 글썽 그런것 같애.

경찰: 색시두 하나 얻어다왔지요.

대원 1: 나하구 꼭 같구만.

길복: ... 예?!

대원 1: 동무두 나만큼이나 아버지를 꽤 생각하는가본데 망국노의 굴레를 쓰고서야 아들과 실인들 제대로 할수 있는가? 천만에.

경찰: 저... 우리두 장군님께 말씀드리면 유격대에 들수 있겠지요?

대원 1: 들수 있구말구. 우리 유격대는 인민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요. 인민이란 구체적으로 말해서 뭐가? 저 동무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다 그 가운데 속한단말이요. 알만하오?

경찰: 예.

대원 1: 동무들은 장군님께서 신음하는 인민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모 처자 모두를 얼마나 극진히 위하시구 사랑하시는지 아직 다는 모를게요. 그렇지만 이제 입대해서 나처럼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지내느라하면 아버지요 뭐요 해두 그저 장군님만 믿고 따라야겠다는걸 인차 알게 되오.

길복: 유격대 어른...

대원 1: 어른은 또 무슨 어른? 동무와 같은 처지라는데... 그래 뭐요?

길복: 거기선 유격대에 들어온지 얼마나 됐나요?

대원 1: 난 입대한지 석달밖에 안됐소.

길복: 오래지 않구만요.

대원 1: 그래두 난 벌써 전투에 여러번 참가했소. 말하자면 구대원이지. 한번은 내가 기관총을 메구 우리 마을에 들렸했는데 이 어깨가 한 뼘뽕 올라가더구만.

경찰: 기관총을 맡아다루는가요?

대원 1: 아직 기관총수는 못됐지만 그날 난 위신 있게 다른 동무의 기관총을 하나 빌려서 메구 갔댔소. 우리 아버님이랑 색시랑 좀 보란듯이말이요.

경찰: 거 볼만했겠는데요.

대원 1: 어서 가서 장군님께 말씀드리보우. 꼭 받아주실거요.

경찰: 예. 길복이. 자자구.

길복: ………

△ 경찰이 길복의 팔소매를 잡아끌며 달려간다.

△ 유격대 중대장이 그들을 바라보며 나온다.

중대장: 저 동무들한테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줬길래 저렇게 발뒤꿈치에 바람들이 일었소?

대원 1: 예, 정치사업을 좀 했습니다.

중대장: 정치사업?

대원 1: 저기 뒤따라가는 동무가 신통히도 입대하기전의 저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대로 말해줬더니 당장 입대하겠다는겁니다.

중대장: 그거 아주 실속있는 정치사업을 했구만. 그런데 준호동문 요새 자면서도 아버지걱정을 한다면서?

대원 1: 제가 잠결에 무슨 실없는 소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마을에 들리셨을 때 앓고있는 저의 아버지에게 그토록 귀한 약까지 쓰도록 해주시구 지금도 저를 보실 때마다 늘 걱정해주시는데 제가 무슨 걱정을 또 하겠습니까.

중대장: 옳소. 그건 누구나 다 같은 심정이요. 우린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의 운명도 다 김일성장군님께 의탁하고있소.

△ 이때 보초를 서고있던 다른 한 대원이 달려온다.

대원 2: 중대장동지, 보초선에서 웬 로인 한분을 단속했는데 딸인지 며느리인지 젊은 아주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중대장: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대원 2: 아무리 물어봐야 겁에 질려 떨기만 하구… 그래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 형군이 옥녀와 함께 주춤주춤 들어선다.

중대장: 어디서 오신분들입니까?

형군: ………

중대장: 겁내시지 말고 어서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로 이 산속에 들어오셨습니까?

형군: 저… 죄스럽구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아들녀석이 《토벌대》에 짐군으로 끌려왔다가 그만… 그런데 시체마저 찾을길 없구 해서…

중대장: 로임님은 그럼 석양촌이란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형군: 아니 그걸 어떻게…?!

중대장: 그 마을에서 짐군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형군: 예?!

중대장: 아드님의 이름이 뭐니까?

형군: 길복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대원 1: 중대장동지, 길복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동무입니다.

중대장: 그렇소?

대원 1: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급히 나간다)

형군: (옥녀에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옥녀: 아버지.

형군: 죽을 죄를 짓긴 했어두… 네 남편이 살아있다니… 우리 함께 잘못을 빌자.

중대장: 로인님, 《토벌대》의 총칼에 못이겨 끌려온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사실 왜놈들이 짐군들을 맨 앞줄에 내세우고 접어들 땐 우리도 안타까왔습니다. 총을 쏘면 짐군들부터 상하겠지, 그렇다고 가만 있자니 짐군들을 방패삼아 왜놈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들지… 그러나 짐군들은 머리칼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구출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몸소 위험을 무릅쓰시고 경위중대와 함께 놈들의 옆구리를 들이치셨으니까요.

형군: 아니, 그럼 장군님께서 친히…?!

△ 길복이 경찰이와 함께 달려온다.

길복: 아버지!

형군: 이 녀석아, 네가 유격대를 돕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죄되는 노릇을 하고도 장군님의 구원을 받았단말이나? 엉?

길복: ………

경찰: 길복이 아버지, 너무 그러시지 마시라요. 오죽하면 길복이가 왜놈들을 따라왔겠나요.

형군: 그래 넌 장군님께 잘못을 빌구 고맙다는 인사두 바로 올렸냐?

길복: 아버지, 저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유격대에 들기로 했어요.

형근: 네가 유격대원으로까지 된단말이나? 세상에 ...세상에 이런 꿈같은 일이... 며늘애야, 넌 왜 잠자꾸 서있기만 하나.

옥녀: ... (말없이 얼굴만 붉힌다.)

형근: 그래 넌 좋으냐 어떠냐?

경찰: 원 아버님두, 잠자코 있으면 좋다는건데 사람들앞에서 그렇게 꼭 짝어 물으시니까 보시우, 얼굴만 빨개지는걸...

△ 모두 즐겁게 웃는다.

형근: 잘 생각했다. 응당 그래야지. 장군님이 아니시었다면 네가 목숨인들 붙어있겠냐. 집근심은 말구 넌 장군님을 끝까지 따라가거라.

길복: 아버님, 알겠어요.

형근: 네가 장군님을 모시고 나라 찾는 싸움길에 나서는데 내가 너한테 줄거라곤 아무것도 없구나. 이럴줄 알았으면 짚신이라두 몇켄레 삼아왔을걸... 내 이 숨저고리나 꺼입고 가거라. (자기의 낡은 숨저고리를 벗는다.)

길복: 아니, 그걸 벗으시면 어떻게 해요?

형근: 내 걱정은 말아라.

길복: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저는 출지 않아요.

형근: 이 애비의 마음뿐이니 그저 그런줄이나 알구 받아라. 자, 어서.

길복: 아버님... (뜨거움을 삼키며 받아안는다.)

△ 이때 유격대의 나팔소리가 울린다.

중대장: 저희들 모이라는 나팔소립니다.

로인님도 같이 가십시다.

형근: 어서들 먼저 가보시우.

중대장: 그럼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형근: 너두 떨어지지 말구 어서 가보려무나.

길복: 예.

△ 경찰이만 남고 모두 급히 나간다.

옥녀: 아버님, 날씨가 몹시 찬데 이거라도 목에 두르세요(자기 목도리를 푼다.)

형근: 난 일없다. 한거죽 벗었는데도 추운줄 모르겠구나.

경찰: 길복이 아버지, 마을에선 지금 어떻게들 하고있나요?

형근: 온 마을이 초상난 집같은게 말해 뭘하겠나. 구장놈은 《토벌대》가 녹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한짓이 켜겨서인지 부랴부랴 성시로 내빼구 없네.

경찰: 그래요?

형근: 그런데 경찰인 왜 안가고 그러구 썼나?

경찰: 난 집으로 돌아가는 축에 속했으니까요.

형근: 자넨 유격대에 들지 못한게로구만.

경찰: 사실은 내가 길복이보다 먼저 나서서 유격대에 들자구 했는데 장군님께서는 우리 집에 나 많은 할머니와 철부지 동생들만 남아있다는걸 아시구 내가 집을 떠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누가 당장 그들을 돌봐주겠는가고 걱정하시면서 자신께서 글썽 내 뭍까지 꼭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겠나요. 그래서 난...

형근: 장군님께서 어찌면 그리도 도량이 넓으시구 인정이 깊으시구... 과연 이 나라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주실 위대한분이시네.

경찰: 길복이 아버지두 이제 저기 가면 장군님을 만나뵈올수 있어요.

형근: 며늘애야, 우리도 어서 가서 장군님을 찾아뵈자.

옥녀: 네.

△ 그들이 나가려 할 때 유격대 중대장과 함께 털외투를 소중히 안은 길복이가 다시 들어온다.

길복: 아버님 ...

형근: 웬일이냐?

길복: 전 아버님에게 온전한 숨저고리 하나 해드리지 못한채 걱정만 끼치고 왔는데 장군님께서 이 털외투를...

형근: 뭐라구?

길복: 장군님께서는 제가 아버님의 숨저고릴 차마 입을수가 없어서 그냥 손에 들고 대렬에 서있는걸 보시자 저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는게 아니겠어요. 그러시고는 ...그러시고는 ... (목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한다.)

중대장: 장군님께서는 길복동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숨저고릴 입지 않고 들구만 있으면 아버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숨저고리가 비록 낚기는 했으나 그 갈피갈 피에는 아버님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하루빨리 나라를 찾아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소.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기도 하오. 그걸 잊지 말고 아버님을 편히 모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껏 싸워야 하오…

그러시고는 아버님이 숨저고릴 벗어놓고 가시면 가난한 살림에 어디서 이런저라도 또 생겨 입어보겠는가 하고 하시며… 자신께서 입고계시던 이 단벌 털외투를 벗어주시면서 아버님에겐 이걸 입고 가시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형근: 예 ?! … 장군님께서 그러신다구 네가 그럼 이 털외투를 그냥 받아안고 왔단말이나 응? 이 철없는것아…

길북: (흐느끼며) 저도 이것만은 안된다고 몇번이나 거듭 말씀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장군님께서서는 아버님이 숨저고리 하나없이 추위에 떨며 고생하실걸 생각하면 자신께서도 이 나라의 젊은 아들로서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면서 늙으신 아버님이 숨저고릴 갑자기 벗어놓고 감기에라도 걸리시면 어찌겠는가 하고 하시며 우선 이 털외투부터 먼저 가져다 입혀드리라구 저를 이렇게…

형근: (털외투를 쓸어만지며) 장군님! 벽촌의 이 늙은것 하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도 극진히 돌봐주십니까. 저희들에겐 뜨스한 아래목이라도 있지만 산에서 싸우시는 장군님겐… 눈보라 몰아치는 북만의 이 험한 산관에서 털외투마저 저에게 벗어주시고 장군님께서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 모두 감격에 목메여한다.

중대장: 장군님께서 모처럼 주신건데 감기 드시지 말고 어서 입으십시오. 그래야 장군님께서 마음을 놓으실게 아닙니까.

형근: 장군님!

△ 길북이와 옥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장군님의 털외투를 아버지에게 소중히 입혀준다.

△ 방창이 들려온다.

방창:

눈덮인 저 산너머 찬바람 불어와도
가슴속엔 뜨거운 열이 가득차오르네
온 나라 인민들의 아들이 되시여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강산도 눈녹이네

형근: 세상에 부모를 둔 자식들의 효성을 모두 합한들 장군님의 이 은정에야 어찌 비기겠나.

길북: 아버지!

옥녀: 아버지!

형근: 너희들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오직 장군님만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게 바로 이 애비를 위하구,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길이니라.

길북: 꼭 명심하겠어요.

△ 만세소리 들려온다.

중대장: 로인님, 저기 장군님께서 로인님을 만나시려고 이리로 오십니다!

형근: 예?!… 장군님!

△ 모두 장군님 오시는쪽을 우러른다.

△ 눈꽃이 핀 수림속으로 찬란한 해살이 비쳐든다.

△ 음악이 고조되면서 설화가 들린다.

설화: 세월이 흘러 세대는 바뀌고 또 바뀌어도 부모를 둔 자식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이야기를 우리는 대를 이어 전해갈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또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게…

△ 서서히 막이 닫긴다.

아름다운 강산 외 1편

서봉제

차창가에
이슬은 구울고
날 밝는 차창밖에
생각은
앞서만 달리시는가

차창에 스치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노을이 물드는 백두의 이 새벽
마음은
끝없이 깊어만지시는가

밀림속 굽이굽이
어버이수령님 차로 달리시는 앞길에
고산의 구름국화 망울을 터치고
하얀 물싸리꽃도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새 푸르른
물자작 숲너머
노을에 싸인 구름발을 허리에 감은채
새벽안개바다속에
포태산은 머리를 든다

어디나
새벽이면
사령부의 창문 먼저 열으시며
동트는 조국의 이 산천
한품에 안으시던
그날의 그 밀영은

저기
베개봉기슭에 설레이는가
산천의 끝없는 아름다움속에
겨레의 밝은 웃음 피워보시며
수령님 품에 안겨 출렁이던
삼지연호수의 맑은 물소리

조국강산을 비껴담은
그 물소리 가슴에 새기고
눈보라 수십만리
혈전의 불바다를 넘어

헤쳐오신 혁명의 길
걸음걸음
잊지 못할 감회도 깊으시고
흘러간 세월의
가슴아픈 추억도 깊으시여
차창에 노을은 비끼는가

타는듯 물드는
해돋이의 산등판에
조용히 차를 멈추시고
아, 이 아침 어버이수령님
백두산을 바라보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여라

...이런곳에 와보아야
조국의 아름다움을 알수 있고
이런곳에 와보아야
조국이 위대하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오늘도 못잊으시여
밀림의 그날을 못잊으시여
항일의 그 시절처럼
이제면 더 걸으실길 어디이시랴
이제면 더 찾으실곳 어디이시랴

풍찬로숙의 긴긴밤을 이어
타오르던 우등불빛도
이 땅의 아름다운 무지개로 피어나고
밀림속의 단 한겹 천막도.
오늘은 락원의 이 강산에
행복의 은빛 추녀로 하늘을 덮었나니

우리 수령님
험한 길 헤쳐내리시고
우리 수령님
인민의 행복 안고 오르시는
이 새벽의 밝은 미소를 담아
아름다운 강산이여!

오, 백두산아
위대한 태양을 받아들여올린
네 품에서

이 세상 아름다움의 절정우에
인민의 기쁨이 함께 피어나는

나의 조국은 태어났어라!

무지개 비끼였소

한소나기 지나더니
건뚛 하늘이 개였소
씻은듯
밀림은 검푸르게 설레이고
물안개 서서히 피어오르오

저기 보소-
구름다리를 놓은듯
백사봉에 비낀
령롱한 칠색무지개
산관의 무지개는 또 얼마나 아름답소

빨간 머리수건
록음속에 날리며
아지따기공처녀들도
이때라
잠간 일손을 멈추었소

아름드리 장대목을 베이던
기계톱소리도 멎었는가

벌목공사나이들도
이때라
산관의 황홀경에 취했소

아, 이 좋은 풍경에
자랑찬 로동의 위훈을 안고
밀림의 정복자
우리 사는 일터는 좋아

이 아름다운 배경에
벌목공들의 노래가 있듯
이 아름다운 무대에
영원히 막을 내릴수 없는
우리의 들끓는 산관!

저기 보소-
황홀한 백사봉의 무지개
충성으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우리 마음 피어났소
아름답게 비끼였소

5 월찬가

김학렬

신록의 새옷을 입은
5 월은 참으로 좋구나

춤을 추는
저 버드나무 아지아래
저 반짝이는 물구슬도
황금비단을 짜는 빗발과 함께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불러라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노래
우리의 이 기쁨, 이 자랑

5 월의 찬가를 소리모아 불러라

푸른 하늘
푸른 산과 들
푸른 새잎에 돋는
푸른 새 희망, 우리의 신심은
봄바람처럼 신명나게
누리를 달리누나

우리 지부 동포들의
단합된 힘의 파시인
오늘의 이 들놀이를 축하하는듯

총련 우리 조직의
뜻깊은 신생을 축복하는듯
5월의 푸른나무들도 손들어
친근한 인사를 보내누나

울긋불긋 피여난
저 진달래 송이송이도 반가웁게
우리의 마음인듯
오각별 찬란한 기폭을 수놓는구나

갑자기 짜여진
분회대항달리기, 즐거운 환호속에
힘껏 내달려보는 이 가슴의
높뛰는 고동의 시원함이여
땀방울도 매혹의 웃음을 짓는
저 청춘들의 번득이는 이마여

이역의 험한 길을
생각해보면 실새없이 달려들왔어라
눈내리는 아침,
바람 부는 야밤에도
오직 조국통일을 위하여
래일을 위하여

그것은 언제였던가
비오는 하꼬네의 고개길
《신보》나르는 먼 산길
빼라 뿌리는 역전 변화한 거리를
걸고 또 달리던 날은...

그 아무리 원썬들이
검은 마수를 뻗쳐도
심장에 간직한 눈부신 빛발로
우리 걸음마다 어둠을 가지고
찬바람을 헤쳐왔건만

모진 비바람이 불기도전에
어두운 뒤고방에서
벌벌 떠는 겁쟁이는 누구냐

원썬들이 손도 쓰기전에
저편으로 도망을 처간
얼빠진자는 그 누구냐

배신과 협잡의 잡탕거리에서도
조국을 우러러
주체의 기발을 우러러
오로지 깨끗함과 참됨을 찾아
달리고달려온 투쟁의 길

이 길우에서
우리는
진실한 생의 의미,
진실한 청춘의 의미로
가슴뜨거이 아로새겼어라

걸음걸음마다 표독스레
원썬들이 덤벼들고
고난이 앞을 가로막아도
자주와 존엄을 위한
영광찬 투쟁의 길

이 길우에서
참된 삶과 량심인
우리의 사람들은 더욱 불어나고
우리의 노래, 우리의 부름은
날로 역세여지고 높아만갔어라

눈바람을 뚫고
갇은 신고를 이겨나가는
충성의 우리 결심은 더욱 굳어지고
승리와 량만의 빛발은
날이 갈수록 가슴가슴에 부풀어
온 세계에 찬연하여라

신생의 계절
힘 차넘치는 청춘의 계절
아, 5월은 참으로 좋구나

강물의 흐름 따라 영원할 이야기

로승모

1

언제나 설레이는 참나무숲
천년 거목들의 뿌리를 씻으며
깊고낮은 골짜기
옥돌들을 굴리며
흘러 흘러온 두메산골의 강
고치강기슭에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 나라엔 강이 많아도
우리고장 강이 으뜸이라고
사람들은 깨끗한 강기슭에 사는 행복을 말했다

낮에는 푸른 하늘 흰구름을 담아 흐르고
저녁엔 은빛 별빛을 안고 흐르는
그림같은 강물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포전에서 돌아오는 너인들이 모여앉아 이야기했고
저 흰바위우에 앉아 빨래질하는
할머니들의 방치질소리가 얼마나 좋으냐고
꿈많은 아이들도 어른 흉내 내더니

물안개 더더욱 짙은 봄
여울소리 더더욱 높던 날에
경사가 났구나 산촌이 들쩍하는 크나큰 경사가...
먼길 가시던 어버이수령님
마을 늙은이들과 함께 강기슭을 걸으시네

저 멀리 건너오는 나루배며
물을 차는 제비들의 재롱도 보시며
모래볼에 발자욱 찍으시던 수령님
살고싶은 고장이라고
방금 치하라도 해주실듯
조용히 생각에 잠기시더니
- 이 강에는 무슨 고기가 많습니까?
물고기도 키워내고 전기도 일구면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될것입니다

저녁해는 나무숲에 걸리고
하루종일 주절대던 여울물소리도
깊은 정적속에 잠기는데
가셔야 할 길 떠나시지 않으시고
강기슭을 거닐고 또 거니시는 수령님
그이의 품속에선 후대들에게 넘겨주실
사랑의 젖줄기들이 흘러가고있었다

2

발파소리 고치강기슭에 메아리친다
맵짠 눈보라속에서도
달포나마 기계소리 우렁거리더니
그 발파공이 숨쉴을 보였구나
소환장 말고 아들이 지리책에서
처음 듣던 강이를 찾아내여 떠나왔다면
름름한 발파공이 고치강을 흔드누나!

그날의 수령님
흰바위우에 올라서시여
저 멀리 손짓하시며 가리키신곳
그 자리에 산악같은 언제를 일떠세우려
작암기들이 밤세워 용을 쓰더니
이 아침 산골을 들었다놓는 저 발파소리!

집집의 문들이 분주히 여닫기더니
사람들 부르며 대답하며 웨치는 소리
닭들은 쾌를 차고 날아내리고
놀랜 수리개 하늘높이 솟구쳐오른다
송아지떼 네굽 안고 뛰고
추녀끝마다에선 고드름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고치강기슭이 제일 살기 좋다고
한평생 자랑만 해오던 왜나무집 로인
자꾸만 자꾸만 두눈을 숨벅인다
《큰것이 태여날 징조로다
산천이 들쩍하누만...》

3

그렇다 큰것이 태어나리라
크고도 큰것이 태어나리라
생겨서 억년
지니고 태어난 아름다움만으로는 모자람이 있어
그대로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음을
수령님 그날에 깨우쳐주시더니
이 두메산골 외진땅에
전변의 새날을 불러주셨음이여!

그 뜨거운 사랑 위대한 손길아래
이름 못듣던 고치강이
온 나라의 강줄기들과 더불어

높다란 언제를 허리에 두르고
은빛 고압선을 봉우리마다 드리우며
전기를 쉬임없이 일구리
가없이 펼쳐진 산중의 바다는
석달 장마에도 푸른빛 잃지 않고
은어떼 쫓는 두메아이들의
고운 종아리를 씻어주리니

유구한 세월 흐르고흐를 너 두메의 강이여!

바다에 이르르면
곳곳의 강줄기들과 합쳐지며 이야기하라
그날의 수령님
네 기슭에 찍으신 불멸의 자욱에 대하여!
마지막 치산치수를 끝낸 내 고향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제 성미대로 살아온 산과 강을
길들여놓은 우리 조국의 모습을
전하라 온 세상에, 너의 도도한 흐름소리로!

백두산의 산제비

전계승

새벽하늘 물들이며
불타는 구름바다위에
불끈!
태양이 솟아오를 때

이 강산을 밝히는
장쾌한 해돋이를 안고
백두의 하늘에 산제비들이 날은다
희망에 솟구치며
기쁨에 나래치며

노을이 비긴
천년설우에
노란꽃 만병초의 향기를 그윽며
장군봉을 넘나드는
너의 나래, 랑만의 끝은 어디

천길 벼랑아래
구름을 뚫고 살같이 날아내려
천지의 물에 깃을 적시고
상상봉의 하늘가에 다시 솟구쳐올라
천리밀림을 굽어보는
백두산의 산제비야

깊고깊은 밀영의 밤을
지새우신 장군님
아침을 맞으시며 창문을 여실 때
해빛을 기다리는
겨레의 눈물겨운 사연을 아뢰이며
그이의 품에 날아들던 제비 아니냐

깃박힌 온 겨레를
그 한품에 안으시고

해방의 높은 뜻 밝히시는 장군님
위대한 태양의 그 빛발 안고
조국의 창공으로
날아가던 그 새들이 아니냐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장엄한 노을이
가장 먼저 비쳐오는 절정이건만
솟는 해도 더디다고
해마중가며
부푼 가슴 솟구는 산제비

별많은 한밤중
대양만리에 있어도
그리워 잠못이른
이 아침을 그리며
구름 넘어 기어이 날아온 그 날을
만리런가 천만리런가

날으는 천만리의 한순간이여도
세상 가장 아름다운
백두산의 해돋이!
해돋이 하늘높이 나래치는 거기서만
별처럼 빛나는 삶을 찾는
신념의 나래 끝없구나

우주공간에 그 나래 작아도
온몸으로
태양을 받드는
산제비, 산제비
내 마음 날고싶구나
백두산의 산제비 너처럼, 너처럼...

평범한 나날에

박희구

하늘가에
피어나는 노을을 바라보아도
출근길에 나를 이끌어주는
자애로운 미소같이 안겨와라

설레는 바다가를 걸어도
저 맑은 물결속에
아침해살이 스며들듯
이 가슴속에 흘러들어
속속들이 비쳐주는 그대 빛발이어

무심히 바라볼수 없구나
하늘과 땅 바다
나를 둘러싼 밝고 귀한 모든것
무심히 드나들수 없구나
나의 집문턱
쇠내풍기는 구내길도

나의 기대결에
찾아오는 외국의 벗들
부러운 눈길로 나의 일손 쳐다볼 때면
온 세상앞에 나를 내세워주는
당의 뜨거운 손길 느껴져라

때로는 내 천진한 아이되더라
그대 어느 파원 어느 바다가에서
나를 위해 잘 익은 파일을 고르고
나를 위해 펄펄 뛰는 물고기 옮겨놓는듯

퇴근길 가방을 받으며
꽃같은 아이들 내 품에 안겨들 때
못견디게 가슴부풀더라
행복도 미래도
내 혼자 독차지한것 같아

받아안은 사랑이 뜨거워도
언제나 당을 우러르는 마음

내 스스로에게
그 몇번 물었던가
사랑만을 받으며
평생 살아야 하는가

조국의 무게를 더해가며
내 쌓아가는 강철
산악을 이루어도
그대 사랑에 비기면
그것은 한갓 모래알같이

바치는 충성이 모자라도
언제나 그대앞에 머리숙여지는 마음

별많은 하늘처럼
나를 품어주고
태양의 빛발로 빛내여주는
한없는 그 은혜로움이여

자랑차노라
나의 손에 쥐여진 이 마치고
누리에 빛발치는
그대 붉은 기폭에 새겨주었나니

아, 평범한 나날에
받아안은 사랑이 뜨거워도
당이여, 그대 생각
바치는 충성이 모자라도
당이여, 그대 생각

하늘에서 별을 떼어낼수 없듯
폭풍도 우뢰도
그대 사랑의 품에서

순간도 나를 떼어낼수 없으랴
언제나 당을 따르는 이 마음을!

당 비 서

석광희

이젠 누구나
다 안다
눈내리는 정문가에
신발터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지금 들어서는지

그리고 보기만 해도
알수 있다
얼굴에 병근 웃음 숨기지 못하고
공장뜨락에 성큼 들어섬은
오늘도 새 과업 받아안고 오는것인줄

그 걸음걸이
얼마나 더 켜어지는것이나
기쁨에 넘친 두눈이
저리도 빛나는
우리 공장 당비서

이럴 때마다
문득 치미는 생각
아직 한번
우리는 본일 없구나
자기의 일을 두고 기뻐하는 그들
더우기야 볼수 없었구나
자신의 일로 하여 낮빛이 흐려지는것을

애오라지
당에 기쁨을 드리었을 때
천진하고 순박한 아이처럼
그 기쁨을 감추지 않았고
당이 심려하는 문제를 남겨놓고는
편한 잠 잘수 없었거니

언제나 그 마음으로
같이 손을 적시고
같이 어깨를 들이밀며
억년 드눌지 않을 기동도
공장지붕도 안아올리지 않았던가

그가 옆에 있으면
설계실의 밝은 등불아래
새 기계의 도면을 치며 지새운

긴 겨울밤이 긴줄 몰랐고
함께 맞은 그 새벽이
언제나 보람차고 즐겁지 않았던가

공장의 구내길이 비좁게
쏟아져나오는 기계 하나하나를
검사공보다 먼저 만져보고 쓸어볼 때
당에 드리는 기쁨을
자신과 집단의 가장 큰 기쁨으로
첫자리에 놓는 그 진정이 가슴치거니

간절한 소원을 안고
말하는 그의 한마디
내딛는 그의 한걸음속에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고
마음도 자라고

별많은 밤
바람은 차도
기중기꼭대기에서 노래부르며
나사못 한번 더 조이는 나날에
우리의 충성도 키워졌더라

아, 때때로
직장과 직장을 돌아보는
그의 모습
말은 안해도 사람들은 다 안다

그렇다 심장으로 느낀다
나이도 다르고
성미도 저마끔인 백천의 대오를
하나의 숨결로 뛰게 하며
충성의 한길에 세워줄
그 한생각에 잠겨있음을

당중앙위원회의 큰 뜨락에 잇닿은
이 작은 공장의 뜨락을 지켜
십년을 하루같이
한생을 그 십년같이
당을 우리러 변함없는 당일군
우리모두를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로
언제나 밝게 꽃피워주어라

출강전 그들의 마음은... 외 2 편

계 훈

출강종을 울렸노라!

아슬한 로대우 쇠란간 기대고
말없이 담배불 반짝이는
지금은 용해공들의 출강전 한때

그렇게 통담을 즐기던 이들이건만
이 시각 건네는 말 한마디 없고
이따금 출강구 터치는 정소리만이
응글은 전기로의 동음에 대답을 할뿐

평생 담배만은 안배우리라던
제대군인 그 동무도
이 시간을 기다리기엔 숨결이 막혀
담배 한대 붙여물고야마는
지금은 출강전 한때

쇠장대 틀어잡고
쇠물을 꿰어가던 그 시간에 비기면
이 시각이 얼마나 짧은것이라만
용해장의 그 모든 시간을 틀어잡고
천년인듯 흐르는 출강전 한때

다는 모르리라!

이 시각 위대한 수령님의 책상우에
놓여있을 강철일보-
아, 거기에 한시 빨리
강철공의 큰 숨결을 피여올리고싶은
용해공의 불같은 마음을

지금-
마그를 다저넣은 출강구에
번쩍이며 파고드는 쇠장대
쇠장대나 출강구나
한초 한초 죄여가는
용해공들의 가슴!

아, 결전을 앞둔 병사마냥
폭풍 불려 심장의 박동을 높이는
출강전 한때는
강철공들 큰 숨결이 하나로 합쳐지는 때!
조국앞에 승엄한 마음을 터놓는 때!

쇠물은 꿰고 또 꿰고

처녀는 울고있었네
배전실 창가에 말없이 앉아
배전공 그는 울고있었네
한해도 마지막날 설날새벽에...

창유리에 비껴드는 빨간 쇠물빛
빨가니 익은 동실한 두불에
방울방울 맺혀있었네
반짝이는 이슬!

어이된 일인가
건네는 말에도
고개만 숙이고 말없던 처녀
웃으며 새해의 첫인사를 했더니

눈물어린 눈으로 바라만 볼뿐

알수 없었네
새해가 시작되는 그 깊은 밤
분초를 다투며 출강시간 기다렸건만
아쉽구나 그 몇분이 모자라
꿰는 가마 그대로 인계하게 된 사연

쇠물은 꿰고 또 꿰고
전기로는 웅웅 소리를 높였네
아, 배전공처녀의 기특한 마음도
폭포처럼 쏟아지는 쇠물에 담겨
조국은 첫출강의 보고를 듣고있었네

로

세가마나 철철
넘치게 쏟아부었다고
강철지구사람들 우리 손 마주잡네
《예끼, 이사람들
몸이 하나처럼 불가마갈군!》

전기로엔 타는 불
가슴엔 붙는 불
쇠물이야 한가마에 담겨있어도
끓이는것은 용해공들의 심장이거니

아무렴, 우리는

불길을 다스리는 강철공들
작업반 우리 심장 하나로 끓어
언제나 불담은 큰 가슴들
우리 몸도 쇠물을 끓이는 로가 아닌가

그렇네, 우리의 용해장에 전기로는
하나가 아니라네
우리 여섯명 모두의 가슴이
이렇게 쇠물처럼 끓고있으니
합해보게
로는 분명히 일곱개인걸!

기슭으로 돌아오며

송명근

1

푸릿한 안개너머 저 멀리
두팔을 한껏 벌린듯
모래사장의 흰 해안선이 서서히 다가선다
이 마음의 파도인양
이랑이랑 물결은 서둘러 달려가
벌써 저 기슭에 어리광치고...
진정할길 없구나
수평선우에서 솟는 해, 지는 달을 맞으며 천리
위도와 경도를 넘어 또 천리
휴양소로 불러주는 고마움 안고
먼바다어장에서 돌아오는 배길이며
언제나 배머리에서 먼저 보라고
바다가에 바루 내앉혀준 어로공아빠트
저 5층란간에 매달려
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목청껏 부르고있으리
무거운 트렁크를 챙겨넣으며
어머니는 안해와 함께 휴양차비 서두르고있으리
정답구나, 긴 배고동소리에 화답하며
갑자기 설레는 저 부두가
언뜻 기중기우로 오르는 운전공처녀의
불타는 머리수건
번쩍 석양에 긴 빛을 굶는
금빛 나팔의 환영곡소리도
바쁘다 느낄대는 저 물결을 성큼 딛고
물으로 오르는 내 마음이어

그 어떤 사랑이 이 배길을 받들고있는가
그 누가 가족휴양권을 받아놓고
만리대양에 전파를 날려 이 아들을 불렀는가!
다시한번, 다시한번
선실창문을 닫는다
그러면
아, 긴 해안선이 안개너머 사라지고
내 어린시절이 묻혀버린 흰 모래언덕
나지막한 저 솜바위우에
문득 다가서는 모습이어

2

무거운 한숨처럼
낮게 떠도는 저녁 연기우에
피빛노을이 내리는 저녁이면 저녁마다
나를 기다려 서계신 어머니가 바위우에 있었다
둥그런 수평선 아득히
떴다 잠기고
안개바다우에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점점...
붉은 돛폭이며 쪽배를 다 세이고서야
-살았구나... 긴 한숨을 내뿜으시던
시름겨운 어머니의 서글픈 표정
체소하고 메마른 그 젖가슴이
나를 맞아주는 기슭이었다

울부짖는 폭풍우가
 소란스레 피창을 두드리는 밤이면
 어머니는 뜬눈으로 새벽을 맞으셨더라
 -에그, 오늘만은... 제발 그만두려무나
 이런 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생각
 이 새벽 아들을 떠나보낼 무서운 생각...
 애원어린 어머니의 여윈 손길이
 이 아들을 부둥켜잡았건만
 막을수 있었으랴
 악착한 선주놈의 손에 등을 밀리워
 산악같은 파도속으로 내 몰려나갈 때
 내 몰랐더라
 깨어지는 배전을 두드리며 아우성쳐도
 어머니 목소리가 왜 나를 불러들일수 없었던지...
 기슭을 향해 어머니를 부르는 나의 웨침소리
 바다를 향해 이 아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통곡소리
 파도가 높아서 닿지 못하였던가
 풍랑이 사나와 산산이 흩어졌던가
 아아 피터지도록 부르짖고 아우성쳐도
 기슭으로 불러줄 손길이 있었던가!
 안아줄 품이 있었던가!

3

어느새 푸르렀느냐
 살오른 가로수의 번쩍이는 잎새들
 다감한 생각에 잠긴 눈동자인듯
 새로 일떠선 거리의 해빛안은 창문들...
 배전에 비스듬히 손을 얹고 바라보는 저 기슭!

무력하고 가난하고 처량하던
 그날의 모습은 어디 갔는가?!
 온 가족을 휴양의 보급자리로 불러주는
 그 목소리 그리도 다정하여서
 파도사나운 모래언덕, 저무는 노을속에
 머리카락 흘날리며 소리죽여 우시던 어머니 그
 마음이
 선실창가를 흐리워놓았는가
 손자손녀 주련이 앞세우고
 부두가로 달려나오신 어머니
 손에 쥔 가족휴양권을 높이 흔드는
 백발의 그 모습 다시 젊어지고
 반겨주는 그 미소 그리도 밝아
 내 마음의 격정이 터지는가!
 깊은밤 만리어장의 배머리에 찾아와
 파도를 조심하라고 반복하여 일러주는
 방송원의 목소리
 온 밤 등대불을 높이 켜들고
 파도소리와 함께 잠못드는 이 기슭이
 아, 나의 어머니, 나의 조국!
 뿌리 끊어진 해초마냥
 눈물의 파도우에 떠다니던 내 운명의 쪽배를
 영원한 행복의 기슭에 대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여라!
 떠나서는 살수 없고
 위훈 없이는 안길수 없는
 아아, 내 삶의 영원한 닻을 내린
 사랑의 기슭이여!

그날의 젊음으로

김화건

집채같이 우람찬 굴착기에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내리니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며
 꼬마선전대원들이 부락하는 말
 -아바이, 굴착기를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귀여운 아이들
 못잇을 어제날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불타는 거리, 진격의 길가에서
 -미국놈을 더 많이 죽쳐주세요
 총을 쥔 나의 손에 매달리며
 발을 구르던 그 아이

해쫓는 아침마다 나서던 프락엔
 늑처럼 폭탄자리 깊이 패였더란다
 록음속에 서있던 학교는 무너지고
 저녁마다 반겨주던 어머니는 쓰러지고
 복수의 마음 전선길에 나서서
 전사들의 손을 잡고 부탁하던 아이

그날의 모습으로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원수들이 남녘땅에 굴리는 팽크소리를
 굴착기의 동음으로 짓누르는 내 가슴엔

뜨겁게 울리는 그날의 그 아이의 목소리

나는 원쑤를 몰아 남진하던 옛전사
총을 쥐고 싸움속에 있었기에
미제에 대한 증오를 누구보다 잘 안다
남녘땅 전선길에서 만났던 그 아이
그 아이를 품어주는 마음으로 나사를 죄여가는-

아침마다 하루 로동의 지령을
원쑤를 치던 그날의 전투명령으로 받아안고
벽에 붙은 구호를 그날의 맹세로 내려읽는다
다시 더 높이는 증산목표에서
저주로운 침략자를 내려다본다

오, 나는 그날의 전사
남녘에 미제가 남아있어
불타던 거리에서 부탁하던
그 아이와 더불어 그날에만 사는 사람

세월이 흘러가도
옛전사의 심장은 늙지 않노니
그날의 젊음으로
그날 그 아이의 당부를 안고
나는 굴착기의 나사못을 조인다
꼬마선전대아이들의 부탁을 새기며-

달밝은 밤에

박영봉

쟁반같이 둥근달
등불같이 밝은달
또락또르 썰레치는
논배미마다 비쳐주네

정다운 그의 마음
저 달속에 어렸는가
충성의 한길로 함께 달리자고
또락또르 타는 법 배워주고
한걸음도 헛디딜세라
마음의 등불되어 밝혀주던...

첫일에 나선 이 밤
앞서거니뒤서거니
또락또르 달리네, 달이 달리네
썰레틀이 칠썩 논바닥을 치면
달은 요술사마냥 삽시에
천쫂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선 싱글병글

문득 달리는 조항간을 함께 잡으련듯
달은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네
하지만 밤일에 내보내는 남편의 마음속
실오리같이 비졌던 근심을 저 달속에 읽으며

너운전수 달을 향해 빙그레 웃으니
땀에 젖은 가름한 그 얼굴 바라보며
달도 웃네, 달도 웃네

달은 웃으며 그제서야 마음놓인듯
그이 그제서야 편히 잠자리에 드는듯
천천히 구름속으로 가버린네

이윽하여 둥근달
다시금 논판에 밝을 때
교대나온 그의 남편
차결에 서있었네
《아이 깡깡이야
저때문에 또 쉬지 못하구 나오셨군요》

《아니요 나는 폭 잤소
동무의 고르로운 또락또르소리가
나를 폭 재워주었소》

좋구나, 이 좋은 달밤
그 누구도 없는 정깊은 교대시간
하지만 엄격한 교대립회자인 달은
그들 머리위에 까딱 앓고 지켜서있었네

창광거리의 밤

오피천

하늘에는 별들이
땅우에는 불빛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황홀한 거리
창광거리의 밤

당의 해빛
창가마다에 흘러넘쳐
하늘도 밝아지고
땅도 밝아진
창광거리의 밤

그 어느 집이든
문을 열고 들어서고싶구나.
행복에 웃고
기쁨에 눈물지며
나도 이 밤을 지새고싶어
당의 은혜에 목메이는 이 가슴을
나도 함께 이야기하고싶어

층층 하늘우에 하늘을 고이고
빛을 뿌리는 창가
파랗고 빨간 불빛이
하늘의 별인줄만 알고
세다가는 헛갈려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가슴에도 빛나는
은혜로운 그 별빛

하나의 창문에도
화려한 네칸방 부엌세간에도
당의 손길이 어려있어
고마움에 잠 못드는 이 거리,

30 층 그 계단에도
당의 발걸음이 새겨져
별많은 락원의 새 도시는
저리도 하늘높이 솟아올랐는가

아, 별이 많아
생각도 깊은 밤을
어이 잠에 들랴,
끝없이 별을 바라보는
저기 칠순할머니의 가슴은
왜 그리 뜨거움에 젖었는가

아이적 그 시절
계수나무 짝어 초가삼간 짓고서
천년만년 살고싶던 소망을
별에 담아보던 저 가슴
별은 꿈이 많은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이었던가

가슴속 그 꿈도
삶의 리상도
저 하늘 해발처럼 반짝이는
향도의 별빛속에서만
다 꽃피울수 있었으니

저기 강건너
락원거리를 세워준 손길로
오늘은 하늘끝까지 .
인민의 행복을 받들어올린
그 사랑

아, 그 은혜에 목메어
불밝은 창광거리를 거니는 이 가슴엔
하나의 별만이 안겨와라
영광스러운 당중앙
향도의 별이!

아, 하늘에는
행복의 별빛이...
가슴속엔
향도의 별빛이...
별많은 밤
창광거리의 밤이여

출몰날엔 ...

리호인

대학생들의 데모와 《유신》 잔당들을 절규하는 목소리들로 불같이 달아올랐던 거리였다. 그 거리를 피로 물들이며 미국제총탄이 누벼댔다. 순식간에 생을 빼앗긴듯싶은 거리는 고요했다...

《...8년 징역을 언도함!》

재판소를 나서자 닫힌 철문에 기대선 하봉설의 귀에 방금전 언도를 내리던 재판장놈의 목소리가 쟁쟁 울려왔다.

(내가 8년징역을 받았단말인가?!)

봉설은 수감에 채워진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자신에게 반문해보았다.

아무리 고쳐 생각해보아도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에게 8년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언도를 들켜왔다.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렇다고 하소할곳 없는 봉설이었다.

《뭘 하고있어!》

몸집이 거울친 간수가 봉설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턱으로 재판소앞거리를 가리켰다.

재판소앞거리에는 수감차가 뒤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몇어있었다. 그 수감차를 호위하듯 무장경찰들이 둘러싸있고 차결에서 간수 몇이 죄수들을 수감차에 태우고있었다.

봉설은 눈길을 둥근 하늘에 던지고 긴숨을 내쉬었다. 내내 흐리던 하늘이 오늘따라 구름 한점 없고 못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은하수가 제법 기울어진 것을 미루어봐서 밤이 퍼그나 깊었다.

봉설은 땅이 꺼질듯한 한숨을 후- 내쉬며 들었던 고개를 꼭 떨구었다.

땅을 내려다보며 발면발면 걸음을 내짚는 그의 뇌리에 그가 중히 간직하였던 속사철이 떠올랐다. 그는 두툼한 그 속사철의 갈피를 마음속으로 번졌다.

첫장에는 수수한 농촌집이 그려져있다. 이파리가 다 떨어진 앙상한 감나무 한그루가 서있고 토방에는 담배대를 문 로인이 걸터앉았다. 까치가 울면 희소식이 날아든다고 하는데 로인은 감나무와 등지고 먼산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다.

다음장에는 돌돌 흐르는 시내물에 놓인 돌다리가 그려져있다. 비너를 지른 녀인이 시내물에 놓인 돌다리에 쪼그리고앉아 물동이에다 바가지로 물을 퍼담고있다.

한장을 또 번지면 같은 시내물이 그려져있는데 돌돌 흐르던 시내물이 바짝 말랐다. 물기없는 돌다리밑바닥에 붙은 이끼도 말라버렸다. 한사발이나 되나하게 고인 돌잠물에 송사리들이 갈피를 몰라 몰켜돌아간다.

속사철의 앞부분은 그의 고향, 농촌풍경을 속사한것들인데 그것들의 모서리는 변색하여 누르끼레하였다.

그러나 그 속사들에 대한 봉설의 애착은 무등 강했다. 비록 필치도 서투르고 착상도 기발하지 못했으나 향수와 어린시절을 불러왔다. 그 속사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던 국민학교 미술교원의 경이에 찬 얼굴이 떠오른다. 고향마을에서는 그에게 꼬마화가라는 별명까지 붙였었고 앞으로 이름있는 화가가 될것이라고들 했었다.

속사철의 갈피를 번저감에 따라 농촌풍경속사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대신 도시풍경속사가 그려졌었다.

좁고 어두컴컴한 판자집거리, 가로수 없고 깨진 전등갓이 매달린 전주대들...

그 수많은 속사들가운데 《구두담이소년》이라는 풍경화 아닌 소묘가 있다.

대통령에 구두담이통을 베개삼아 베고 큰 대자로 드러누워있다. 그 소년을 부엉이눈처럼 알이 류별히 큰 색안경을 낀 금발머리 계집년이 상판대기를 쥔그리며 발길로 찬다. 그래도 꿈쩍도 않고 구두담이소년은 코를 골며 잔다.

봉설의 속사철을 보며 학우들은 그의 재간을 인정하였고 장래가 내다보인다고들 했다. 대학교원들도 그의 재간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떤 교원은 풍경화로 이름있는 흠배마처럼 유명한 풍경화가로 될것이라고 했다.

취직운동을 벌리지 않았어도 졸업하자 그에게는 시내 미술학교 교원자리가 기다리고있었고 미술을 전업으로 하는데서도 오라고들 했다.

봉설이 그린 주문그림가운데는 서울시내의 수많은 다방, 식당, 요리점의 벽에 걸려있으나 풍경화는 한점도 없었다. 영화광고며 상품광고들도 자신이 셀수 없을 정도로 그렸다. 지금도 서울거리의 전주대며 담벽이며 상점창문에 나붙어있는 광고들도 있다. ...

《빨리빨리! 왜 꾸물거려!》

몸집이 거대한 간수가 수감차의 문을 쥐고 소리를 쳤다.

하봉설은 생각에서 깨어나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생기를 잃었고 이마에는 땀이 내뿜었다.

메뚜기다리를 한 무장경찰들이 여전히 부동자세로 수감차곁에 빙 둘러서있는데 그놈들의 눈알만은 부엉이눈깔처럼 부지런히 움직이고있었다. 간수가 재차 소리를 지르자 봉설은 사다리에 발을 옮겨디었다.

수감차의 욕중한 철문이 탕하니 닫히고 자물쇠를 채우는 요란한 소리가 울렸을 때에야 하봉설은 수감차의 나무결상에 앉은 자신을 발견했다.

순간, 언도를 내리던 재판장놈의 상관대기와 랑손으로 약품선전화를 펼쳐보이며 《죄행》을 읽어대던 안경쟁이 검사의 낯짝이 눈앞에 영화화면처럼 떠올랐다.

약품선전화는 봉설이가 그린것이다.

봉설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린 주문그림들-다방이나 료리점의 장식그림, 상품선전화, 영화광고 따위의 속사들은 그 어느 하나 속사철에 철하지 않았고 화판에다 자기 이름도 새기지 않았다.

이 약품선전화의 속사만은 속사철에 철해두었고 주문자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림에다 《하》이라고 자기 이름을 새겨넣었다.

주문그림치고는 이 약품선전화처럼 정력을 쏟아부은적이 없는 애착이 가는 그림이었다.

약품선전화는 몽둥이로 온갖 병균들을 후려치는 그림이다. 감기, 결핵, 간염, 대장염 등 온갖 병균들이 몽둥이에 맞아 아우성치며 쓰러진다. 그 병균들이 시각적으로 인차 알수 있게 의인화수법으로 그려졌고 몽둥이에는 눈에 띄게 약품명이 새겨졌었다. 다방이나 료리점의 벽에 걸어들 그림들은 대개 한 주일이면 너저넛했다. 영화광고나 상품선전화 같은것들은 며칠 걸리지 않았다. 하루밤에 완성한것들도 적잖았다.

이 선전화의 초안을 완성했을 때 학우들이 와서 보고 저마다 착상이 기발하다고들 했고 주제화 못지 않게 힘을 넣을 필요가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그런데 완성하여 주문자에게 넘기기 직전에 학우들에게 다시 보였더니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고 미완성감이 난다고 하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봉설 자신도 겉으로는 광고나 같은건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주문자에게 그냥 넘기기가 무척 아쉬웠다.

그래서 기일을 겨우 연장받고 수정작업에 달라붙었다.

진작 화필을 드니 어디를 고쳐야겠는지 자신도 딱히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모태기는 봉설의 눈앞에 고향풍경들이 떠올랐다. 바깥 마른 동구박시내물, 장마비에 흠뻑물이 쿵쿵 소리치며 세차게 흘러가는 내물,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바닥, 황모가 들어 새노랑게 된 논벌, 나무 한대 없는 벌거벗은 높고낮은 산들... 그가 그렇게도 그리고싶던 풍경은 하나도 없다.

화필을 전채 연방 한숨을 내쉬는 봉설의 눈에 어느새 이슬이 고여올랐다.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온 누리에 이름 떨치던 이 땅이 이다지도 황폐화됐단말인가. 그 아름다운 풍치는 어디로 갔단말인가.

모태기던 봉설의 뇌리에 《광명고서점》 주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그길로 《광명고서점》으로 갔다. 마침 서점주인이 고서에 파묻혀 앉아있었다. 봉설은 약품선전화가 잘 안되어 왔다고 하면서 의학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서점주인은 끼고있던 도수높은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고 다시 끼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사람들한테 표상이 없는 균을 의인화한단말이요? 그럴바에야 큰 병균을 의인화해야지, 큰 병균들... 몇 안되는 그놈의 병균때문에 민중이 고통을 받고있지...》

서점주인은 지나가는 소리처럼 뇌이였다.

순간 봉설은 눈이 띄는것 같았다. 약품선전화의 결함이 무엇이었던가를 깨달은것 같았다.

봉설은 서점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와 화필을 들었다.

몽둥이를 쥔 팔에 없던 힘줄이 생겨났다. 의인화된 균들이 더욱 섬세하게 부각되었고 증오스럽게 그려져갔다.

주문자가 와서 그림을 가져갈 때 그는 자기 그림이 완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랐다.

그후 봉설은 그 약품선전화를 보지 못했다. 주제화 못지않게 정력을 쏟아부어서 그런지 약품선전화를 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그 약품선전화를 이 재판장에서 볼줄이야 생각밖이었다. 인쇄된 선전화는 원화 못지않게 의인화된 균들의 발톱까지 섬세하게 나왔다. 그래서 그 균들의 교활하고 악독한 본성이 잘 형상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려잡고싶은 충동을 일으켰다. 몇번이고 수정을 가했던 몽둥이를 쥔 팔도, 짹짹 힘을 힘줄까지 채색대로 그리고 실하게 힘있게 인쇄되어 울분에 찬듯, 노한듯 잘 형상되었었다.

안경쟁이 검사가 목대를 돌구며 손가락으로 지적한 한 병균을 본 순간 봉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의인화된 그 병균은 생각했던것보다 잘 형성된것 같았다. 그 의인화된 병균은 어찌 보면 《유신》잔당의 살인광패두목의 몰골을 련상케 했다. 검사는 이견 약품선전화가 아니라 정치적빠라라고 했다.

봉설은 검사의 소리를 듣고보니 그놈의 말을 부정할수 없었다. 그러나 봉설의 뇌리를 집게처럼 째 쥐고 놓아주지 않는것은 검사의 말이 아니라 《광명고서점》주인의 말이였다. 몇 안되는 병균때문에 민중이 고통을 받고있다고 하던 말이...

수감차는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봉설은 수감차안을 둘러보았다.

문결에 와 그 맞은켠에 힘꼴이나 쓰게 생긴 간수들이 앉아서 담배를 태우며 목직한 수갑을 채운 죄수들을 흘려보고있었다. 천정에는 깨진 유리속의 파리알같은 전등이 담배연기때문에 안개속에 가리운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차벽에 나붙은 나무의자에 판결을 받은 죄수들이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수갑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한 전등불을 쳐다보고 있었다. 모두 생기를 잃은 눈들이였다. 유독 봉설의 맞은켠에 앉은 죄수만은 눈을 감고 구레나룻을 쓰다듬고있었다. 수감차에 갇힌 몸이라는것도 잊은듯이 너무나도 태연하여 봉설에게는 그가 판결을 받은 죄수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만약 그가 판결을 받았다면 반년이 아니면 길어서 1년은 넘지 않으리라고 예측하였다.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태연할수가 없는것이다.

《몇년을 받았기에 그렇게 죽은 상이야!》

담배를 태우던 간수가 담배연기를 쇠살창밖으로 후- 내뿜었다.

《8년을 받았소.》

봉설은 한숨을 내쉬듯 말하며 수갑에 채워진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젠 이 손은 화필을 쥐지 못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앞이 캄캄해졌다. 지금쯤 동창들은 일 자리를 구하느라 뛰어다닐것이다. 그런데 봉설 자신은 재간이 은을 내여 자기만 옹하면 일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이젠 그것은 꿈으로 되고말았다.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한 덕에 늙어 자식덕을 보게 되었다고 기뻐할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어찌하여 신체가 이렇게도 사나운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탓에 그림을 팔아 학비를 충당하게 된 처지를 두고 험악한 사회를 저주하게 된다.

이 모든것이 봉설에게는 가슴을 허비였고 뒤늦게 한탄케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보다 가슴아픈것은 이렇다할만한 그림을 세상에 내놓지 못한 《화가》로 된것이다. 화가가 될것을 최상의 꿈으로 삼고 살아온 생애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여겨졌다.

간수가 눈을 간잔지런히 뜨고 봉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라없이 뇌이였다.

《보아하니 대학도 다녔겠다. 또 그만큼 살았으면 세상물정도 모르지야 않겠는데... 8년이라는것도 받기가 그리 험한게 아니지. 그러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비하면 낫지. 이러나저러나간에 이제 얼마 안있으면 서울거리도 보지 못하겠는데 든든한 뺨이 있으면 몰라라 자, 마지막으로 서울거리나 구경하지.》

간수는 쇠살창문을 열고 봉설에게 턱질을 했다.

봉설은 그냥 수갑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창처럼 하얗다. 정기를 잃어 부리부리하던 눈도 초점없는 렌즈처럼 흐려있다.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없나. 하느님도 돌려세울수 없다는게 수감차야.》

간수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쪼오래기를 던져주는 《동정》을 던졌다.

봉설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눈길을 창밖으로 던졌다. 쇠창살사이로 보이는 거리가 어둠속에 잠겨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수감차의 전조등불빛을 받아 거리의 세부가 나타났다 사라지곤했다. 그것들이 조명을 받은 무대의 주인공처럼 부각되어 뇌리에 속속들이 박혔다.

광고들이 다닥다닥하게 나붙은 전주대가 언뜻언뜻 지나갔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린 광고도 나붙어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나붙은 광고들속에서 자기가 그린 광고는 찾을수 없었다. 언뜻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거니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명곡다방이 나타났다사라진다. 아직 폐업전인것 같다. 영어로 새긴 출입문이 여닫기는걸 보면, 저 명곡다방의 어두컴컴한 벽에는 자기가 그린 정물화 한점이 걸려있을것이다. 그 정물화는 흔히 볼수 있는 쟁반우에 놓인 실과-수박, 도마도, 복숭아 등이 수북이 놓인 그림이다,

그 그림은 봉설 자신이 동무들에게 이끌리어 명곡 감상하러 갔을적마다 보곤하였다. 별로 애착이 가는 그림은 아니지만 색이 독특한것이 마음에 들어서 쳐다보곤하였다. 그러면 동무들이 리해안된다는듯이 봉설에게 질문을 들이댔다. 다방주인이 요구

한 풍경화를 그리지 않고 왜 정물화를 그렸는가? 정물화는 풍경화보다 값이 싸는데... 고학생에게는 우선 학비가 급선무가 아닌가? 풍경화가로 지망하는 자네가 풍경화를 외면한다는것은 자멸을 의미하는게 아닌가?...

풍경화를 외면한다. 이것은 봉설에게 있어서 죽기보다 싫은것이였다.

최근 한해동안 풍경화를 전혀 그리지 않았다. 그리기 싫어서 화필을 놓은것은 아니다. 자기를 매혹시킬만한 아름다운 풍경을 포착하지 못했고 더우기 상이 떠오르지 않아서이다.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풍경화치고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집, 나무그늘없는 벌거벗은 산, 바짝 마른 물기조차 없는 내물을 그린것이 있는가. 그가 좋아하는 흙배마가 그린 자그마한 집의 빨간지붕, 나무그늘속으로 돌돌 굴러가는 시내물, 물에 비친 하늘... 그 화가의 풍경화들을 보면 아름다운 향토의 자연에 대한 정서가 짙게 흐르고있으며 화가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렸다는것이 여실히 알린다.

봉설은 신발이 닳도록 다녔고 번민하였지만 풍경화가로 내세워줄 화상을 찾지 못했다. 지난 방학에는 경치가 매혹적이며 아름답다고 이름난 남해, 다도해로 떠났다. 거기 가면 하다못해 바다풍경 한점이야 그럴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다도해의 풍경은 봉설에게 화필을 들 용기를 주지 않았다. 탄성이 아니라 땅이 꺼질듯한 한숨만을 내쉬었고 떠날때의 한가닥 희망마저 깡그리 없어지고 절망으로 가득찬 무거운 가슴을 안고 돌아왔다.

지금도 그때의 바다풍경이 그의 눈에 짙게 새겨져 한시도 떠날줄 모른다.

예로부터 바다풍치가 하도 신비롭고 아름다와 멀리 북극이며 남극으로 떠나가던 계절조도 잠시 쉬고서야 날아간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공해현상으로 계절조는커녕 물고기마저 죽어가는 역한 냄새를 풍기며 바다 아닌 바다물이 출렁이고있었다. 어부들의 노래소리 높으리라 믿었던 바다가에는 바다에 나가지 못한 목선들이 엮매여있었고 어떤 고기배는 모래불에 탕그러니 올라앉았는데 배전이 말라뜰이 생겨 그속으로 들쥐가 드나들고있었다. 그 배전에 기대앉은 광대뼈가 두드러진 한 어부는 입에 담배를 물고 수평선을 바라보고있었다. 수평선상에 고기배는 한척도 없고 시커먼 군함의 동체가 보이고 갈매기가 아니라 전투기들이 날고있었다.

최살창으로 언뜻 고서점이 스쳐지나갔다. 《광명고서점》이다. 도수높은 안경을 낀 고서점주인이 앉아있을것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수

석으로 졸업하였건만 이렇다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고서에 파묻혀 빛을 내지 못하고말았다. 돌아가는 말에 의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부했다고 했다.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릴 때면 《광명고서점》의 문이 닫겨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생들속에서 《광명고서점》의 문이 닫긴 날에는 시위가 일어난다고들 했다. 봉설이 시위에 참가하여 대학생들과 어깨결고 구호를 웨치며 거리를 지나가는 《광명고서점》주인을 몇번 본 일도 있었다.

밤거리의 고요를 깨뜨리는 요란한 싸이렌을 울리며 모터씨클들이 지나가는바람에 봉설은 상념에서 깨났다. 이어 호각소리가 나고 경찰들이 뛰여가는 발구름소리가 들려왔다. 일시에 밤거리가 소란해졌다.

봉설은 쇠창살에 얼굴을 바짝 갖다댔다.

전조등이 네거리의 전주대를 비쳤다.

전주대앞에 사람들이 몰켜서있었다. 경찰들이 곧 봉을 휘두르며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어깨결고 전주대앞으로 다가선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끼여든다. 삽시에 전주대앞에 사람바다를 이루었다.

수감차는 멈춰서더니 길을 비키라고 경적을 연방 울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막무가내였다.

꼭다리 경찰이 사람벽을 헤집고 들어가더니 전주대에 나붙은 광고, 채 풀이 마르지 않은 광고를 찢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억센 팔뚝이 흰장갑을 낀 경찰의 손을 끌어내렸다.

여기저기서 경찰들의 호통과 욕설이 나더니 흰장갑들이 사람들의 머리위로 뻗쳐올라갔다. 그러나 흰장갑들이 풍랑에 의해 침몰하는 배마냥 몇번 사람들의 머리위로 솟구쳤다가는 바다속깊이 꺼지듯 사람바다속에 영영 파묻혀 다시는 솟구쳐오르지 못했다.

사람들의 눈길은 광고에 박힌채 움직이지 않았다.

봉설이는 그 눈길을 따라 전주대에 나붙은 광고에 시선을 던졌다.

순간, 봉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감에 채운 손으로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았다.

전주대에 나붙은 사람들의 눈길을 집중시킨 광고가 다름아닌 자기가 그린 약품선전화였다. 다시는 볼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약품선전화였다.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리라고 마음속으로 단정했던 광고였다.

그 약품선전화가 것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것을 제눈으로 본 봉설은 자기가 수감차에 갇힌 몸이라는것도, 징역을 받을 죄수라는것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가슴이 뿌듯해왔다.

방금전까지만해도 이렇다할만한 그림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다시는 화필을 들지 못하게 됐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에 잠겨있던 봉설이었다. 하룬들 손에서 놓으면 살것같지 못한 화필과 영영 리별해야 하고 인간세상과 담을 쌓아야 할 신세를 한탄하던 봉설이었다.

고뇌와 서글픔, 한탄과 저주가 뒤엉킨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봉설의 가슴이 탁 트이고 무겁고 우울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개인 날씨처럼 맑아졌다. 이제야 비로소 무슨 그림을 그려야겠는가를 깨달았다.

봉설은 쇠창살에 얼굴을 댄채, 고개를 끄덕이였다. 뜨거운것이 가슴속에서 솟구쳐올라 눈시울을 적시였다.

네거리의 전주대앞에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어 차들의 오고감을 막았다. 그들속에 대학동창들이며 《광명고서점》 주인이 있는것 같이 여겨졌다. 어느새 봉설의 눈에서는 뜨거운 이슬이 방울져 내렸다.

수감차는 뒤걸음질하였다. 사람벽을 헤집고갈 용감성이 없었다.

《비켜!》

간수가 쇠창살문을 탕하니 닫고 꼬나물었던 담배를 뱉더니 봉설을 흘겨보았다.

《운다고 소용있나. 아까도 말했지만 하느님도 돌려세울수 없는게 수감차야!》

《하느님이야 당신네와 한속인데 수감차를 돌려세울수야 없지.》

봉설의 맞은편에 앉았던 그 구레나룻의 중년사나이가 야유가 섞인 어조로 혼자소리처럼 뇌이였다.

간수는 고개를 꺾 돌려며 구레나룻의 사나이를 쏘아보았다.

《그럼, 수감차를 돌려세울 사람이 있단말인가?!》

《있지 않구, 우리가, 우리 민중이지.》

구레나룻의 사나이는 눈을 감은채 태연하게 말했다.

《민중이, 그래 며칠 있으면 이슬처럼 사라질 사형언도를 받은 너같은 폭도들이?》

간수는 코웃음을 치며 살기찬 눈길을 던지고 제자리에 가 앉았다.

중년사나이는 차벽에 기대고있던 몸을 일으키더니 간수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쏘아붙였다.

《그렇소. 당신들은 민중투사들이 다 죽은줄 아는가? 민중이 있는곳에는 어디나 있소. 보오! 하느님도 돌려세울수 없는 이 수감차가 지금 뒤걸음을치고있지 않소. 문을 닫는다고 가리울순 없소.》

간수는 담배를 붙여물더니 고개를 돌려 실없이 담배만 빨았다.

사형수-중년사나이의 눈길은 날카로웠고 정기가 돌고있었다. 약간의 비감도 없었다. 자기 생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차있었다.

봉설은 무엇에 끌린듯 구레나룻의 중년사나이의 얼굴에서 일단 던진 시선을 뗄수 없었다.

그 중년사나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봉설의 눈앞에 또다시 두툼한 속사철이 떠올랐다.

그는 그 속사철의 갈피를 마음속으로 한장한장 번져나갔다.

약품선전화의 속사가 또 나타났다. 그러자 그 그림을 들고 공포에 떨며 소리치던 안경쟁이 검사의 물결이 떠오르는가 하면 그 그림이 나붙은 네거리의 전주앞에 사람들이 떼지어 밀려드는 광경이 눈앞에 밝혀왔다.

(8년정역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중형이라도 인제나를 놀래울수야 없지.)

봉설은 속으로 이렇게 뇌이며 속사철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인차 속사철을 다시 펼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화상이 려이어 떠올라서였다.

《광주의 25시》-야간통행시간이 넘은 광주의 번화가의 담벽에 청년학생들이 선전화를 붙인다. 너대학생의 목에 두른 흰목도리가 밤바람에 나뭇긴다. 그는 한손에 물통을 들고 한손에 전지를 들었다. 대학모를 쓴 대학생들이 목마를 타고 담벽에 선전화를 붙인다. 팔소매를 걷어올린 그들의 팔목의 힘줄이 힘있게 꿈틀거린다. 너대학생이 비치는 전지불을 받아 부각되는 선전화-그것은 봉설자신이 그린 약품선전화였다. 그 선전화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눈에는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다. 판가리 싸움에 나서는 용사들에게만 볼수 있는 이글이글 불타는 눈들이였다.

《항쟁의 거리》- 프랑카드를 든 시위대렬이 거리를 메우며 걸어간다. 체구가 큰 구레나룻의 중년사나이가 한손을 높이 쳐들고 대렬의 선두에 서서 구호를 웨친다. 그의 곁에 선 물바랜 중절모를 쓴 학자인듯한 중년사나이라도, 목에 수건을 두른 로동자도, 너학생도 구호를 웨친다. 그 웨침이 함성으로

변한다. 길좌우에선 사람들이 시위대렬에 합세할 태세이다. 시위대렬을 호위하며 굴러가는 장갑차우에서는 어린 소년이 뼈라를 뿌린다. 시위대렬이 나아가는 저멀리 광장에 무장경찰이 담을 싸놓고 서 있다. 그러나 시위대렬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격에 그놈들을 타개할 기세다. 프랑카드에 쓴 구호가 획마다 힘이 있다.

《<비상계엄령>의 철폐!》

《군부통치 결사반대!》

《정치범을 당장 석방하라!》

《아버지...》- 이파리가 다 떨어진 앙상한 감나무 밑 토방에 담배대를 문 로인이 걸터앉아서 편지를 펼쳐들고 감나무를 올라다보고있다. 아들한테서 온 8년징역을 받았다는 편지이다. 로인이 쳐다보는 감나무 상수리에 앉은 까치 한쌍이 꼬리를 달싹거리며 지저귄다. 담배를 빨아들이는 로인의 랑불이 움푹 들어갔다. 그의 입술은 터져 살금이 쭉쭉 갇고 눈귀며 이마에 골깊은 주름살이 뻗었다. 시달릴대로 시달린 농민의 력사를 그의 얼굴표정으로도 능히 짐작할수 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류별히 광채를

띠고있었고 락망의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다. 울분과 반항, 아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장하게 여기는 아버지와 웅심깊은 내면세계가 그의 눈에서도 담배대를 쥔 마디붉은 손에서도, 온몸에서 풍기고있었다...

뇌리에 완성된 그림들이 런던 펠쳐지는것이 봉설자신도 놀랄지경이었다.

하나의 그림의 상을 잡기 위해서 술한 시간을 투하해야 했고 사색에 사색을 가해야 했었다. 그때도 만족을 주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때가 태반이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곤 한 봉설이었다.

수감차에 실려가는 이 순간, 봉설은 자기가 그렇게도 바라던 화가-민중에게 불씨를 안겨주는 화가가 된듯싶었다. 출옥날엔...

수감차는 밤의 어둠속으로 경적을 울리며 형무소로 향해 내달렸다. 수감차에 실린 자기를 잊고 봉설은 차벽에 몸을 기대채 마냥 눈을 감고 떠올랐던 화상을 머리속에서 무르익히고있었다.

가사 2편

한생을 깨끗하게 살리

신순현

푸르른 들길은 어느 때나 걸을수 있어도
내 한번 걸어온 삶의 길은 다시는 못걸네
순결한 량심으로 나날을 꽃피우며
한생을 변함없이 깨끗하게 살리

깊은 산 숲속에 한그루 나무 가꾸어가도
흐르는 비단에 한송이 꽃을 수놓아가도

언제나 남모를 정성을 담으며
내 마음 빛나도록 깨끗하게 살리

끝없이 설레며 잠들줄 모르는 바다와 같이
진할줄 모르는 혁명의 열정 나는 바치리
한생이 끝나는 마지막 기슭까지
수령님 받들어 깨끗하게 살리

아침출근길

리광재

가로수 설레는 정다운 거리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리
보람찬 하루일 나라에 바치
행복을 꽃피우는 아침출근길

어제는 부모들 걸어가던 길
오늘은 아들딸 함께 가는 길
비바람 불어도 변함이 없이
조국을 받드는 아침출근길

노을이 불라는 락원의 거리
희망찬 레일을 약속한 거리
실화문학

수령님 부르신 혁명의 길에
충성을 바쳐가는 아침출근길

항쟁의 노래

조진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 10 월부터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악명높은 매국노, 〈유신〉 독재의 원흉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였습니다. 특히 지난 5 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인민들의 영웅적봉기는 남조선의 파쇼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 파쇼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5 월 광주인민들의 영웅적봉기는 전두환 군사파쇼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광주인민들의 영웅적봉기를 취재한 남조선의 어느 한 기자는 자기의 기사를 세상에 발표하지 못하였다.

남조선의 그 기사를 대신하여 그가 지상에 쓰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 실화문학으로 적었다.

내가 서울 XX신문사 일선취재기자로 광주에 내려온지도 한주일이 지났다.

한주일-보통날의 70일, 아니 700일에도 비길수 없는 민주와 파쇼와의 대결에서 나는 기자로서 실로 많은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5월 18일 《비상계엄령》의 확대실시후 화산의 분출처럼 터져오른 광주사태의 이모저모.

《계엄군》의 치떨리는 살육만행, 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하여나선 광주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눈물겨운 투쟁모습,

기자로서 한주일동안 보고들은 모든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또 가지수에 있어서 이미 기자생활 5년에 취재한것에 비길수 없는것들이었다.

그만치 나는 기자라는 직업적의식을 깡그리 쏟아부어 한주일을 보냈다.

이제 붓을 쥐기만 하면 단숨에 원고지의 칸들을 메꿀수 있을만치 나의 심장은 집필의욕에 불타고 있었다.

가자! 본사로 가자!

나는 아침일찍 행장을 꾸려가지고 려관을 나섰다.

그러나 《도청》에서 담양쪽으로 뻗은 큰길로 두어키로가량 올라가던 나는 봉기군과 《계엄군》의 대치선에 맞닥들려 걸음을 주춤했다.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대학생들과 노동자들, 시민들은 마사진 경찰차, 버스를 바리케이트삼아 진을 치고있다.

그 맞은편에는 《엠 60》땅크와 장갑차들이 철책처럼 길을 막고있다.

소총과 경기관총을 가진 봉기군을 겨누어 《계엄군》의 땅크포와 기관포들이 어느 순간에 불을 토할지 모를 태세를 갖추고있다. .

그우로 야전용 직승기가 폭탄이라도 떨어듯 낮추며 돌고있다.

무력상으로 대비조차 할수 없는 대치다.

《어데로 가시려고 그러니까?》

중기에, 낮이 해벌에 탄 대학생인듯싶은 리지적인 젊은이가 카빙총구를 땅에 떨어뜨리며 물었다.

《서울 XX신문사기자 정진필이라고 합니다. 본사에 가려고...》

《이리로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길로는 못가십니다.》

나는 신문기자이기때문에 저쪽에서도 길을 내줄 것이라고 말하려다가 상대방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바람에 입을 다물고말았다.

《저쪽의 총구에는 눈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방금 담양에 사는 할머니가 아들의 소식을 알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는데 저렇게...》

말을 하다만 젊은이의 입은 분노로 떨리었다.

길 한복판에는 흰 옥양목적삼을 붉은 피로 물든인 할머니가 땅을 그러안듯 어루러져있었다.

《정 가실 필요가 있으면 밤까지 기다리십시오. 밤에 우리가 통로를 열어보겠습니다.》

급히 본사로 가려는 불같은 기대를 꺾이운 나의 가슴은 허전하였다.

그러나 그 허전함을 밀어버리고 서서히 한가슴 차오르는것이 있었다.

(아 기자로서 일생에 돌이킬수 없는 실책을 한번 했구나.)

젊은이와의 찰막한 대화에서 나는 가장 요긴한것을 외면한채 피의 광주를 뜨려고 한 자신을 두고 깨달았던것이다.

(《계엄군》의 2 중 3 중의 포위속에서도 이렇듯 여유있고 인간다운 봉기군, 자신을 희생시킬지언정 이름모를 기자, 그것도 자기네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기자인 나를 위해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이런 봉기군의 심장을 모른채 글을 쓰자고 하다니 ...)

나는 스스로가 저지른번한 실책을 두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저 잠깐 이야기를 나눌수 없겠습니까?》

《무슨?》

《무장을 잡기전에는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기자인 나에게 하고싶은 말은 없는지...》

보아하니 대학생인듯싶은 젊은이는 그 리지적인 눈에 가벼운 웃음을 띠우며 난처한듯 아무말이 없다가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하고는 가까이 있는 찢자 있는데로 갔다.

기자적인 예감이 앞서는 나는 젊은이가 나를 경계한다는것을 눈치채었다. 그럴수도 있는것이였다.

시외로 쫓겨난 《계엄군》이 봉기군의 동향을 탐지하기 위해 기자로 가장한 정보원을 한둘만 들여 보내지 않았다는것을 나 자신이 알고있었다.

그러니 나도 그런 류의 《기자》로 의심을 사고있을지 모른다.

《미안합니다. 저 서울××신문사에 계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증서보보다도 이 취재수첩을 보시면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나는 서둘러 가방안에서 두툼한 취재첩을 꺼내려 들었다.

《봐두십시오, 믿지 못해 그러는게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데로요?》

풀릴가 하던 가슴의 긴장은 다시 죄어들었다.

《이제 물으신 말씀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걸...》

젊은이는 《도청》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쪽 어데 안전한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려거니 여기고 말없이 따라섰다.

젊은이는 나를 어데까지 데리고 갈 작정인지 《도청》건물이 저만치 보이는데도 그냥 걸기만 하였다.

(내 예감이 맞은것이 아니였을가? 하기는 삶이나 죽음이나 하는 판가리싸움터에서 사람을 믿는다는 건 ...)

《아직 멀었습니까?》

《미안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결국 《도청》앞에 와서야 젊은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도청이 안전한 자리였단말인가? 하기는 도청에 봉기군 지휘부가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했다.

왔던김에 봉기군의 지휘성원들과도 만난다면 기자로서 그 이상의 특종감을 질수 없을것이다.

아마도 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런 행운을 지니지 못했을것이다.

《도청》정문에는 전투복차림을 하고 《엠16》소총을 멘 두명의 봉기군이 드나드는 사람을 하나하나 단속하고있었다.

나는 젊은이의 안내로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로는 무장한 봉기군들이 분주히 오가고있었다.

마치도 전선가까이의 참모부를 련상시켰다.

나는 2층의 가운데방으로 안내되었다.

랑쪽벽에 서너개의 안락의자가 놓여있는 방이였다.

보아하니 《도청》의 면담실로 쓰던 방같았다.

《걸음을 오래 걷게 해서 미안합니다. 정황이 그렇다나니 ...》

《일없습니다. 오히려 잘되었습니다.》

《저 그럼 잠깐 담배를 피우시며 기다려주십시오. 잠깐 나갔다고겠습니다.》

젊은이는 나가고 좁지 않은 방안에 나혼자 우두커니 남게 되었다.

나는 담배를 꺼낼 생각도 잊어버리고 서둘러 취재수첩을 꺼내여 앞탁우에 놓았다.

그리고나서야 천천히 담배를 피워 입에 물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도청》앞 공원에서는 봉기군들이 부지런히 삽질을 하고있었다.

전호를 파는것 같았다.

하기는 광주시를 완전히 포위한 만여병의 공정대가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의지할수 없는 봉기군이였다.

나는 가방에서 사진기를 꺼내었다.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한장에 담을가 하고 셔타를 누르려는데 방문이 열리였다.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젊은이를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얼굴에 까만 복면을 하고있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앉으십시오. 제가 대답을 드리자고 여기까지 오시게 했습니다.》

까만 복면속에서 유난히도 빛나는 두눈이 가벼운 미소를 담고있었다.

웅글은 목소리, 강직한 의지가 번뜩이는 두눈, 무얼 하는 사람일까? 왜 복면을 했을까?

《이젠 나가보라구, 한테 다시는 경계초소에 나가지 말고 그걸 마저 완성하라구.》

복면한 청년이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였다.

젊은이가 나가자 나와의 대화가 시작되였다.

《뜻밖의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데 대해 서울 XX신문사 기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광주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봉기군에 대해서, 다시말해서 봉기군이 무엇을 생각하고있으며 래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있는지 그걸...》

복면까지 한것으로 보아 봉기군의 지휘성원의 한 사람인듯싶은 청년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알겠습니다. 우리 역시 기자선생이 진실을 쓰리라고 믿는 조건에서 자리를 같이하길 바랍니다. 터놓고 말해서 지금 신문도 방송도 진실을 외면하고있습니다. 선생 역시 많은걸 보고 묻고 했었지만 그중의 한대목도 지면에 실현하지 못하리라는걸 우리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면을 통해 선생의 이름을 알고있는 우리는 어느때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 광주의 진실을 써주리라 믿기때문에 경계초소에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그렇습니까?...저에 대한 기대가 그러시다면 저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나는 복면한 청년의 손을 뜨겁게 잡아흔들고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누르며 취재첩에다 《복면한 청년과의 대화》라고 썼다.

복면한 청년이 본문제로 이야기를 끌려고 하는데 직승기의 동음이 면담실의 유리창을 깰듯이 뒤흔들었다.

청년은 벌떡 일어나며 창가로 다가갔다.

고도를 낮춘 직승기가 전호작업이 한창인 공원우를 맴돌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청년은 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급격한 정황이 생긴것이 틀림없다.

아니나다를가 전호를 파던 공원 여기저기서는 광풍 폭음이 일며 시커먼 흙기둥이 치솟아올랐다.

직승기에서 폭발물을 내리떨군것이다.

《아니 저런 법이 있나?》

나는 온몸이 부르르 떨려 창문턱을 꼭 부여잡았다.

그런 나의 눈앞에는 피바다에 잠긴 광주에 도착하여 첫날부터 목격한 《계엄군》의 만행이 재현되면서 뇌수를 칼끝으로 찌르는것 같다.

금남로 한복판에서 시위대에 성원의 목소리를 보내던 칠순로인의 뒤통수를 쇠몽둥이로 내리쳐 입과 머리에서 분수처럼 피를 토하게 한 지옥의 마귀처럼 생긴 《계엄군》놈.

만삭이 된 녀인을 끌어다가

《이년아, 그 주머니안에 있는게 기집애가 머슴군아가?》

라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쉼치면서 대검으로 녀인의 배를 갈라 피덩이같은 태아를 끄집어내어 숨겨가는 녀인의 머리말에 내던진 20세기의 야만 전두환역도의 공수병들.

나어린 녀학생의 옷을 벗기고 잔등에 대검을 박는 치떨리는 만행을 보다못해 이놈들아 우리 손주같은 애들을 왜 죽이느냐고 항거해나선 80살난 할머니의 뼈만 앙상한 가슴에 시퍼런 칼을 사정없이 찌르고 시누런 땀을 드러내며 웃은 악귀.

시위대오의 앞장에서 전두환역도를 타도하라고 웨치던 남녀대학생을 벌거벗기여 공원의 나무에 매달아놓고 살인귀의 희열에 너털웃음을 웃고있던 살모사같은 장교놈들.

부상당한 대학생들 차에 실어 병원으로 데려가려던 승용차운전사를 대검으로 찌르고 쇠몽둥이로 내리쳐 처참하게 죽이면서 시위자들을 도우면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시민들을 위협해나선 살기어린놈들.

화염방사기로 얼굴의 형체마저 가려볼수 없게 하고 쇠몽둥이로 두개골을 마사 몸만 남은 수백구의 시체를 청소차에 실어다가 무등산과 전남대학교 뒤산에 묻어버리고 시민들의 사상자수를 십여명밖에 안된다고 줄여서 발표한 《계엄》당국의 철면피한들.

아직 역사가 모르는 전두환도당의 가증스런 만행을 세상에 고발하며 기어이 피땀한 원한을 풀어줄것을 무언으로 호소하는 《도청》지하실과 효천철길에 더미로 쌓인 애국적시민들의 시체.

광주시민 70%는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무등산기슭에 유도무기까지 가져다 설치한 군사불한당 전두환역도.

(악귀같은놈들!)

나는 온몸이 부르르 떨려 잠시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직승기소리는 사라지고 그대신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미안합니다. 불청객이 와서 소동을 피우는바람에… 자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복면한 청년의 왼쪽 손목에는 방금전까지 없었던 흰 붕대가 감겼다.

《상한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를 죽이자고 날아온놈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값죽게 목숨을 빼앗길 우리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상하신 모양인데 치료를…》

《괜찮습니다. 이제 있는 일을 기사로 어떻게 쓰시겠는지 모르지만 이건 인간과 인간과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과 야수와의 대결이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싸우고있다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을 취재첩에 댄 나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인간과 야수와의 대결》

광주에서의 사태를 집약해서 표현한 청년의 말은 애국적인 대학생들과 《계엄군》간의 첫대결이 있는 다음날 계림동앞거리에서 있는 참극을 상기시켰다.

분노한 시위대오가 땅크와 장갑차로 증강된 《계엄군》의 저지선으로 육박하고있을 때였다.

맨주먹으로 총칼과 중포에 맞서나선 대학생들에게는 돌이상 위력한 무기는 없었다.

그러나 그 돌마저 없어져 전진하던 대오는 잠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바로 이때 국민학교에 다니는 조무래기들이 손수레에 자갈이며 깨여진 벽돌을 가득 실어왔다.

대학생들은 어린것들의 기특한 소행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하며 돌을 집어 들고 앞으로 내달았다.

적은 힘이마나 대학생 형님들을 도운 기쁨과 자랑에 넘쳐 다시 돌을 주으러 가던 조무래기들은 뒤에서 와르릉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보고 잠시 주춤거렸다.

장갑차의 출현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던지 길옆으로 비켜섰다.

이 순간이었다.

길 한복판으로 내닫던 장갑차가 먹이를 발견한 승냥이처럼 악을 쓰며 나 어린 학생들을 깔아뭉갰다.

힘악한 세상에 태어나 이제 겨우 열살을 전후한 어린 소년들은 마지막으로 엄마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형제조차 가려볼수 없게 쓰러지고말았다.

생각할수록 치떨리는 야수들의 행동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한번 청년이 한 말을 외웠다.

《인간과 야수와의 대결》

구태여 그에 대한 설명을 더 듣지 않아도 되었다. 객관에 서야 할 기자인 나의 심장도 그렇게 판단하고있었다.

《그렇다면 현재상태에서 래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래일이라고요?…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군요.》

복면한 청년의 눈이 잠기었다.

엄습해오는 피곤에서인지 아니면 나의 질문이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었는지… 면담실안은 방금전 직승기의 래습으로 있었던 소란과는 대조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창문으로 흘러들던 해빛이 조용히 꼬리를 감추었다.

나는 복면한 청년의 신경을 자극할세라 숨소리를 죽이였다.

《놓으라구! 놔! 놓으란말야!》

밖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에 청년도 나도 벌떡 일어났다.

청년이 먼저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몇명의 봉기자들이 누구인지 가운데 놓고 가자거니 말자거니 옥신각신하고있었다.

《무슨 일이요?》

복면한 청년이 그리로 다가가며 물었다.

《김군이 전호작업에 나갔다가 폭탄에 맞아 두 눈을…》

《무어요?!》

청년은 물론 나도 놀랐다.

봉기자들에게 에워싸인 한복판에는 두눈을 봉대로 찌뎀 젊은이가 앉아버티고있었다. 눈을 찌뎀 흰 봉대밖으로는 붉은 피가 스며나와있었다.

젊은이의 입모습이며 날이 선 코를 본 나는 그가를 안내한 그 젊은이임을 알아보고 다시한번 깜짝 놀랐다.

《아니 어찌자고 거길 나가서 이 지경이 되었느냐 말요! … 응? 우리가 다 죽어도 김군만은 살아야 한다고 내가 몇번 말했어? 그래서 까딱말고 그거나 완성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아…》

청년은 김군의 어깨를 부여안고 오열을 참느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가라구 빨리 병원으로 가라구.》

《안가겠소. 아니 못가겠소. 병원에 간다고 없어진 눈이 생기겠소? 나를 그냥 여기 있게 해주오. 부탁이요.》

청년은 김군의 말을 들은채도 안하고

《무조건 병원으로 데려가시오.》

라고 봉기자들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잠시후 우리는 다시 면담실에 마주앉았다.
그러나 나도 청년도 입이 붙은듯 한동안 말을 주
고받지 못했다.

《썬썬시오, 김군에 대해서말입니다. 우리 모두
가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대학생입니다.》

《그렇습니까?》

《김군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금남로에서
시위자들에게 물을 떠주다가 놈들의 대검에 가슴을
찔리우고 그만... 그리고 하나밖에 없던 동생은 놈
들의 장갑차에 깔려서...》

《네?!》

나는 심장이 멎는듯한 충격을 이겨내느라 될수록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린 김군을 놈들과의 대치선에 내보내
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르게 경계
초소에 나간걸 기자선생이 만나서... 그래 김군도
들여올겸 선생을 오시게 한겁니다.》

《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여간만 고마운 김군이 아니
였다. 그가 아니었다면 봉기자들의 세계를 들여다
보지 못한채 갈변하지 않았는가.

나는 청년과의 담화를 끝내는 그 길로 김군이 후
송되어간 전남대학 부속병원으로 갈 차비를 하였다.

《아까 래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
셨지요?》

《네. 하지만 이제 됐습니다.》

《되다니요? 물음을 받은 이상 대답을 올리겠습니
다.》

이때 손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리면서 귀밀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굵은 테안경을 쓴 신살가랑 돼보이는
점잖은 사람이 들어왔다,

《최선생님이 어떻게?》

복면한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최선생이라 불
리우는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를 했다.

《이거 긴한 말씀을 하시던 모양인데 시간을 다투
는 일이 돼서 들어왔으니 양해해주시오.》

《일었습니다. 어서 말씀을 하십시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쪽으로 가서 섰다.
창밖 공원에서는 전호작업이 계속되고있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간 김군의 눈은 어떻게 되었을
가?

《이것 보게. 방금 제염분소에서 돌아오는 길이
네.》

최선생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였다.

《제염분소라니요? 거긴 왜 가셨겠습니까?》

《넌들 어쩌는수 없이 갔댔네. 시의 유지들이 이
대로 있다가는 또 수천의 피가 흐를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담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겠는가 해서
...》

《담판의 방법이요? 살인자하고 담판한단말입니
까? 살인자하고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뜻밖의 대화에 자신도 모르게 핵 돌
아섰다.

나의 의아스러워하는 시선과 마주친 최선생은 당
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바로 내 잘못이었네. 한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래일아침 6시까지 무기를 다 놓으라는게 아니
겠나.》

《무기를 놓으라고요? 우리보고말입니까?》

《.....》

《그래 그놈들한테 무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저 돌아왔네.》

《네?! 다시 그놈들과 마주את을 기회가 있으면 전
하십시오. 우린 놈들이 공격해오면 이 도청과 온 광
주시를 폭파할 충분한 화약과 휘발유를 가지고있다
고요.》

나는 극도로 격한 청년이 최선생에게 더 무엇인
가 말하려다가 내쪽으로 시선을 돌리는것을 보았다.
최선생도 안경을 벗어 테를 닦으면서 슬그머니
나의 거동을 살피였다.

두사람이 다 나의 존재로 해서 할말을 못하고있
는것이다.

나는 아무말없이 면담실에서 나왔다.

발걸음소리만이 들리던 복도에 어디선가 손풍금
소리가 울려왔다.

나는 어둠속에서 불빛을 본듯 고개를 버쩍 들고
귀를 강구었다.

(누가 이런 환경에서 손풍금을 탈가?)

언제, 어느 시각에 생사의 경계선을 넘어야 할지
모르는 속에서 그것도 봉기군의 중심부라고 할수
있는곳에서 손풍금을 타다니...

나는 놀라움과 호기심과 의아스러움으로 착잡해
진 가슴을 진정시키며 소리난곳으로 발뼘발뼘 다가
갔다.

이층 복도 맨끝에 있는 좁은 방문이 병실이 열려
있었다.

손풍금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흘러나오고있었다.
내가 문앞에서 걸음을 주춤하자 손풍금소리는 줄
이 끊어지듯 멎었다.

혹시 발걸음소리를 듣고서 그러는게 아닐가?

병실이 열려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데 다시 손풍금소리가 울려나왔다.

나는 버쩍 호기심이 동해서 소리 만나게 문을 열고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앗!》

나는 그만 목젓까지 올라온 외마디소리를 삼키느라 입술을 옥물었다.

그리고는 잘못보지 않았는가 해서 눈을 슴벅거리다 다시 방안을 살피었다.

열평방 되나마나한 좁은 방에 놓여있는 침대, 그 침대에 걸터앉아 손풍금을 타고있는 사람, 그의 두 눈은 붕대로 싸매여있었다.

김군이다.

병원으로 후송된줄만 알았던 김군이 손풍금의 건반을 누르고있었다.

나는 그만 자제력을 잃고 문을 활 열어제끼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누구요?》

김군의 놀란 목소리였다.

《나요. 기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상대방을 진정시키려들었다.

《아 기자선생입니까? 마침 잘됐습니다.》

《잘되다니요? 김군은 병원에 가야 할 몸인데 여기서 무얼하고있습니까?》

《기자선생도 어느새 우리편이 됐군요?》

《네?! 우리편이라니?》

《나한테 병원으로 가라는걸 보니깐요. 하여간 병원에 갈 땐 가더라도 하던 일은 마쳐야 하겠습니까. 자 한번 들어봐주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니다.》

나는 김군이 한 말뜻을 새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는데 김군의 손은 손풍금의 건반을 누르고있었다.

금시 터질듯한 울분, 그 울분이 터진듯 앞으로 내달는 힘찬 선율, 원쑤를 향해 돌진하는 돌격의 함성인양 가슴을 쿵쿵 두드리는 선율.

《어떻습니까? 기자선생.》

《무슨 곡입니까? 새 노래를 짓고있는게 아닙니까?》

《짓는다기보다 그저 우리 마음을 담아보자고 한 겁니다.》

《네?》

나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화끈했다.

놈들과의 칼끝같은 대치상태에서 그것도 두눈을 잃은 몸으로 병원에도 가지 않고 선율을 완성해가고있는 김군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안개속에서처럼 흐릿해졌다.

《다시 한번 들어보아주십시오.》

나는 새곡의 평가자라기보다 첫 감상자의 립장에서 손풍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니 이게 무어요?》

문앞에는 복면한 청년이 나타났다.

《병원에 가지 않고 여기 있었단말요?》

《나는 아직 병원에 갈 정도로 부상을 입지는 않았소. 내겐 두손이 있고 목소리가 있지 않소? 이거면 천놈하고도 싸울수 있소. 내 무기는 노래요.》

《…………》

청년은 잠시 할말을 잊은듯 묵묵히 있다가 젖은 목소리로 간청하듯 말했다.

《나도 들었소. 이제 노래를 오선지에 올려놓고 병원에 가주오. 눈을 떠야 원쑤를 갓을게 아니요? 자 부탁이요!》

《고맙소. 하지만 사방에 그놈들인데 병원이나 여기나 다를게 없지 않소? 날 계속 여기 있게 해주오. 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소.》

《김군! …》

청년은 김군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청년의 복면으로 뜨거웠것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미 기자라는것을 잊고 복받치는 걱정에서 자신을 그대로 내맡겼다.

《비상!》

복도안에 종이 요란하게 울리었다.

이어 쿵당쿵당하는 말소리가 온 청사안에 울렸다.

《적 특전대 투하! 자기 위치로!》

구령과 함께 방문들이 쿵쿵 여닫기는 소리가 났다.

《기자선생! 미안합니다. 이젠 더 이야기할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네?!》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할수 없었다.

한것은 청년과의 이야기를 못해서도 아니요, 그렇다고 그대로 눌러있으려는 생각에서도 아니었다.

청사안에 들어와서 보고들은 모든것이 나의 발목에 천근쇠덩이를 달아매고 떨어지지 않게 했던것이 다.

《좀더 있어선 안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필요하다면 우리 사람을 길안내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혼자서도 일없습니다.》

하늘을 무너뜨리는듯한 비행기소리에 나는 청년과도 김군과도 인사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채 《도청》에서 나왔다.

거리의 요소요소마다에는 바리케트가 쌓여지고 네거리의 건물창문들에는 기관총이 걸려있는것이 보였다.

봉기군들과 시민들이 달음치듯 여기저기서 급히 오가고있었다.

차허리에 붉은 색으로 《헌혈차》라고 쓴 자동차가 거리 한복판으로 달리였다.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최후의 결사전을 앞두고 자기 할바를 다하고있는 거리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서울에서 두개 려단의 락하산병들이 이제 방금 무등산에 내렸어요. 다들 총을 받으러 가자요.》

《가자요. 앉아서 죽을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주고받는 말, 내 귀에 들리는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나는 문화동 네거리까지 정신없이 걸어오다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 이 네거리를 건너 한참 골목길로 빠지면 서울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것은 서울××신문사 기자인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나는 길을 잘못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에 두발을 들여놓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제 할바를 찾고있는데 유독 나만이 그들을 등지고 판길을 가고있지 않는가.

물론 나는 광주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는 광주의 사태를 공정하게 세상에 알려야 할 임무가 있다. 또 내가 만났던 청년과 김군이 그것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나는 기자이기전에 그들 광주사람들과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다.

동족이 생사의 판가리싸움을 하는데 기자라고 해서 서울본사로 찾아간다는것은 도피가 아닌가.

나는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섰다.

물론 자칫하면 저들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사회의 눈이며 귀이며 입이기때문에 저들의 곁에서 내 할바를 다해야 한다.

나는 《도청》을 향해 급히 걸음을 다우쳤다.

거리에는 어둑어둑 땅거미가 깃들었다.

하늘에는 직승기가 떠들면서 무기를 놓으라고 위협을 들이냈다.

그러나 봉기자들의 귀에는 이미 그런것이 들리지 않는지 제갈길을 씨엥씨엥 가고있었다.

나는 《도청》앞 공원가까이 와서 귀에 익은 손풍금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김군이 타던 그 선물이 아닌가. 그럼 알 못하는 김군이? 그럴수는 없다.)

나는 손풍금소리에 끌려 공원안으로 들어갔다.

수십명의 봉기군들이 빙 둘러서서 손풍금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장의자우에는 두눈을 봉대로 싸맨 김군이 손풍금을 안고 건반을 누르고있지 않는가.

(아니!!)

불과 한두시간전에 선물을 잡은것이 어느새 노래가 되어 봉기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는가.

노래-나는 노래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

그러나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노래로 되자면 일정한 창작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대중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한 시간과 거기에 따르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들이 처한 정황은 이미 있던 노래를 부르는것조차 허용할수 없는 긴급한 상태에 있다.

전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계속되는 전투, 시시각각으로 좁혀지는 이중삼중의 포위, 언제 불비와 함께 땅크가 와르릉 달려들지 모르는 형편에서 새 노래를 지어 그것도 잠간사이에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부른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어떻게 되여 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였는가.

《기자선생, 왜 아직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노래에 심취되였던 나는 복면한 청년을 보고 흠칫 놀랐다.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한데 도대체 이 노래는 어떻게 된겁니까?》

《노래말입니까? 우리들의 투쟁가입니다.》

《투쟁가요?》

《그렇습니다. 유신의 노예로 100년을 사느니 민주의 꽃으로 무등산과 더불어 영원할 김군의 마음, 아니 우리모두의 마음을 담은 투쟁가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래일에 대해서 묻은 기자선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시 손풍금의 전주가 울리기 시작했다. 어둠속에서 봉기군들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다. 열흘 전까지만 하여도 책가방을 들었던 대학생, 공구를 들었던 노동자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장의자우에서 손풍금을 타는 김군.

어둠속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민주와 통일의 새 아침을 보는듯 고개를 벋쩍 든 김군!

나는 서둘러 사진기의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 한장을 남겨놓은것이 얼마나 다행이였는지 몰랐다.

샤타를 누르라, 샤타를!

마음속에선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손은 굳어진듯 움직이지 않고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아 영웅들이여!

그대들의 노래는 남녘에 울려가리라.
민주와 통일의 새아침을 부르는 항쟁의 노래되어
힘차게 울려가리라!

수필

어제와 오늘

장청현

별로 깊은 고려가 없이 제판에는 자연스럽게 던진 한마디의 말이 후에 자기 잘못임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흔히 저절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법이다. 한데 그것이 신성한 교육과도 관련되는 공식석상에서 한 무식한 발언이라면야 그 수치스러움이 오죽 하랴!

내가 바로 그런 잘못을 범한적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착오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오유를 범했던가를 깨달게 되었다. 20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두고두고 그 일을 잊을수가 없어 무시로 그때 광경이 되살아나 홀로 낯을 붉히곤한다.

× ×

1959년은 온 일본땅이 흥성거리던 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은정으로 첫 귀국선이 일본에서 떠난 해였으며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품에 어서 빨리 안길 뜨거운 일념으로 나도 그해 여름에 제1차 귀국선으로 귀국할것을 신청하였으나 그 많은 귀국자들을 한꺼번에 다 태울수는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나는 1960년 2월에야 귀국하도록 미루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는 그날부터 한 반년을 일본땅에 머무러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나였다. 아침에 김치만 먹고 학교에 가도 나는 일본아이들로부터 《조선인 마늘냄새 역겹다!》는 등 온갖 민족적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총련을 무어주시였으며 우리에게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겨주시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혜택을 입게 하여주시였다.

일찌기 이국땅에서 교아로 된 나에게 어머니조국은 장학금을 보내주어 대학생으로까지 자라게 하여 주었다. 그런 내가 이제 6개월후면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는것이다. 꿈과도 같은 일이었다. 나에게 차

레진 이 분에 넘치는 행복을 두고 나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마치도 나혼자만 그 행복을 누리는것 같은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당시 내가 살던 교도시의 우표구만 하여도 (교도시안에서도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구였다.) 수많은 동포들이 살고있었지만 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동포들속에서 아직 자기가 조선사람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지어 자기 조국조차 똑똑히 모르는 사람도 있었기때문이다.

이런 형편을 생각해보는 나는 저만 저라고 혼자 삶의 보람을 안고 고마운 조국으로 그저 돌아간다는것이 어쩐지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속에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받은 내가 이제 무슨 도리란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송고한 조국앞에 어딘지 량심에 꺼리는바가 있었다. 비록 앞으로 6개월밖에 말미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남겨놓고 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늘 떠나지 않았기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반년동안에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며칠밤을 두고 생각을 거듭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데서만 생기는것입니다.》

나는 중급학교시절에 것처럼 심장속에 아로새긴 아버지수령님의 이 교시를 다시금 깊이 새겨보았다.

그렇다! 이들에게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우리 나라 글부터 익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조국의 우수한 전통도 문화도 풍습도 알게 될것이며 그 과정에 이들도 나 자신도 조국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게 될것이다. 조선사람된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게 될것이다.

이리하여 조청 우꼬지부(당시는 우즈마사지부라고 하였다.)의 방조밑에 갑작스레 생긴것이 《야학방》이었다. 《야학방》이라야 널판자로 무는데다 먹칠을 하여 만든 자그마한 흑판을 내가 세내어 살던 방에 걸어놓은것에 불과하였다.

처음에는 여러문명밖에 안되던 《야학생》이 점차 80명정도로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일본학교에 다니던 소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비롯하여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성인들까지 모여들었다.

이렇게 시작한 《야학방》에서는 1959년이 저물고 새해에 접어들자 모든 《야학생》들이 우리 글을 읽게 되었고 조국에 대한 많은 소식도 알게 되었다.

바로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음악적인 소질이 라고는 전혀 없는 내가 조국의 들끓는 건설장에 대한것을 다소라도 느끼게 하려고 당시 조국에서 널리 불리우던 《일터의 휴식》이라는 노래를 배워주고있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가사의 뜻을 설명하면서 평생 씻을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다.

조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아도 쉬이 그 광경이 안겨오는 이 노래에 《입장단에 어깨춤이 절로 나네》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이 대목을 해설하면서 똥판지같이 《그 어떤 연에대같은 씨름집단이 건설장에 입장하였기때문에 건설자들의 어깨춤이 절로 난다》는 식으로 전혀 딴 해석을 한것이였다. 다시말하면 《입장단》을 입으로 맞추는 장단이 아니라 무슨 집단이 노래를 부르며 입장해오는것으로 잘못 리해하였던것이다.

이 얼마나 우습강스러운 해석인가! 하지만 안타까운것은 이 착오를 깨닫게 된것이 내가 조국으로 돌아온 썸 후의 일이였으니 다시는 그 《야학생》들앞에서 영영 사죄하지도 못하게 된것이였다. 아니, 그보다 더욱 안타까운것은 그 《야학생》들가운데서 나의 무식한 해석을 끝이듣고 아직도 그 노래를 외곡되게 리해하고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이였다.

이 사실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제판에는 그때에 재일동포들에게 조국을 더 잘 알게 하려고 한 일이였으나 실지로는 내자신도 조국에 대하여, 우리 말의 의미에 대하여서조차 잘 모르고 동포들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던것인가, 이런 자책에 집길수록 조국의 품에 안겨 그림던 조국땅을 마음껏 확보하며 들끓는 조국의 숨결을 마음껏 받아안게 된 크나큰 자부심이 가슴뜨겁게 솟구치는것이였다.

× ×

얼마전에 나는 조국을 방문한 교도조선중고급학교시절의 한 동창생을 만나 20년만에 회포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20년세월에 교도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생활에도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나가는 말로 《야학방》이 그후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우꼬구에는 《야학방》이 아니라 최신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초급학교교사가 버젓이 일터였고 교도만 하여도 그런 학교가 몇개씩이나 더 건설되어 지금 수많은 동포자녀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는것이였다. 그리고 그때의 《야학생》들가운데서 한명은 어엿한 총련지부위원장으로, 한명은 (당시 나어린 처녀애였다.) 교도조선중고급학교의 교원으로 사업하고있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다.

몸가짜이에 있는 자식들보다 멀리 외파로 떨어져 있는 자식들을 더욱 다심하게 보살피시는 어버이심정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어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이렇게 꽃피나고있음을 알게 된 나의 눈굽은 뜨거워났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이 활짝 피어나고있는 70만 재일동포들의 생활속에는 오늘 조국의 뜨거운 숨결이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이 흐름속에 내가 그때 《야학방》에서 읽은 실수도 먼 옛말로 되었고 력사의 흐름속에 그 옛말도 어느덧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돌이켜보건대 20년! 실로 멀리도 달려왔다. 이 뜨거운 은정속에 오늘 이국인 일본땅에서도 조국의 지식인대군과 함께 주체의 빛발을 받아안은 우리의 민족간부가 수없이 양성되고있다. 공화국교수, 공화국박사가 해마다 자라나고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있으며 력사는 매일 매시각 새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제는 조국에 와서 태어나 당당한 전문학교 학생이 된 내 아들이 그때의 《야학방》에서의 나의 실수를 동무들앞에서 유쾌한 옛말과 같이 하게 되었으니 나도 그렇고 그때 그 어두운 《야학방》의 한쪽구석에 앉아 나의 해석을 그대로 믿고있던 그 《야학생》들도 조국의 장엄한 진군에 발맞춰 얼마나 자라난것인가! 세상을 놀래우는 우리 조국의 기적과 혁신도,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존엄높은 민족적자부심도, 조국의 품에 안겨사는 나의 행복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품속에서만 마련될수 있었으니 영광스러운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 품에서 누리는 오늘의 민족적공지를 마음껏 노래하며 대를 이어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리라 다시금 굳은 결의를 다지는 마음이다.

민족의 분노

박산운

상전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제자식의 살점에 칼을 댄 주구도
얼굴을 붉히리, 등을 돌리리
비길데 없는 그 아부와 탐위를 두고
그 엄청난 인간백정행위를 두고

꽃치레를 하여도 승냥이는 승냥이
미제상전이 주구에게 부추긴
목표는 남북의 영구분단
민주의 폐허우에 총검의 숲을 세운
파쑸의 《새시대》, 《새 풍토》
제손으로 쥐여 쓴 《대통령》 감투

주구의 몸값을 올릴 때가 왔다고
검은 베레모를 고쳐쓴 전두환역도
피에 미쳐 춤추며
대검을 휘둘러
광주가 잉태한 민주의 태아를
먼지끼인 길바닥에 태를 찢거니

마른 하늘도 번개를 머금고
5 월의 꽃바람도 서리를 뿜는데
그 엄청난 만행으로도
상전의 구미를 맛출수 없었더냐
주구의 몸값을 올릴수 없었더냐

민주와 통일의 래일을 향해 선
청년학도들의 빛나는 얼굴들을
화염방사기로 마구 쏜 《유신》 잔당
남녘의 피바다에
《새로운》 파쑸의 뜻을 올린 네놈은
또 무슨 놀음을 벌리고있는가

산천초목도 치를 떠는
그 잔인성으로, 그 포악성으로
동족대량학살의 그 대가로

상전이 씌워준 《대통령》 감투를
보란듯이 자랑하는
저 희세의 살인악당 전두환놈은
어느 시궁창에서 나온놈이냐
어느 야수의 피줄을 타고난놈이냐

아, 욕된 권좌를 노려노려
흉포한 외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동족도 나라도 제 예미도 몰라보는
극악무쌍한 사대매국노들로 하여
민족사는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겼거니
두발가진 야수 민족의 백정들과
한하늘을 이고 선 아픔이여
이 아픔을 어이 더 참으랴!
이 분노를 어이 누르랴!

누구나!
저 살인악당을 밀어주고있는놈이
어느놈이냐
저 역도를 부추기며 꼬드기며
《힘의 전략》의 첫 시험장으로
조선을 고른 전쟁광신자는-

손때묻은 주구를 선참으로 포옹하여
철군백지화와 전쟁밀의로
전투폭격기의 요란한 폭음과
미친 총포탄의 전쟁연습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침략의 원흉
호전광 레간놈에게 경고하노니

용서치 앓으리, 범죄적인 공모결탁을!
그 어떤 미국의 최신무기도
딸라와 《공약》과 전력증강도
백악관이 길러낸 주구들의 운명은
결코 돌이킬수 없었거니
력사는 인민의 심판대우에

또 하나의 주구를 올려세우리라

세월이 갈수록

리계심

어떻게 잊을수 있으라

세월이 간다고

어떻게 잊을수 있단말이나

나이들어 기억이 삭막해진다고

까맣게 불타버린 고지에

진달래꽃송이갈던 그 얼굴들

남으로 천리

북으로 천리

제집 프락처럼 넘나들던 전선치녀들을

내 나서 처음 운명을 같이한

그 못잊을 나의 전우들을...

동구밖 멀리 따라나오며

단발머리 쓰다듬어 놓지 못하던 어머니

그 손길에서 가슴뜨거운 조국을 안았기에

걸음마다 떨어지는 아름찬 명령에

대답대신 먼저 보조개가 웃고

밝은 눈빛이 빛나던 치녀들

여린 어깨 그 어디에 숨어있었던가

비발치는 탄우속에서

키를 넘는 전사들을 업어내던 그 놀라운 힘이

작은 가슴 그 어디에 깃들어있었던가

부상병의 머리우에 비낀 어두운 그림자 밀어내며

남몰래 제 피를 넣어주던 그 진정의 샘이...

가슴엔 말못할 고통을 안았어도

아픔을 잊으라고 노래를 불러주고

초연서린 병실에 누워있어도

조국의 향기를 잊지 말라고

들꽃을 꺾어다 머리말에 놓아주던 그 마음

그 마음 그 진정이

피할길 없는 죽음앞에서도

소생의 힘과 기적을 불러

더없이 귀중한 생명을 지켜

수령님의 전사들을 기어이

승리한 고지우에 세워준

불보다도 뜨거운 그 사랑

죽음을 이겨낸 억센 그 삶

아 불타는

전선을 넘고넘어

흘러가는

세월의 나날을 지나

오늘도 이내 심장을 불태워주네

누나같이

어머니같이

불비속에서도

죽음속에서도

전사들이 의지하던 마음의 어깨

조국이 사랑하는 그 어깨를

세월이 간다고 어떻게 잊을수 있으라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마음속에

사무쳐오는 그 모습

전우에 대한

조국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온 세상에 보여준

조선녀성의 그 모습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피여라

비길데없이 소중한 마음의 꽃으로-

단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감정조직을 잘하기 위하여

명일식

작가는 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특색있는 종자를 잡고 전형적인 성격을 내세워야 할뿐아니라 탐구된 내용을 생활의 형식으로 전개할수 있는 높은 예술적기교, 구성의 기교를 소유하여야 한다.

작가가 아무리 현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술적으로 재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의 소재에 불과하며 그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것이다.

인간은 사상의식을 가질뿐아니라 가장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의 사상의식의 발전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풍부하고 다양한 감정과 정서 속에서 형상한다는 여기세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특성과 미학적기능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료가 아무리 좋은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단순히 엮어만 놓아서는 혁명적인 예술작품이 될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한시바와 같이 생활속에서 아무리 좋은 소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사건적으로 엮어만 놓아서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은 감정조직에 기초한 구성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다.

한것은 감정조직은 생활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워주는 기본고리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주체적문학예리론은 감정조직은 생활의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의 감정은 언제나 사건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것이다.

때문에 작품창작에서 인물들의 사상감정상태를 예리하게 조사하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구성에서 감정조직은 인물들의 사상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을 섬세하게 펼쳐나가면서 감정을 축적하고 폭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감정조직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며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밝혀주는 근본방도로 된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서는 바로 감정조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생활을 형상적으로 더 깊이 반영하는가 못하는가가 좌우된다.

감정조직문제는 모든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면서 동시에 그 방법에서는 영화나 연극, 소설 등 형태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기된다.

뿐만아니라 같은 소설문학에서도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의 감정조직은 같을수 없다.

그것은 생활을 반영하는 자기의 고유한 방식에 의해서 서로 독특하게 표현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편소설의 구성에서 감정조직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그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단편소설의 구성에서의 특성은 고도로 되는 집중과 집약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은 많은 등장인물들과 사건들, 이야기들을 자기 구성체제안에 포함하고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집체가 기본이며 인물들의 운명발전과정을 펼쳐보이면서 생활의 본질을 천명하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단편소설에서는 모든 생활적내용들을 대체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 속에 집약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단편소설로 하여금 그에 맞는 감정조직을 요구한다.

단편소설에서 감정조직을 잘하자면 우선 작품의 소재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그것은 생활의 특징이 집약되어있고 인간의 운명에서 전환을 가져오는 그러한 계기점을 가진 단편을 말한다.

단편소설이 가장 작은 형식의 소설문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운명과 생활의 전도를 알게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단편소설에서의 감정축적은 하나의 봉우리, 하나의 감정폭발의 계기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기란 사건적인 계기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서 전환점을 일으키는 계기를 말한다.

계기와 그를 해명하는 과정은 바꾸어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며 결국 원인을 해명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는 단순히 삼단론법에 의한 논리적인 관계와는 다른것이다.

생활이 다양하고 인간들의 운명이 다양하며 또한 그를 반영하는 작가 자신이 개성적인것만큼 그를 해명하는 그 과정도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복잡한 것이다.

작가는 그 원인을 생활적으로 탐구해야 하며 독창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탐구하고 해명하는 과정은 감정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단편소설이 이처럼 하나의 계기만을 해명한다고 하여 감정조직이 단순하게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중과 집약을 특성으로 하는 단편소설에서 이 계기의 해명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여러가지로 될 수 있다.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문제에 따라서 극적인 인간관계속에서 해명될수도 있고 심리정서적인 묘사에 의해서 서정적으로 해명되기도 하며 구체적이며 집요한 심리분석에 의한 해명도 있는것이다.

작품의 계기점을 진지한 극적인 관계속에서 해명한다고 하여 감정조직이 단순하게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중과 집약을 특성으로 하는 단편소설에서 이 계기의 해명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여러가지로 될 수 있다.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문제에 따라서 극적인 인간관계속에서 해명될수도 있고 심리정서적인 묘사에 의해서 서정적으로 해명되기도 하며 구체적이며 집요한 심리분석에 의한 해명도 있는것이다.

작품의 계기점을 진지한 극적인 관계속에서 해명한것은 단편소설 《해빛을 안고온 청년》의 경우를 놓고 말할수 있다.

작품은 먼지속에서 일하는 굴뚝직장 로동계급들에게 혁명소조원 김준오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해살을 안겨주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여기서 주인공 김준오가 체현하고있는 극성은 그의 행동세계와 결부되어있다. 다시말하면 굴뚝직장 로동계급들이 아직 어머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해살을 받지 못하고 먼지속에서 그냥 일하고있는 현실을 보고도 가슴아파할줄 모르는 무책임한 일군들과 그렇게 일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인공이 참을수 없는 충격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대기는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심각한 극성이 있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으로 공장에 갓 배치되어온 주인공은 굴뚝직장의 주인인 직장장을 찾아가 호소도 해보았고 지배인을 찾아가 문제를 물어보려고 절절하게 제기도 한다.

그들의 무책임한 사업태도에 부딪친 주인공은 그 과정을 통하여 점차 심각한 극성을 체험하게 된다.

한가닥의 희망을 안고 그가 찾아간 윤성학도 그에게 실망을 주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축적되어온 주인공의 감정은 이러한 무책임한 일군들때문에 심한 먼지몽당속에서 일하고있는 굴뚝직장의 로동계급들을 보았을 때 폭발직전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마침내 전기수진실로 출선 들어가게 되는것이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 감정폭발의 계기는 주인공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전기수진실로 들어가는 대목에 설정되어있고 낯은 사상 잔재에 물젖어있는 세 일군들을 만나는 매개 단락은 그가 어떻게 되여 출선 전기수진실로 들어가는가 하는것 즉 작품의 계기를 해명하는 과정으로 되고있으며 이 과정에 이루어지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작품의 종자가 형상적으로 천명되고있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심선들을 이으며 가슴에 서린 감정을 터뜨리는 주인공의 독백이 것처럼 절절하게 안겨오는것이다.

《임영선동지... 지배인동지... 당신은 여기로 이땅 밑으로 몇번이나 들어와 봤습니까... 이것들이... 이 심선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빛살이라고... 깊은 땅속까지 뚫고들어온 사랑의 빛살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지배인동지가 관심을 안돌리니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 광장역동지... 당신은 누가 관심을 돌려주건말건 주인다운 립장에 서서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느 개별적인 사람의 관심속에 들자고 일하는것입니까?! ... 이렇게 끊어진데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까... 임영선동지, 당신은 책임적인 일군입니다. 자기가 로동계급적립장에서 원칙적으로 일을 잘해야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로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줄수 있다는것을 생각해봤습니까. 그렇게 해야 충실성이 빈말공부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깊이... 깊이... 생각해봤습니까?!...》

이와 같이 산 인간의 사상감정과 심리세계는 극적인 체험세계가 강렬하면 할수록 더욱더 생동하게 안겨올수 있다.

왜냐 하면 극적인 체험세계 즉 극성이란 일정한 극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인간들사이에서 축적되어온 사상감정이 강렬하게 부딪치는 고도로 양양된 생활국면에서 발현되기때문이다.

따라서 극성은 감정조직의 기본바탕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는바 감정조직이 잘 된 단편소설들을 보면 극성이 강한것이 특이이이고 극성이 강한 작품들은 다 감정조직이 잘되고 그 형상수준이 높은것이다.

그러나 극성은 지난시기에 일부 사람들이 강조해 온 것처럼 반드시 첨예한 극적갈등에 기초해서만 발현되는것은 아니다.

극성의 본질은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정서에 가장 강렬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생활공면에서 발현되는 미학정서적감흥이며 그것은 류다른 적극성과 긴장성을 띤 인간생활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흔히 독자들은 새것을 지향하는 주인공들의 생활 과정에 애로와 난관에 부딪치게 되거나 고통과 불행속에 빠지게 되면 마음을 조이고 그들의 운명을 걱정하게 되며 그들의 앞날에 행복이 닥쳐올것을 알게 되면 그 시각이 빨리 오기를 안타까이 기다리게 되며 아름답고 숭고한것을 볼 때는 끝없는 감흥속에 잠기게 된다.

따라서 비록 공부정인물들간의 불꽃튀는 부딪침은 없어도 등장인물들의 사상감정세계와 심리정서세계의 깊은곳에서 축적되어온 감정이 새로운 비약의 계기에서 폭발될 때에는 그나름으로 웅심깊고 실리정서적인 극성을 체현하게 되는것이다.

그 실례의 하나로서 단편소설 《우리 선생님》을 들 수 있다.

이 단편소설의 감정조직을 보면 그 폭발의 계기를 실리정서적인 생활속에서 감명깊게 해명해주고 있는것이다.

이 단편소설은 남은희라는 교원이 도교수강습소로 소환되어 가는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 감정조직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함으로써 독자들을 크게 공감시키고있다.

또한 단편소설 《자기위치 앞으로!》에서는 25톤기중기를 통채로 옮기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배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어진 운전공처녀가 기중기를 조종하고있는 운전설에 올라가 자기 위치를 찾는 계기를 《다람쥐원리》와 《교예사의 줄타기원리》를 둘러싼 깊이있는 세부묘사와 분석적인 실미묘사를 통해서 해명하고있다.

이와 같이 단편소설에서 폭발의 계기는 그 생활소재와 종자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명되는것이다.

단편소설의 감정조직은 또한 긴장감을 조성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긴장감조성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더 잘 리해시키며 그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예술에서 느끼게 되는 긴장감은 주인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을 보는 흥미가 하나로 결합될 때에 생기는것이라고 가르쳐주고있다.

단편소설에서 긴장감은 주인공에 대한 공감을 어떻게 불러일으키였는가 하는데서 생기게 된다.

긴장감은 언제나 주인공의 행동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과 결부되어있다.

단편소설에서 주인공에 대한 공감은 그의 내면세계와 깊이에 파고들어가야만 생기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은 다 같이 그의 내면세계를 이루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자면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내면세계의 깊이에 파고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가슴속에 풍만한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주인공에 대한 공감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것이다.

감정축적에서 긴장감은 주인공에 대한 공감과 함께 사건발전의 기대속에서도 조성된다.

단편소설의 구성에서는 이 기대과정이 련속되면서 긴장감을 부단히 조성하여주어야 한다.

사건발전의 기대는 우선 독자들에게 왜? 어떻게? 라는 물음을 부단히 제기하면서 숨쉴틈을 주지 않고 근본문제의 해명에 의혹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생기게 된다.

단편소설 《발걸음》은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시사를 주고있다.

소설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를 사건발전의 기대속에서 생활론리에 맞게 잘 배합하였다.

이야기는 주인공 련희가 풍수덕탄광에서 와달라는 부름을 받고 찾아가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소설에서 이야기는 탄광에서 10년전에 측량소대장을 했던 련희를 왜 불렀겠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다음 사건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며 들어간다.

10년만에 와보는 풍수덕을 옛것처럼 정다운 마음으로 대하는 련희의 심리세계를 보여주면서도 작가는 그를 부른 사연을 뒤에 숨겨두고있다.

설계기사 채동식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련희는 다소 안도감을 가지게 되며 반드시 즐거운 일,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있으리라는 심정으로 가슴설레인다. 또한 풍수덕의 지형도를 펼쳐들고 그 섬서함과 정확성으로 하여 조국땅의 높이와 크기뿐 아니라 무게까지도 느끼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잠시나마 일끼기 맛보지 못하였던 생활의 희열까지 느끼게 된다.

왜 찾았을까? 하는 그의 기대는 이렇게 행복과 희열만을 가지게 하는것이 아니었다.

뜻밖에 들어선 철도건설중대장의 출현은 그의 가슴에 말할수 없는 한가닥의 불안도 던져준다. 그러

나 채동식은련회를 부른 사연을 여기에서도 말하지 않으며 다음날 아침 현장에서 만날것을 약속하고 헤어진다.

련회를 부른 사연을 이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기대는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긴장감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생활론리를 따라 성격을 발전시키며 계기를 해명하는데 복종되도록 하는데 있다.

단편소설의 첫머리에서 이루어진 긴장감은 심리철길이 몽청 끊어져버린 늪에 와 일단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한다.

여기에서 련회는 왜 10년전에 측량소대자로서 작은 물웅덩이도 아닌 큰 늪을 보지 못하였을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그것은 다시 그의 성격발전을 새로운 높이에서 추동한다.

이처럼 단편소설에서 긴장감은 부단히 물음과 의혹을 던져주면서 기대에 기대를 거듭하는 과정에 조성되게 된다.

단편소설의 긴장감조성에서 각별히 류의해야 할 문제는 회상의 수법을 잘 도입하는것이다.

그것은 계기해명에서 여러가지로 쓰일수 있다. 그러나 회상의 수법을 잘못 쓰면 긴장감조성에 오히려 저애를 주며 감정조직을 잘할수 없게 된다.

회상되는 생활에 지나치게 매혹되어 도중에 여러번 주든가 아니면 회상을 너무 길게 주면 그만큼 현재 진행되는 생활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지며 감정축적을 잘할수 없게 되는것이다.

때문에 비교적 잘된 단편소설이지만 회상수법을 너무 지나치게 오래 줌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떨어 아쉬운 경우도 있는것이다.

단편소설에서 회상의 수법을 꼭 필요할 때에만 요긴하게 쓰되 간단히 상기를 시키는 식으로 쓰다가 감정을 축적하는데 필요한 조건에서 적당히 써야지 도중에 적용하는 경우에 너무 길게 준다면 긴장감을 조성하지 못하며 감정조직에서 단편소설의 특성을 잘 살릴수 없게 된다.

단편소설의 감정조직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다른 하나는 감정폭발의 계기점을 잘 설정하는것이다.

주체적문제리론은 감정을 터뜨리는 계기를 단순히 긴장과 흥미를 위한 사건본위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극의 흐름에 심각성을 주면서 사상적깊이를 보장할수 있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감정폭발의 계기는 곧 성격발전의 본질을 해명하는 계기로 되여야 하며 작품의 주제사상을 천명하고 종자를 형상적으로 해명하는 계기로 되여야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주제사상적과제와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감정폭발의 제기설정이 다양하지 않을수 없다.

레컨대 같은 작가의 작품인 경우에도 단편소설《유연》과 같이 착취사회의 모순을 반영한 적대적 갈등에 기초를 두고있는 극적정황속에서는 계급적원쑤를 단죄하거나 처단하는 형태로 폭발의 계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단편소설《해빛을 안고온 청년》과 같이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비적대적인 갈등관계에서는 낯은 사상 잔재를 체현한 인물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혁명화되고 성격이 발전하는것으로 폭발의 계기가 이루어지는것이다.

뿐만아니라 감정을 터뜨리는 대목의 제기설정가지도 작품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양상은 필수 있다.

흔히 극작품에서는 그것이 생활과 성격발전의 론리에 따라 작품의 마감대목에 설정되는것이 상례이지만 단편소설에서는 작품의 제시부에서 폭발의 계기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꺼꾸로 해명할수도 있고 작품을 결속짓는 맨 끝대목에 설정해놓고 그 계기를 치밀하게 해명해나갈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설정되든지간에 반드시 감정의 흐름에 심각서를 주면서 사상적깊이를 보장할수 있게 되여야 하며 그 폭발은 감정이 최대로 축적된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단편소설《자기위치 앞으로!》에서처럼 깊이있고 분석적인 심리묘사를 통해서 형상될수도 있고 주인공의 심각한 내면독백으로 형상될수도 있다.

단편소설《해빛을 안고온 청년》은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주인공의 내면독백으로 폭발된다.

단편소설의 감정조직에서 축적된 감정을 터뜨리는 계기를 잘 설정한 다음 폭발된 이후의 생활도 새로할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깊이 파고들어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주인공의 생활과 함께 개조된 부정인물들의 생활도 잘 보여주어야만 감정조직의 마무리도 순탄하게 잘 맺을수 있는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묘사를 기본수단으로 하고있는 소설문학에서도 특히 가장 전투적이며 기동적형식인 단편소설의 구성에서 감정조직문제는 참으로 중요한것이며 리론실천적으로 많은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의 하나인것이다.

따라서 우리 작가들은 가장 전투적이며 기동적인형식인 우리 단편소설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구성에서 감정조직을 단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더 깊이있고 다양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소설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요즈음 엄격한 비판자, 충실한 길동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장편소설 《령마루》(엄단웅 씀)의 주인공들인 광산기사장 현우림, 연구사 윤혜영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여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좋은 작품들을 읽게 되면 생활에 대한 커다란 환희와 욕망, 행복을 느끼는것은 누구나 다 체험하는 일입니다.

하나 읽은 모든 작품이 다 이런 인상을 남기는것은 아닙니다.

장편소설 《령마루》를 읽고나자 큰산옆에 자리잡은 광산마을과 그 광산의 전경이 눈앞에 선하고 여기서 약동하는 생활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속에서 나라의 광물생산을 책임진 우리의 굳센 주인공들인 현우림기사장과 체대군인 청년 강희철 그리고 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것처럼 아글타글 애쓰는 윤혜영연구사의 미더운 얼굴들이 정다운 미소를 머금고 방금이라도 그 무슨 말을 할듯이 쳐다보는것 같습니다.

소설은 이처럼 생동하고 강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혁명과업을 두고 생각해보게 하였습니다.

현우림기사장처럼 강한 의지와 높은 의무감을 가지고 생활하는가?

그처럼 시간을 쪼개가며 혁명임무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현우림기사장의 목소리가 저를 더욱 분발으로 떠밀어줍니다.

《…시간은 아무도 멈춰세울수 없소. 늦어지면 다요. 시간은 언제나 락후분자를 기다리지 않소. 다만 앞으로 전진하는 법이요.》

특히 소설에서 연구사 윤혜영은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소설의 혜영이처럼 공업대학을 졸업한 기사요,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또 그와 연령도 비슷하다는 그 조건에만 기인한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혜영의 생활에서 마음의 굴절선이 너무도 자신이 체험하고 모대긴 그 마음과 같았기때문입니다.

저 역시 혜영이처럼 대학을 졸업한 다음 가정을 이루고 련속 세아이의 어머니로 되면서 말은 과제수행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마음은 편하지 못했고 자신을 두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중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기술자협의회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현지교시의 중요한 과제를 맡았습니다.

지금 3년째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가지가지 마음의 모대김은 그야말로 신통히도 혜영과 너무나도 방불하여 저는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우리와 공통한 처지의 녀성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저 역시 혜영이처럼 출장을 가서는 아이들 꿈을 꾸기도 하였고 일이 안될 때에는 그까짓거 이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고 조절해달랄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윤혜영연구사가 압축기운전공 금옥이와 같은 녀성들을 부럽게 생각하듯이 저도 애태우지 않고 걱정없이 단순작업만 하는 로동녀성들을 퍼그나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혜영이가 한 것처럼 쉬운 방법으로 수입원료에만 매달리기도 하였고 노여워도 하였으며 신경질을 부리기도 여러번이었습니다.

어쩌면 장면장면이 그리도 신기한지 제 자신이 자기의 체험담을 쓰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진실하게 쓰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혜영이처럼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고 높은 령마루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혜영이가 끝내 올라선 가장 고귀한 삶의 령마루로 기어이 올라서기 위해 분발 또 분발 하며 달리고 또 달릴것습니다.

생활의 매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채찍질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아직도 간혹경우에 소설에서 나오는 사회보장 7년을 받은 업무지도원아바이와 같은 그런 혐오의 대상들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몹서리쳐집니다. 일생을 그렇게 산다는것이.

《...목적 없는 생활, 그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다!》

주인공 현우림기사장은 이 아바이의 생활을 놓고 이렇게 총화지으며 오랜 친지이며 경쟁인 박상만의 파오를 놓고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한생을 총화지을 때 어느모로 굴러보아도 때가 없고 그늘진곳이 없어야 한다. 깨끗한 구슬처럼 아무리 굴러보아도 허물이 없어야 한다. 맑은 수정처럼 아무데를 비쳐보아도 그늘이 없이 투명해야 한다. 사업에서도, 우정에서도, 사랑에서도.

만약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신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라면 살아서뿐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는 발광체가 되여야 한다. 태양과 함께 영원히 함께 반짝일 하늘의 별처럼...)

그렇습니다. 생활은 매 사람에게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여났기때문에 산다는 그런 생활은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각도 윤혜영이와 같이 속대사를 나눕니다.

처녀시절의 꿈도, 리상도,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과학자의 량심도 버리고 사회와 시대를 외면한 채 값없이 한생을 보내서는 안된다고말입니다.

고집스럽게 산정을 향해 기여오르면서 윤혜영이가 다짐하는 그 생각은 곧 책을 읽고난 저의 심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높은 뜻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그 높은 뜻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기여오르기 힘든 험준한 령길이라고 평탄한 길을 골라 걸어간다면 그는 일생 높은 그 삶의 령마루에 도달하지 못할것이 아닌가? 그는 고집스럽게 깎아 세운듯한 령마루를 향해 기여오르고있었다...)

얼마나 좋은 작품입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목표가 뚜렷하고 성실한 인간들을 그린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김성채와 같은 당비서로, 현우림과 같은 기사장으로, 윤혜영이와 같은 녀성으로, 강희철과 같은 제대군인으로 된다면 우리 조국은 얼마나 더 빨리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따라 공산주의를 향하여 내달겠습니까.

공산주의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의 좋은 길동무들을 더 많이 가지는 행복이 자주 차례지기를 원합니다.

평양전구공장 기사 리행순